

081A-0343

구입	납입	가중·교환
Pg 370.5		
7384		
등 © 국회도서관 © 록		

교육개발

1997 3

통권 106호

1000906719970310

특집

세종 탄신 600주년과 국어 교육의 방향

권두칼럼

이제는 교육의 자아실현 기능을 추구할 때/유인종

시론

‘시민사회’ 키워가기/김정자

싱싱한 사회를 만드는 인성교육/박삼중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정유성

테마대담 교사의 체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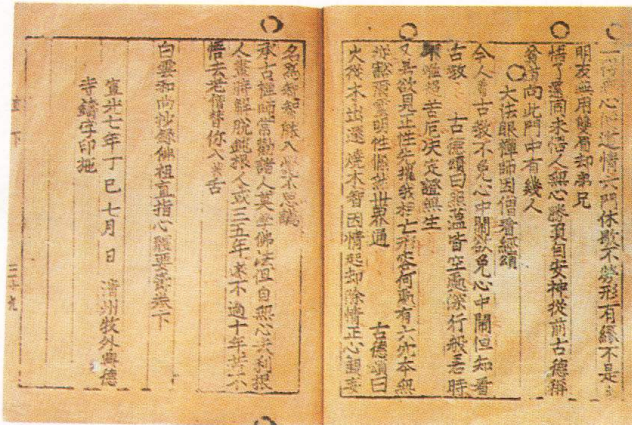
교육정보자료실 홍보출판운영팀
TEL (02) 3460-0233, 0234, FAX (02) 577-5117
E-mail: keditor@ns.kedi.re.kr

『직지심체』

(直指心體)



▲ 백운화상초록불조지지심체요절 활자



▲ 백운화상초록불조지지심체요절의 마지막 장

『백운화상초록불조지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고려 때(1372년) 백운화상이 지은 책으로 『직지심체』라고도 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다. 이 책은 조선 말 서울에 근무했던 프랑스 대리공사 골랭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귀국할 때 가지고가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기념행사인 「책의 역사」 전시회에 출품되어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책 마지막 장에는 인쇄시기(1377년), 인쇄장소(청주목 흥덕사), 인쇄방법(금속활자 인쇄)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서양에서 독일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가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찍었다는 『세계의 심판』보다도 무려 70여년이나 빠른 것으로 우리 선조들이 인류문화사상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었다.

*자료제공: 청주 고인쇄박물관
*자료해설: 정경아
*사진: 정태호

교육개발

1997. 3

교육개발 1997. 3/통권 106호/1975년 8월 25일 등록
 등록번호 마-574/1997년 3월 10일 발행/격월간
 발행인·이돈희/발행처·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전화 3460-0233, 0234/인쇄처·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유통실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이돈희
- 출판심의위원장/박경숙
- 출판심의위원/김명숙, 김영준, 김혜숙,
구자역, 남미영, 신익현,
이종태, 최상근
- 홍보출판운영팀장/심웅기
- 기자/정경아, 정태호



■ 화제의 사진

직지심체 1

■ 권두칼럼

이제는 교육의 자아실현 기능을 추구할 때/유인종 4

■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24

한국 음악 교육의 뿌리(I)/노동은 6

■ 시론

- ‘시민사회’ 키워가기/김정자 10
- 싱싱한 사회를 만드는 인성교육/박삼중 14
-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정유성 18

■ 스승의 한마디

분단활동과 학습의 효과를 깨우쳐 주신 선생님 22

■ 특별기획

세종 탄신 600주년과 국어 교육의 방향

- 우리말과 글 바로쓰기/정재도 28
- 국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정준섭 32
-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실시와 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완기 36
- 올바른 국어 교육을 위한 제언/김혜숙 43
- 세계화 시대의 국어 교육/노명완 47
- 국어 교육의 현상과 개선 과제/박영목 51

■ **테마대담**

교사의 체벌 : 폭력인가, 사랑의 매인가?

서희식/나원형/김지나/고성혜 55

■ **멀지만 가야할 길**

교육복지국가를 위한 작은 제안/민홍자 61

■ **보고서 중계**

- 서부 유럽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류재택 73
- 장학기능 개선방안 연구/김흥주 79

■ **세계교육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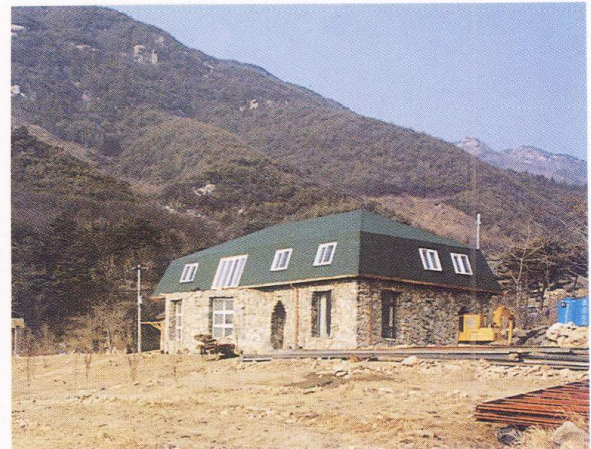
- 일본의 교육개혁 방안/김태훈 86

■ **연구동향**

- 전문대학, 이제 바로 서야 한다/최돈민 94
- 교육의 선택과 경쟁 : 학교 선택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각국의 정책 동향/한유경 99
- 교육과정 실천 환경 마련과 학사력 개선/홍후조 104

■ **KEDI 연구뉴스** 114

■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121



■ **학교탐방** 65
경남 산청의 '간디 청소년 학교'/이종태



■ **문화광장** 71
영화 '위대한 서부'



■ **KEDI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 6** 113

이제는 교육의 자아실현 기능을 추구할 때

유인종
(서울특별시 교육감)

일반적으로 교육은 본질상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신장시켜 주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내는 일이다. 전자는 교육의 자아실현 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교육의 인재양성 기능이라 할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이 두 가지 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주력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려 하는 경향을 많이 보아 왔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는 것만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시책을 가시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때 자아실현 교육에 치중한 나라일수록 국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가까운 예로 미국과 소련을 들 수 있다. 소련의 인재 양성 위주의 교육은 1957년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릴 수 있었으나 미국은 더딘 듯한 자아실현 교육으로 마침내 소련을 이기고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다. 우리 나라도 그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육열에 힘입어 교육의 기능 가운데 유능한 인재 양성에 치중하여 단기간 내에 오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한강의 기적을 낳았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신장시켜 주는 교육 기능을 소홀히한 나머지, 엄청난 시행착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다가오는 21세기 본격적인 정보사회의 도래와 교통·통신망의 발달은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사건 하나하나를, 마치 이웃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세계는 이제 한 동네와 같은 지구촌이 된 셈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대변화를 긍정적으로 재빨리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곳에 발전된 미래가 있다. 그러나 대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은 인재 양성을 위한 쉼아내기식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경쟁교육,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교육체제로, 바른 인성 교육과 창의력 신장 교육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학습자 개개인의 자아실현 기능 교육에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수년 내에 21세기를 맞을 것이며, 본격적인 정보사회가 열리게 되면 실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시대의 흐름으로 인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제는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으로 실시함으로써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신장시켜 주고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할 때이다.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누구나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본격적인 정보사회에서 좀 과장되게 말하면, 키보드 하나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용보다 훨씬 새롭고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지식 그 자체의 전수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교육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가올 21세기의 정보화·개성화·다양화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을 기르는 오늘의 교육은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 육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는 획일화, 정형화된 기존의 교육 방법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변화는 인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새물결 운동”을 전개하여 중등교육으로 확산·전개해 나가려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나아가 이 조그마한 운동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전개될 문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 차원 높은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는 5·31 교육개혁에 부응하는 큰 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변화와 개혁에는 외롭고 견디기 어려운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21세기를 맞는 대전환기의 변혁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통과 외로움 뒤에는 반드시 가치 있는 미래가 있고 발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 ㉠

“한국 음악 교육의 뿌리”(I)

노 동 은

1. 한국 음악 교육 뿌리의 반성

지금까지 모든 논자들의 한국 음악 교육 뿌리론은 ‘개화기’ 또는 ‘근대’라는 이름으로 1885년에 근거를 두었다. 이 해에 아펜젤러(H. G. Appenzeller, 1858~1902) 목사가 근대 최초의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세우고 ‘창가’를 교과목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다. 배재학당에 이어 이화학당 등 선교사가 세운 학당에서 음악 교과목으로 창가를 두었고, 이후 모든 학교에 공식화하였으니 그 뿌리론이야말로 정설이자 대세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었다. 심지어, 1885년을 한국 음악 교육사의 기점일 뿐만 아니라, 한국 양악사의 뿌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음악 교육은 물론 일반 음악과 교회 음악과 관련한 모든 논문이나 저서가 그러했다.

자연히 세 가지 성격으로 연구 풍토가 조성되었다. 첫째는 한국의 근대 음악 교육을 서양식 음악 교육으로 이해하였으며, 둘째는 찬미가식 창가가 음악 교육의 중심 교과내용이며, 셋째는 학교라는 제도적 음악 교육 기관이 아니고서는 음악 교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성격으로 인해 역으로 세 가지 연구 관점이 자리잡을 수 없었다. 첫째로 한국의 내재적인 음악사나 음악 교육사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었고, 설령 삼을지라도 전사(前史)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찬미가(찬송가)나 창가가 아닌 한국의 역사적인 노래나 음악은 음악 교육의 내용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여겼으며, 셋째로 근대적인 학교가 아닌 그

이전의 학교는 학교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음악 교육의 뿌리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80년대부터 반성되면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시도되었다. 앓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으로 전달하는 교육방식이 학교라는 제도교육 성립 이후에도 지금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 의식 아래 수행하는 모든 인간활동이야말로 교육현상이라고 여긴 것이 그것이다. 또, 학교가 제도 교육의 핵심이라면 그것은 고조선부터 있어 왔으므로 한국 음악 교육사가 1885년이 기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그 이전이야말로 음악 교육의 전사(前史)가 아니라 본사(本史)이며, 당연히 한국의 역사적 음악을 음악 교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성이 그것들이다. 한국 양악사의 기점도 1885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25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논증부터가 근대 음악 교육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 설령, 근·현대 음악 교육을 한국 음악 교육의 전부로 생각하였을지라도 근대 음악 교육사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성급한 평가로 일관되어 왔고, 또 일제 강점하의 음악 교육사가 분명 존재하던데 그 연구는 전무하였거니와, 해방 이후의 현대사는 다루는 데 쪼글쪼글기 때문에 자료적 교육사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성 또한 동반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한국 음악 교육의 뿌리 확인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속으로 일본식 음악 교육 방법론을 감추고 겉은 서양 음악 교육이 장식한 한국 근·현대 음악 교

육 내용과 그 역사 서술·정책이야말로 한계가 있음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사실은 ‘역사적인 한국 음악사와 음악 철학과의 대화’였다. 이 대화는 싫어해도 피할 수 없다는 반성이 80년대부터 거세게 일어났다. 100년 넘게 한번도 한국 음악을 학습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데, 한국 음악을 잘 모르겠다는 ‘원초적 공허감’이 채워진 시대적 상황에서 제6차 교육과정이나 시대적 요구로 부각된 한국 음악 앞에 언제까지고 방황할 수만은 없다는 반성이 90년대까지 이어져왔다. 반성은 극복의 전제이며, 극복의 태도야말로 열린 음악 교육의 계기이다.

2. 한국인이 가진 음악 교육의 뿌리는?

어느 사회이고 그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사회적 과정으로 교육을 시킨다. 한국인들은 갓 태어난 새내기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하기 위한 음악 교육을 발달시켰다. 「자장가」, 「짜자궁」, 「잼잼」, 「곤지곤지」, 「도리도리」, 「달강달강」, 「불무야 딱딱 불어라」, 「둥개둥개」 등의 노래는 할머니의 심심풀이용 노래가 아니라, 어린이 발달과정의 교육용 노래이자 한국 음악의 음향적 재료의 각인, 한국 사회의 문화적·예술적 적용을 위한 뿌리 교육의 교과 내용이었다.

어린 아기에게 학습된 이 음악들의 구조로 말미암아 「두껍아 두껍아」, 「잠자리 꿈꿈」, 「이거리 저거리」, 「얌니 빠진 달강새」 등의 어린이 노래(동요)로 이어져 왔으며, 청소년기에서 어른을 거쳐 농경사회 현장에서 일노래, 민음노래, 놀이노래 같은 민요를 비롯하여 풍물치기를 생활화할 수 있었다. 곧, 생활을 음악화시키고, 음악을 생활화시켰다. 새내기 음악 교육의 교사는 할머니, 어머니 등의 가족들이었으며, 교실은 가정·마을 전체였다. 따라서, 가족들은 어린 아기에게 그 사회의 핵심적인 내용과 음악 재료의 구조적 특징만을 교육하여 새내기들이 그 바탕에서 새롭게 채우거나 변용시키거나 어느 곳, 어느 때라도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 같은 ‘창조적 열린 교육’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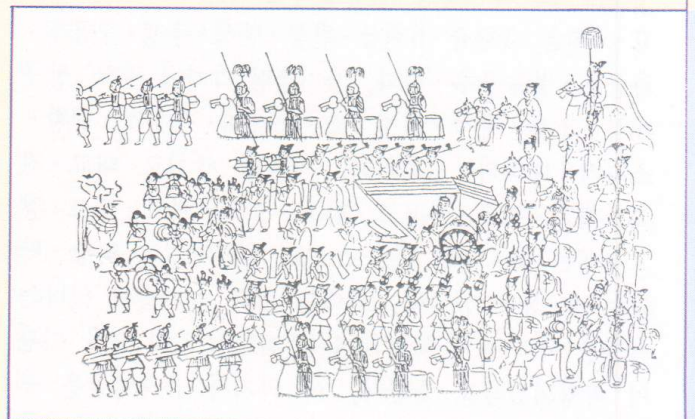
창의력이 단순히 머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회를 있게 한 역사적 기반에서 길러지게 하려면, 그리고 지자체 실시 후 지역의 독자적 문화로 풀뿌리 민

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개발하려 한다면, 그 지역의 역사적인 음악을 새롭게 학습해야 할 것이다. 「용인학」, 「삼척학」, 「서산학」, 「삼례학」이야말로 교사들의 몫이다. 왜냐하면, 그 뿌리들은 교육 대상자에게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키워드이고, 삶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중국학」, 「일본학」, 「미국학」, 「서울학」을 수 천수백년간 한국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의 대상으로 삼고, 초지역·초민족·초역사적인 음악 교육을 일방적으로 실행해 왔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한국인들의 삶과 죽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 ‘창조적 교육’이란 이름으로 중국화, 일본화, 미국화, 서울화 등 ‘모방적인 교육’으로 답습하고, 본토의 그 수준까지 도달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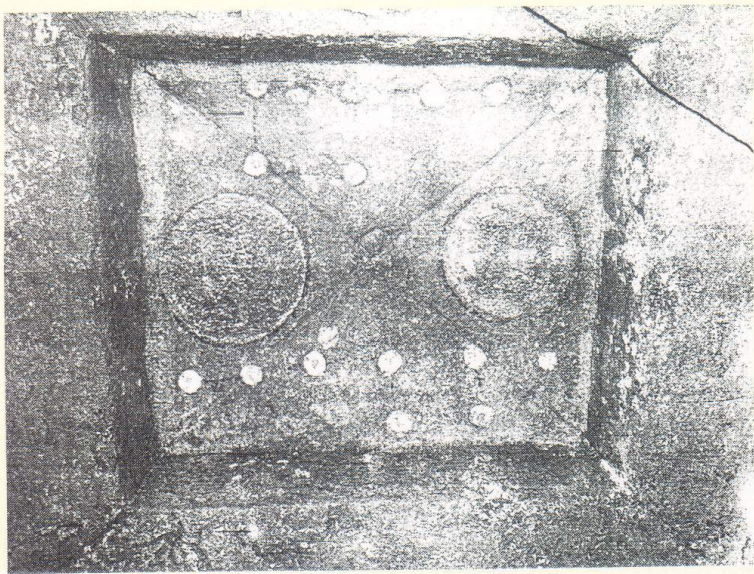
3. 제도적 음악 교육의 시작은?

1885년에 근대적인 교육 기관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시기가 교육의 기점이라고 본 지금까지의 관행을 반성하였다면,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뿌리는 한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추정되는 춤무덤(舞踊塚)이나 장천 제1호 무덤에는 잘 알려진대로 ‘소매옷 춤’이 그려져 있다. 또 고구려 원릉 벽화나 팔청리 무덤 벽화 등 수많은 무덤 벽화에 ‘칼·활춤’을 거문고류나 비파류에 맞추어 추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춤추는 모



◇4세기경의 고구려고분 ‘하무덤’에 그려진 대행렬도



◇ 장천1호분 천정의 일월성신

습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추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줄을 맞추어 추는 모습이었다. 또, 4세기 경의 고구려 고분 '하무덤'에 그려진 화랑 벽화의 대행렬도 요즈음의 군악대처럼 훈련된 행진 악대가 고취악(鼓吹樂)을 연주하고 있다. 또,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김유신(595~673) 장군이 서거하였을 때, 군악고취 백명이 행진하였다. 그리고 백제 고이왕 때는 제천지(祭天地)용 고취가 있었다. 실제로 신라의 화랑도 교육은 전형적인 제도적 교육양식이었다.

이 사실들은 국가의 집단적 군사 훈련이나 의식 훈련이 제도 교육의 단초를 이미 마련하고 있었으며, 그 교육기관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삼국에는 국가 수준에서 음악과 춤을 관장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으며 일본에까지 음악인과 음악들을 보낸 바 있다.

더욱이 4세기 전후의 고분 벽화를 모두 종합하여 쿠르트 작스(Curt Sachs, 1881~1969)와 호른보스텔(E. M. von Hornbostel, 1877~1935)의 악기 분류법으로 그 악기들을 분류한다면 현울림악기에 거문고·4현금·5현금·6현금·완함·탄쟁·추쟁·수공후·외공후·봉수공후·비파, 공기울림 악기에 대각·쌍구대각·소각·장적·횡적·소·소라패·의취적·생황·소피리·대피리·도피피리, 막울림 악기로 태고·건고·제고·현고·우보고·담고·요고·개고·도고·장고·매는 북·세운 북, 스스로 울림악기로 담중·탁 또는 요 등이 있었다. 이러한 많은 악기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음악 학교와 같은 제도적 음악 교육 기관이 확립되었음을 뜻한다. 이 악기와 음악인들은 무천·영고·동맹과 같은 '국가적인 의식 축제'에 출연하거나, 전쟁이나 온갖 문화 행사에 동원되었으며, 사회 각계 각층에 민간 음악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음악 교육 기관들은 하늘 음악에서부터 땅 음악에 이르는 세계관을 교육시켰다. 이들 고분 벽화에는 어김없이 북극성·북두칠성 등의 성신(星辰)과 해와 달(日月), 곧 일월성신(日月星辰) 그 자체의 우주 메시지를 전달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하늘 음악가들이 언제나 그려져 있었다.

그 음악 교육적 전통은 고조선에서 홍익인간의 음악 세계로, 불교에서 서방정토의 천녀들의 음악으로(감로탕이나 석탑기단이나 범종에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유학에서 12율이론(음률론, 악기이론, 악기배치법, 악현, 창작 원리 등을 포함한)으로, 민악(민속악)에서 제석굿 등에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보다 앞선 고조선 시대의 노래 「공후인」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노인이 강물에 빠져 죽자 그 아내도 '공후'를 타며 강물 속으로 뛰어든고, 이 현장을 본 괘리자고라는 남자가 아내 여옥에게 그 사실을 전해 주자 여옥 역시 공후를 타며 노래한 것이 바로 「공후인」이었다. 이 노래에서 우리들은 공후라는 악기가 고조선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기들을 다루는 '곳'에서 음악 교육이 실행되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고조선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신석기 유적에서 새의 다리뼈로 만든 피리가 출토된 바 있다. 양손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지공이 많다는 점과 이런 악기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유행하여 고조선과 삼국에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음악 교육의 뿌리를 주목시키는 고고학적 성과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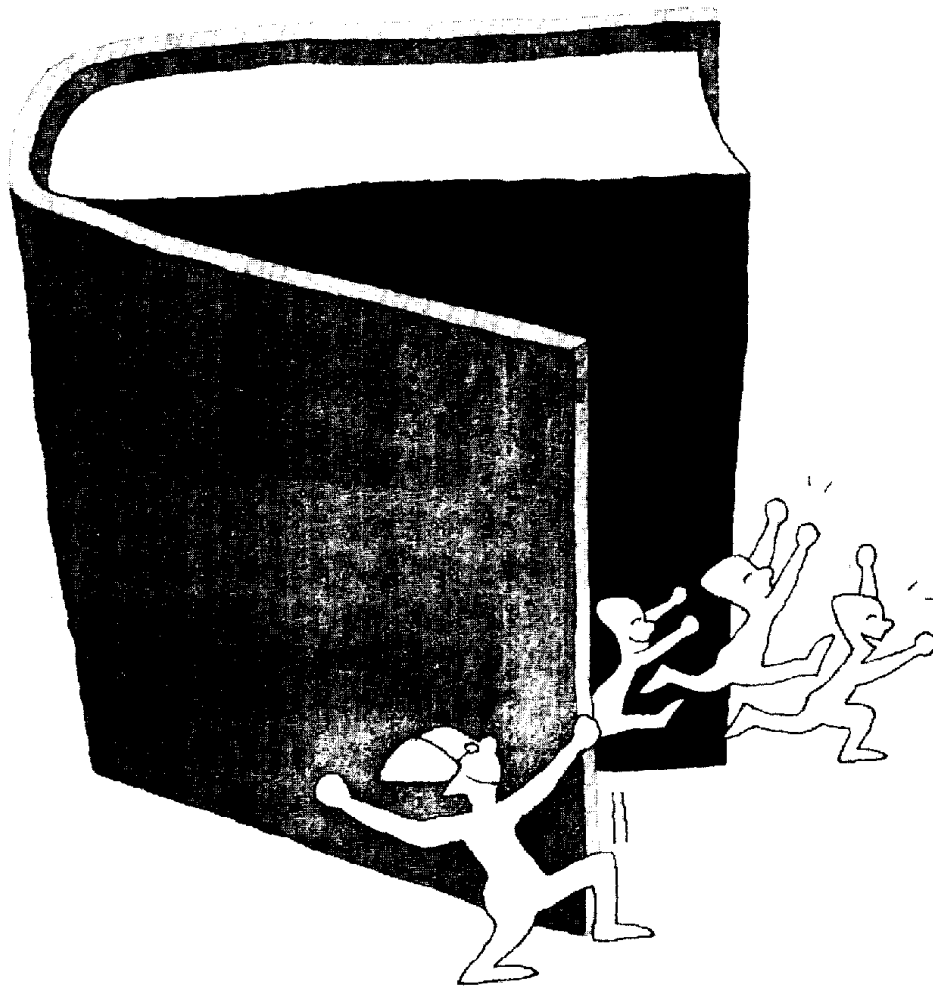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노동은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원 졸업
-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초대학장 역임
-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 「한국 근대 음악사」,
「노동은의 음악상자」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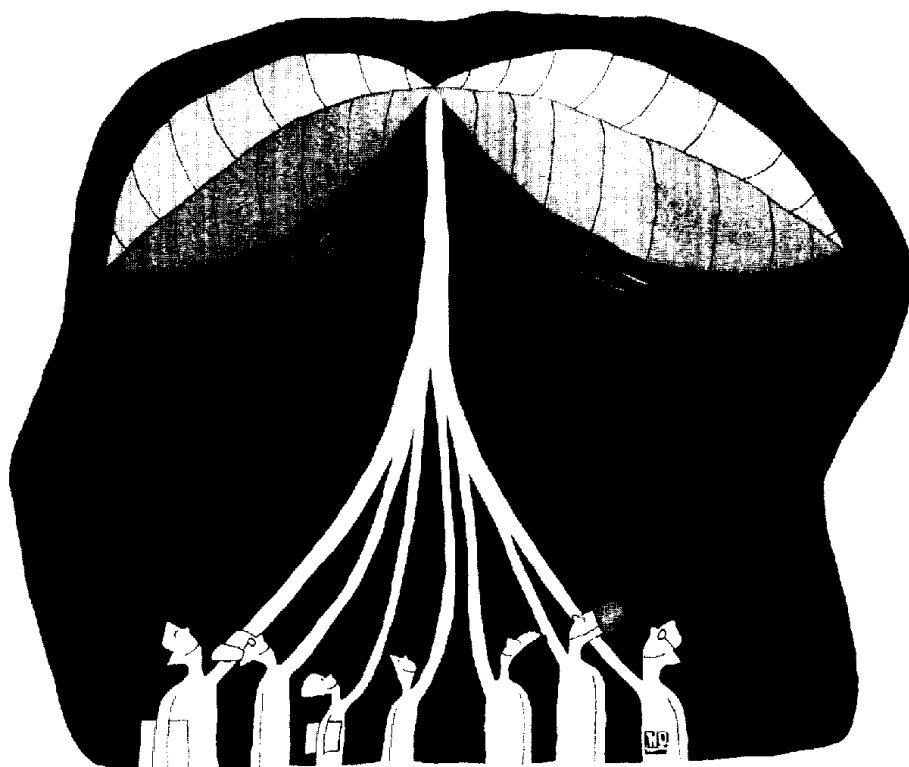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론

‘시민사회’ 키워가기

김 정 자



이 시대를 「시민사회」라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시민이 자기 권리에 눈뜨기 시작한 시대라는 뜻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초등학교 만이라도 나온 사람이라면 외우고 있을 내용이다. 그러나 과연 「주권이 국민에게 있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해방 후 지금까지의 정치 역사를 더듬어 보면 해답은 분명 해진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 의원이 되었다 해서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제1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독재자를 뽑아 막강한 권력을 그에게 주었다. 제3공화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유신 이후 5공화국까지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도 못했다. 그러면서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은 그대로 있었다. 국민은 그동안 이 조문을 실현성 없는 단순한 이상적 세계로만 인식해 온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국민의식」, 「시민의식」이라는 것도

성장하는 식물이나 진화하는 생물처럼 개화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20세기 초에 왕조를 끝내면서 금세기 전반을 일제의 억압 속에 살아온 한민족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당장에 현실성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의 과일이 꽃피고 열매맺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듯 「시민사회」를 열기까지 이 땅에도 수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를 위한 길고 긴 투쟁이었다.

따지고 보면 한보사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비리도 「시민의식」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진정한 「시민의 시대」라면 그런 부정부패가 쉽게 발붙일 수가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권력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소불위」류의 왕조시대적 권력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몇 억원의 돈을 받고도 「대가 요구가 없는 단순한 떡값」이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곁에 두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시민사회」를 열기 어렵다. 시민사회는 이들로부터 시민이 권력을 이양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 공약을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잘못만 저지르는 국회의원이라면 유권자들의 리콜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그런 리콜제가 정치인들의 안일과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한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4년간 각종 면책 특권까지 누리며 지위가 보장된다. 일을 하든 안하든 4년은 보장된다.

소비자 리콜제도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지난해 형식적으로 도입돼 있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홍보 부족으로 국민 가운데 리콜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문스럽다.

그래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야 국민들

이 헌법 조문의 의미에 눈을 뜬 것 같아 보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하고 「시민사회」라든가 「시민운동」이라는 말이 강력한 이미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란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체제에서는 불가능했던 각 분야의 자기 주장과 노동·주민·여성·교육·환경·평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능을 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야말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다. 시민운동의 활성화도 여기서 시작된다. 그것은 한편 정치나 경제에 의해 정의되는 사회가 아닌 종교·사상·인권 의식 등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이기도 하다. 민주화 운동 역시 시민사회를 확장해 가기 위한 문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구미선진국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진다.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 시민의 목소리가 함께 하지 않는 예가 없다. 유엔에서도 지구규모의 문제, 환경이라든가 식량, 인권, 인종, 민족, 여성, 문화의식 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비정부조직인 NGO의 존재가 있어 정부조직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자각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자각이 느렸던 원인은 당연히 국가권력의 과잉에서 찾아야 한다. 절대권력은 당연히 시민운동을 적대적으로 보아 왔으며 그 싹을 움트지 못하게 잘라왔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도 시민운동을 동반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시민의 자각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세계가 하나로 여겨지는 정보화시대에 더이상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80년대말 이후 자생한 전국의 시민운동 단체는 이제 1,500백여 개에 이를 만큼 양적인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제대로 뿌

**성숙된 시민사회란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일에도
「옳은 일」이라면 소명감을 가지고 돈을 내면서 열성을 보일 시민을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 그런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다.**

리도 내리지 못한 상태이지만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직장인들이 협의회를 구성, 직장 주변 서비스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도 하고 서울의 시민단체의 경우 서울시에 시민감사 청구를 해 행정을 감시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회가 공명선거를 위해 감시의 눈이 되어 주었다. 이제는 버스 요금이나 버스 노선 조정에도 시민단체가 관여하게 된다.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하는데, 그들은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로 자칫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전국민에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주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 때 시민 단체들이 연합해서 공연 반대 운동을 벌인 것도 한가지 예가 된다. 결국 적자 공연으로 이후 그의 한국 공연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환경운동이며 인권, 소비자, 여성운동 등 이제 시민단체를 빼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낙후된 정치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깨뜨리는 데도, 윤리의식이나 도덕성 제고에도 시민운동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의 의식 수준과 그 수위를 같이 한다. 시민이 「무엇이 옳은 일인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면 시민운동의 앞길은 밝지 않다. 지금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이 제대로 성숙해 있는가도 의문이다. 시민에게 권력

이 이동된다 해서 최선의 세계를 만든다는 보장도 없다.

「어떤 것이 옳으냐」 이전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냐」를 따지게 되면 한낱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 상수원지역 개발 문제, 아파트 재건축 등이 소송적 차원의 지역이나 집단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정도의 시민 의식이라면 「시민의 시대」는 그야말로 지역분화와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시민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나 재벌 등 권력에 정면으로 맞설 수도 없게 된다. 시민운동이 성공하는데는 재정적인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관변단체처럼 정부 지원이나 이익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비판과 견제 대상의 도움을 받아서는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시민운동 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낮다. 지난해 선거 때 공선험이 각 정당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선거를 감시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그러나 감시의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고발하겠다는 시민단체가 감시·고발의 대상으로부터 돈을 거둔다면 시민운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민단체가 제대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재정보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아직 채 자라지도 못한 시민운동의 짧은 역사에

서 그동안의 활동과 쌓아온 개인의 유명도를 이용, 정계 진출을 꿈꾸는 시민운동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런 것은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해친다. 미국 소비자 운동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랄프 네이다가 정계를 결눈질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런 순수성이 그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주고 있다.

시민운동이 무슨 압력이나 행사하는 권력단체쯤으로 인식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같은 일들은 시민운동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반감시키고 공정성도 떨어뜨리게 된다.

성숙된 시민사회란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일에도 「옳은 일」이라면 소명감을 가지고 돈을 내면서 열성을 보일 시민을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 그런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다. 시민의 냉담, 그것이 지금 시민운동에 또하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 행정 결정의 동반자인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국가의 자체 면역체를 활성화시키는 길이며, 그 면역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국가 장래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당한 것이라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시민이 있어 행정을 썩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끔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행정이 손잡고 일한다면 시민의 불신도 없앨 수 있으며 다양한 이익집단끼리의 충돌을 조절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올바른 방향을 잡게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자금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단체 육성기금」 같은 것도 연구해 볼 만하다. 아직은 걸음마단계인 시민운동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이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시민사회」도 유기체처럼 성장해 가는 것이다.

자금이 떡잎단계라면 앞으로 큰 나무로 성장하기 까지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적어도 21세기를 「성장한 시민사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시민의식」을 키워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나 과연 교육계에서 「시민의식」 개화를 위한 교육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사회」를 위한 교육은 남이 당하는 불행은 자신의 것으로 이해할 줄 알며 불의에 공분을 느낄 줄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값을 치를 줄 알아야 함도 깨우쳐야 한다. ㉞



김정자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세계일보 문화부장 역임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칼럼집 「바보는 감동을 준다」의

시론

싱싱한 사회를 만드는 인성 교육

박삼중



울곡 이이 선생이 지은 학습 입문서인 <격몽요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다만 부모는 아들 딸을 사랑하고 바르게 지도할 것,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고 효도할 것,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것,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고 형제는 서로 우애할 것, 젊은 사람은 어른에게 공손할 것,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성교육이 그동안 학력위주의 경쟁력 기르기로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존파 사건, 박한상 사건, 대학교수의 부친살해 사건 등 인성이 파괴된 끔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가입하는 등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측면이 아닌 도덕과 인간성의 측면에서 보면 건국 이래 최대의 인간성 상실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서 와해되지 않고 계속 성장·발전하려면,

잃어버린 도덕성과 인간성을 되찾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에도 인성교육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미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 오래며, 학교에서도 전인교육은 구호에만 그친 채 입시위주의 지식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요령과 편법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그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다뤄 왔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성교육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전문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을 말합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매일 공기를 마시고 밥을 먹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평생을 살면서 주어진 인생을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 또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 마음 먹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체는 곧 허물어지고 마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육체니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단 한 장의 사진에 불과한 것이 육체요, 삶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크게 잘 써야 합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삶이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맙게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남에게 준 것만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성에 차지 않으면 토라져 다시는 안 볼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 마음입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잊고 내가 남에게 준

것도 강그리 잊는 것이 최고의 마음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매사에 남이 최고로 보이는 법입니다.

모든 것에서 떠날 수는 있어도 마음으로부터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더 창조적인 나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환희심을 죽이고 남에게 받은 것만을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삶 자체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우선 바꾸고 변화시키면 상대방의 마음도 따라옵니다. 색바랜 한 장의 초라한 흑백사진 같이 순식간인 인간의 삶을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바꾸어가려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있고 과학화와 컴퓨터의 발달로 즉물적이고 즉흥적인 인간 심성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야말로 한국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교육 담당자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내 가정의 구성원부터 화합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에 적극 나선다면 우려를 희망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는 옛날 얘기 하나만 해 볼까요.

무예에 이름이 있는 한 선비가 어느 날 명망있는 역학자를 찾았습니다. 역학자는 그 선비를 보자마자 “당신은 훌륭한 재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를 살해할 운명이군요.” 하고 점을 쳐 주었습니다.

스스로 아내를 살해할 운명이라는 말을 들은 선비는 깜짝 놀라 “그러면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이지 않는 방법은 없겠소. 제발 나에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역술가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역술가는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니 그것을 피할 수는 없소.”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선비는 너무나 답답하여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만약 그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목을 베어버리겠소.” 하고 호통을 쳤

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역술가는 조용히 “바로 당신의 그 급한 성질이 주범이니 보이는 곳마다 참을 인(忍)자를 써붙여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참는 것을 익혀보시오.”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흘러 그는 마침내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선비로서는 더이상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관직에 올랐지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참을(忍)자를 써붙여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참는 습관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불, 밥그릇, 신발, 문지방 등 온갖 집안 물건에 인(忍)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부인과 어떤 떠거머리 총각이 나란히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에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한 칼에 두 연놈들의 목을 벨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이불 위에 썩어진 인(忍)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런 것도 참아야 하는가.” 하고 눈을 들어 벽을 보니 거기에도 인(忍)자가 보였습니다. 다시 분을 참느라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더니 거기에도 인(忍)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멈칫하는 짧은 사이에 부인이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아니 여보, 왜 이러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재상은 “네 목을 쳐도 시원치 않거늘, 감히 외간 남자를 집안에 불러들이다니.” 하고 칼을 내리칠 기세로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재빨리 자고 있던 외간 남자의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외간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바로 그 재상의 처제가 아닙니까. 머리를 감고 마르지 않아서 남자처럼 상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재상이 1분간만 참지 못하고 자기 부인의 목을 베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를 잃은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죄인의 몸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세상의 모든 불행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항상 참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사바의 뜻은 곧 인토(忍土), 즉 참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삶을 참답게 잘살았다면 그는 곧 인(忍)자의 옷을 잘 입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예외없이 꼭 참아야 할 때 잘 참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도소에 교화차 갈 때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1초만 참아라’라는 글귀입니다. 1초만 참으면 교도소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교도소만큼 불행한 곳이 어디있습니까. 그 불행한 곳에 온 사람들은 거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살면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억제하기 힘들 때 3초만 생각의 고삐를 놓아봅시다. 생각을 3초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생각의 변화는 참으로 무궁무진하여 애초의 자신의 분노와는 참으로 많이 바뀐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도소 담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걸음을 잘못 딛으면 교도소 담 안쪽의 나락으로 떨어져 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슬아슬한 인생이지요. 순간적인 실수는 누구나 하게 되지요.

마음을 바로 잘 쓰는 훈련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보다 남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런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외국의 예에서 그런 살아있는 인성교육의 사례를 보노라면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들에게 세상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으며 그들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해 유럽에서는 가족사랑부터 강조

합니다. 유럽의 유치원들이 교실 구석에 '홈코너'를 만들어 놓고 소꿉놀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깨달도록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일본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일 것 같지만 '남에게 폐끼치지 말라'는 평범한 말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를 깨우치게 하는 철저한 교육 덕분에 서구인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과 살짝만 부딪혀도 '익스큐즈 미(미안합니다)'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인사성 바르고 친절한 아이들은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유치원의 철저한 습관화 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 주는 사례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간성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의 부재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사건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험하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은 어쩔 수 없는 천재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인재이며,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즉 인성교육의 부재가 바로 인간성의 부재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며 그 목표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란 인간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올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인간위주로, 인간우선으로, 인간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은 바로 인성교육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동시에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실제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은 인간의 존엄

성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의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인간위주로, 인간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는 다리나 주저앉는 건물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이나 공기를 오염시키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막 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높습니다. 인성교육은 품성교육이므로 '교사'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자리매김되면 범죄 없는 사회가 앞당겨지겠지요. 교도소가 텅텅 비는 사회, 바로 교도소를 폭파하겠다는 제가 진정으로 바라던 일입니다. 밝고 건강미가 넘치는 사회, 살아있는 싱싱한 사회의 첫걸음은 인성이 제대로 된 어린이를 길러 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교육은 단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만 아는 독불장군만 길러낸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는 사회, 바로 우리 기성세대 지금 우리의 몫입니다.☺



박삼중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자비사 주지, 전국재소자교화후원회장
· 「형장의 빛」, 「영원한 인생을 찾아서」, 「인간업보」 외

시론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 다름과 새로움, 그리고 교육다움 —

정 유 성



아직은 입춘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가만히 둘러보면 봄의 예감 또한 어느새 가득하다. 역시 계절의 변화처럼 오묘한 것은 없다. 몸과 마음이 쫄쫄 얼어붙었다가도 그 변화의 예감으로도 따뜻한 꿈을 꾸니 말이다. 사람 일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겨울 하늘처럼 시끄럽고 혼탁하지만 내 주변에서는 졸업과 입학 등 새봄과 같은 새로운 시작들로 분주하다. 졸업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대안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창업식이라고 부르고, 졸업논문도 창업논문이라고 한다. 입학은 더욱 그렇

다. 새로 대학문에 발을 들여놓은 솜털 보송보송한 새내기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싱그러움을 느끼곤 한다.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우리 집에도 취학통지서가 날아들었다. 하나 뿐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나도 여느 부모나 마찬가지로여서 늦게 그것도 하나만 둔 아이가 학교에 간다니 한편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자유분방하게 놓아 기르다가 제도교육의

를 안에 들여보내는 과정이니 그렇다. 아이도 놀이터에서 먼저 진학한 같은 유치원 다니던 형아, 누나들에게서 주어졌는지 은근히 걱정되는 눈치다. 가끔씩 “나 학교 안갈래요. 재미 없대요. 숙제도 많구요. 막 혼도 낸대요. 그냥 아빠랑 집에서 공부하면서 살면 안될까요?” 이런 말을 해서 나와 아내를 더욱 염려스럽게 한다. 하기는 나 스스로 우리 지금, 여기의 제도교육에 대해 여간 불만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저런 대안을 제시해 보고 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아마 내 제도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전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교사인 부모가 학부모 노릇하기 더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가 보다. 아무튼 사정이 이러하니 학부모 되는 심정이 편할 리 없고 그 새로운 시작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나저나 왜 우리 제도교육은 그 첫걸음부터 이렇게 걱정스러울까? 부모나 아이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시작인데도 왜 축복스럽고 신나지 않을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제도교육 자체가 그만큼 미덥지 않아서일 것이다. 교육은 사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사회 활동이다. 이 활동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 녹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학교라는 틀을 갖춘 제도에 이 활동을 담게 되었는데 그 역사 또한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런 제도교육의 기회를 사람들 모두에게 준 것은 더욱 얼마 안되는 일이다. 잘 알 듯이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제도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함께 모여 사는 삶을 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게 해주는 반면에 언젠가부터는

제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동화하고 절대화하여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윽고 정작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날의 삶터, 곧 생활 세계까지 잠식하게 된다. 이것을 어느 학자(Habermas)는 제도나 체계에 의한 ‘생활 세계의 식민화’ 과정이라고 불렀지만 현대 사회에서 조금만 눈여겨 보면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과 삶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지만 제도가 사람을 못살게 굴고, 삶을 피폐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생활 세계의 식민화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양적으로는 많이 커졌지만 아직 쾌적하고 안락한 삶은 실현하지 못한 우리같은 사회에서 두드러진다.

이를 떼면 우리 입시위주의 교육이 그렇다. 아이가 고3만 되면 온 집안에 비상이 걸리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서도 쉬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유보하고 오로지 그 아이의 대학 입학을 위해 총동원된다. 아버지는 사교육비를 벌어들여, 어머니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느라 혈안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비인간적인, 그리고 비교육적인 시험 준비에 온 존재를 바친다. 교육개혁안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했어도 이 비교육적인 틀만은 어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등, 초등,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그 여파에 시달려 제도교육이 과연 인간교육의 장인지, 입시학원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이다. 게다가 상품화된 교육이 범람하는 사교육 시장은 점점 빈약해지기만 하는 우리 공교육 제도를 비웃듯이 날로 번창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미래의 인재양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제도교육은 인력교육이라는 게도 인간교육이라는 구력도

다 놓치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우리 제도교육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동안 그토록 많은 개혁의 노력이 있어 왔고 수많은 현장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제도 자체의 모자람과 그릇됨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의식을 들기도 하지만 이는 제도의 잘못에서 비롯되어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이지 결코 원인은 아니다. 그 제도의 잘못을 들자면 한이 없지만 가장 큰 문제점만 들자면 중앙 집중과 경직화, 획일화를 들 수 있다. 세계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가장 현명한 길은 다름 아닌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각자 선 자리에서 실천하기(Globalization)'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제도의 체제, 조직, 운영 하나못해 교육과정과 내용까지 중앙에서 규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다양하고 역동적,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펴나갈 수가 없다. 또 제도의 획일화, 경직화가 지나쳐 좀처럼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 형식이나 내용이 투입할 여지가 없다. 예전과는 다르게 정보의 양이나 통로가 확대·심화되고 다양해진 시기에 전통적인 학교의 틀만 고집해서는 나날이 달라지고 바뀌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을 해 나갈 수 없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문명전환이라고 불러야 옳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교육개혁이 한창이기는 하다. 하지만 교육개혁이 어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던가? 그런 위로부터의, 제도적인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밑으로부터의 내용적인 개혁이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내용적인 개혁을 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용어로 '대안교육'의 노력이다.

대안교육은 그 용어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 대안이라면 지금, 여기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일 뿐이다.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가장 본보기가 되는 학교, 바로 위의 창업식과 창업논문의 학교가 충남 홍성의 풀무 농업기술고등학교이거니와 그 교장이신 홍순명 선생은 늘 "우리는 본질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의 실천을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작은 학교에서 노동을 포함한, 삶과 유리되지 않은 생활 교육을, 적은 학생수에 많은 선생으로 인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교육을, 머리뿐 아니라 가슴과 손발을 교루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을 지역사회와 서로 품앗이 하는 현장교육을, 그리고 생명가치를 존중하며 자연과 합일되는 생명교육을 노력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풀무학교에서는 청둥오리를 이용한 유기농법으로 농업교육을 하고 있거니와 청둥오리가 제초하고 해충 잡아먹고 땅을 기름지게 하며 부드러운 깃털로 벼를 쓰다듬어 키운 이삭은 '위대한 평민'처럼 작지만 튼실한 이삭을 여물게 하는 바로 그런 교육이다.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교육을 다룬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없다. 다만 양적인 성장의 논리로 크기만 키우던 시절, 남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고생스럽게 교육을 교육답게 해보려고 애쓴 것이 돋보일 뿐이다.

언제부터인지 제도교육에 지치고 치인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진정한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와 사회에서 버린 밤송이들만 모아 정성으로 교육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품앗이로 환경이며 예술교육, 공동체 교육을 애쓰는 방과후 활동이나 교사들이 아이들과 자치적으로 자연 속에서 생명가치를 익히는 방학 중 교육 활동, 부모와 지역사람들이 푼돈을 모아 한 반에 20명을 넘지 않게 기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은 학교들이 그렇다. 이 역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교육책에서 보지 못한 신비스러운 이상이나 전혀 새로운 활동을 펼치는 현상이 아니다. 다만 교육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가려는 노력을 그것도 교육의 단순한 수용자나 소비자가 아닌 주체와 당사자들로 부모, 교사가 스스로 나서서 함께 기울일 뿐이다.

결국 대안교육이란 한마디로 교육을 교육답게 되살리려는 노력이다. 그 현장을 제도라는, 이제는 공통처럼 커져 쉽게 변화하지 않는 틀 안에서 가 아니라 그 결이나 밖에서 만들어 내고 있을 뿐이다. 또 열린교육과 같은, 또는 교육다운 교육에 애쓰는 수많은 교사들의 교실 안에서의 노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노력이 모아질 때 그리고 제도의 획일화되고 경직화한 틀을 바꾸고 열어가려는 노력과 어우러질 때 우리 교육은 제도 안팎으로 교육다워질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이런 대안교육—아니 그런 오해를 피해 내가 늘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교육 문화'의 노력이라고 해도 좋다.—의 이야기에 한번쯤 귀 기울이고 눈 크게 뜨고 지켜 보아 모두 함께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되살리도록 애써야 한다. 그런 현장들을 새로운 학교로 인정해 주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보고 배워 우리 제도 교육의 현장도 그렇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과 틀에 박힌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가족의 해체 같은 사회변화로 학교가 말아야 할 교육의 몫은 더 커지면서, 동시에 정보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학습의 개념도 달라진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더욱 사람답게 만들어 가려면 교육부터 교육답게 해

야 한다. 그런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기존 교육에 대한, 특히 제도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그 제도를 끊임없이 열고 새롭게 해 나가야 한다. 대안교육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려는 노력인 것이다.

나는 이런 교육의 꿈을 간직한 채 이제 우리 아이와 더불어 제도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아이와 함께 노력하며 언젠가는 교육이 교육답게, 답답하고 어려운 학습과정이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더불어 사는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한다. 그럴 때 지금 여기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대안교육 현장의 힘찬 노력들은 내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그 많은 꿈들이 모여 이윽고 가장 교육다운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정유성

- 서강대학교 독문과 졸업
- 독일 뮌헨대학교 졸업 (교육학 박사)
- 서강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 「다름과 새로운 : 대안교육론」, 「여성남성 같이살기」 외

분단 활동과 학습의 효과를 깨우쳐 주신 선생님

인간은 배워서 인간이 된다. 잘 배워서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잘 배우지 못해서 덜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얼마나 잘 배우고 잘 배우지 못하느냐는 거의 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스승을 만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와 같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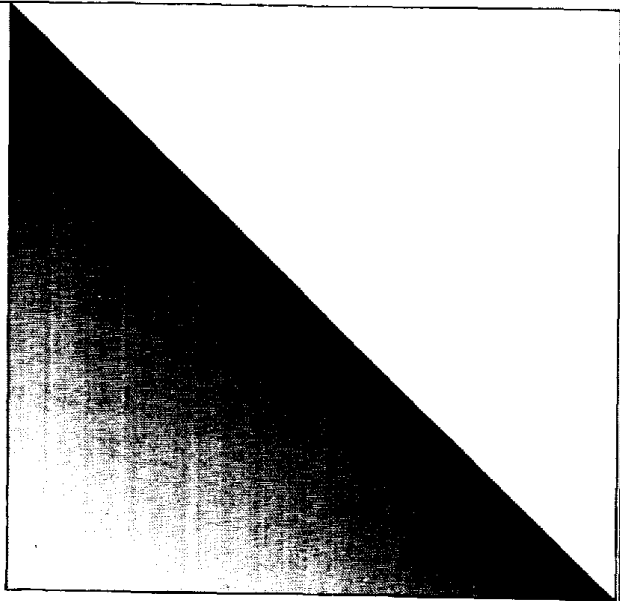
허 경 철

우리 각자는 서로의 운명에 의하여 우리 인생의 여로 어느 부분에서건 나의 인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은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으며, 친구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일 수도 있다. 현존하는 인물이건,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건 간에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길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을 스승으로 만나야만 한다.

인생의 과정에서 훌륭한 스승을 많이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훌륭한 스승을 단 한 분밖에 만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스티븐스 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본원 수석 연구위원
- 「현장교육연구법」, 「사고력 개발」 외



나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일생 동안 깊이 간직할 만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거나 많은 스승을 만났어도 별로 심각한 교훈이나 지혜를 전수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깊이 있고 원숙한 인간성은 깊이 있는 인간적 만남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건대 나는 비교적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많은 훌륭하셨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감화를 받으며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가지 못했다. 만남은 운명이라고 했지만, 운명적 만남을 의미있는 만남으로 만드는 일은 당사자의 몫인 것 같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생각나는 선생님은 여러 분이 계신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나 어느 특정 행위 한 가지가 강력하게 뇌리에 박혀서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에 좌우명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신 분은 계시지 않다. 물론 그 때 그 때의 선생님들의 모습은 커다란 무게와 모습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었었다. 그러나 50을 넘은 지금 현재의 나의 생애 여전히 큰 영향력을 주시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다. 이것은 사실 순전히 나의 책임이다. 나의 선생님들이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칠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이 못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계속 지켜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발생한 잘못된 삶의 원리들이 선생님들의 귀한 가르침을 내 마음의 자리에서 추방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아득한 추억으로만 남아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이 슬프다. 나는 진심으로 선생님들의 말씀이 여전히 생생한 삶의 원리로서 내 행동의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고 남은 일생 동안 선생님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지금은 없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수범'사제가 없다. 그리하여 지금은 새로운 방향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의식의 진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아련한 의식의 심연 속에 계시는 나의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의 선생님 한 분을 모셔 보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궁금하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선생님도 그러한 분 중의 한 분이시다.

학급의 거의 모든 일들이 반장, 부반장,
그리고 분단장들에 의하여 발의, 실천, 처리 되었으나
그 뒤에는 언제나, 특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선생님의 지도와 배려가 있었다.

내가 말하려는 선생님한테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한 학기만을 배웠다. 당시 부산 동신 국민학교에서 3학년 1학기까지를 마치고 여름 방학 중에 서울로 이사온 나는 그 해 8월 말경 서울 효창동, 지금은 김 구 선생님 묘소가 마련되어 있고 인근에 숙명여대가 있는 효창공원 부근의 '효창 국민학교'에 전학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8월 말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한 학기 동안 그 선생님한테서 배웠다.

선생님 이름은 지금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김영중(?) 그 비슷한 이름으로 기억하는 여자 선생님이셨다.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현재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에게 특별히 잘해 주신 것 한 가지도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그 선생님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고, 초등학교 3학년 2학기가 왜 다른 학년에 비하여 지금까지도 의미있게 생각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법의 독특성 때문이었다. 비록 선생님과 나만의 고유하고 은밀한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길래 그러한 만남을 통해 인격적 감화가 있었던 것도 물론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는 나에게 있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나는 3학년 2학기과 같은 시간을 가져 보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기억할 만한 시간을 갖게 된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식이었던 것이다.

사실 그 방법이란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새롭거나 대단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에게서는 대단히 새로운 방법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선생님은 그 때 80명이었던 우리반을 모두 8분단으로 조직하고, 거의 모든 학급 운영을 분단 중심으로 하셨다. 분단에는 분단장과 부분단장이 있었고, 그리하여 학급의 여러 일은 대체로 반장, 부반장, 그리고 8명의 분단장, 이렇게 10명이 중심이 되어 처리되었으며, 이따금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요구될 때에는 부분단장 8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위 학급 간부 10명이 중심이 되어 학급 일을 처리했다.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이라 나는 반장이나 부반장은 커녕 분단장도 못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나는 분단장과 똑같이 이들의 모임에 언제나 참석하고 의사 결정과

정에 항상 참여하였다. 우리 반은 3학년의 다른 반에 비하여, 그리고 전교의 모든 반에 비하여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였다. 청소도, 미화도, 성적도, 운동 경기에서도, 노는 데에도 모두 우수하였는데 그것은 분단의 사기와 단합이 반 전체의 사기와 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탓이라고 생각된다.

그 때 우리는 우리 학습집단이 다른 학습집단에 비하여 우월해야 한다는 상대적 지위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학급 내 학우들의 일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대단히 조숙한 아이들로 길들여져 있었다. 우리는 학급 내 모든 학우들의 생일을 꼼꼼히 챙겼으며, 그리하여 어느 학우이든 학우의 생일이 되면, 각자 조금씩 선물이나 돈을 모아 생일을 맞은 학우의 집에 가서 선물을 전하고 재미나게 놀곤 하였다. 이 때 학급 학우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고 소위 '학급 간부' 10여명이 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덕에 여러 학우들의 집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으며, 나의 생일 잔치도 열 수 있었다. 내가 가난한 것을 안 친구들은 파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우리 집에 와서 파티를 벌였었다. 사실 그 당시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하여 생일 잔치는 꿈도 꾸지 못할 때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친구들이 벌여 준 생일 잔치는 10살까지 살면서 내가 받아 본 최초의 생일 파티였고, 그 후 수십년 동안 나는 나의 생일 파티를 가져 보지 못했었다.

이와 같은 분단 및 분단장 중심의 학습 활동의 배후에는 언제나 선생님의 그림자가 있었다. 학급의 거의 모든 일들이 반장, 부반장, 그리고 분단장들에 의하여 발의, 실천, 처리 되었으나 그 뒤에는 언제나, 특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선생님의 지도와 배려가 있었다. 선생님은 이따금씩 반의 소위 '리더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셔서 저녁도 같이 하며 일종의 '리더쉽 training'도 하셨다. 그런 덕분에 우리는 대단히 수준 높은 소그룹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학우들간의 응집력은 대단하였고, 이와같이 단결된 힘은 우리 학급을 전교에서 제 1의 우수한 학급으로 만드는 데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었다. 효과는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3학년이 끝나고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우리 반 모두는 헤어짐을 너무나 아쉬워하여 오랫동안 서로 손을 맞잡고 울 정도로 학우들간의 우애는 돈독하였다. 그리고 그 시절은 약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나의 뇌리 속에 가장 즐거웠던 학창 시절로 기억되고 있다.

비록 그 이후 그 선생님은 한번도 다시 뵈 수가 없었지만 1955년도 3학년 2학기, 서울 효창국민학교 3학교 4반에서 보낸 그 시간은 내게서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시간이다. 이러한 추억은 나만이 아니라 아마도 그 당시 함께 했던 우리 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비록 선생님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분위기는 지금도 뚜렷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특 사 의 내

본원에서는 교육개발 연구 결과를 교육기관 및
교육 관계자에게 널리 홍보 보급하여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본원 기관지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내용

1) 칼럼 명 : 연구동향

칼럼 성격 : 한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
새로운 연구동향이나 알리고 싶은
연구동향

분 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

2) 칼럼 명 : 멀지만 가야 할 길 (신설)

칼럼 성격 : 현장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밀하게 다루어 보아,
그 개선안을 찾는다.

◆ 기한 : 수시 접수

◆ 제출처 :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운영팀

(Tel : 3460-0233, 0234)

◆ 기타

1) 제출된 원고는 출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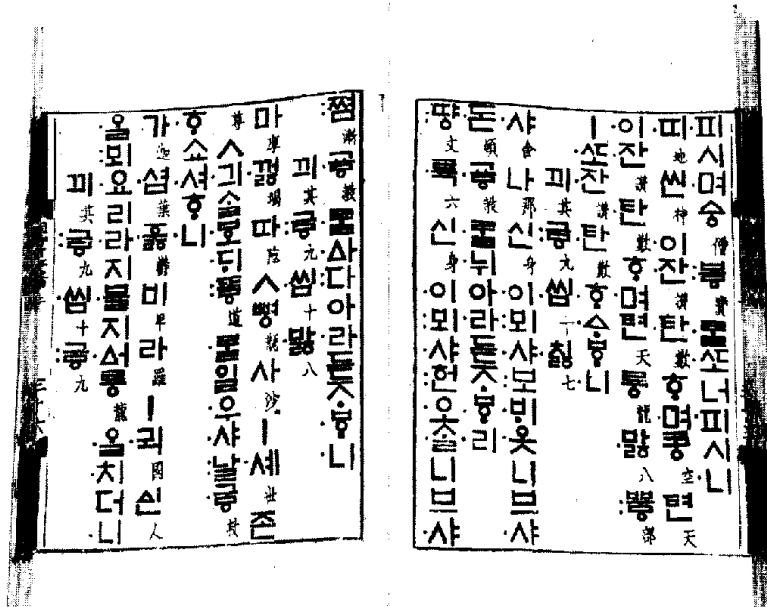
2) 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특별 기획

세종 탄신 600주년과 국어 교육의 방향



- 우리말과 글 바로쓰기/정재도 28
- 국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정준섭 32
-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실시와 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완기 36
- 올바른 국어 교육을 위한 제언/김혜숙 43
- 세계화 시대의 국어 교육/노명완 47
- 국어 교육의 현상과 개선 과제/박영목 51

우리말과 글 바로쓰기

정재도

1. 썩어빠진 마음가짐

통일신라 때부터 우리말이 한자말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나, 열, 온, 즘, 골, 잘, 물’처럼 쓰이던 것이 ‘온’부터 ‘백, 천, 만, 억, 조’로 바뀌어, ‘온’은 ‘온갖’에, ‘즈름’은 옛말로, ‘골’은 ‘골백번’에나 쓰일 뿐, 나머지는 알지도 못한다.

숨이 끊어져 죽는 일에 관한 말도 크게 물들어

죽음 : 기절, 귀천 2, 귀도, 낙명, 명물, 물, 물세, 물신, 불귀, 불기, 불휘, 사, 사거, 사망, 사멸, 사물, 사절, 신고, 실명, 영면, 영세, 운, 운명, 원서, 입물, 잠매, 장명, 장서, 절맥, 절명, 절식, 조물, 조사, 조서 2, 조운, 증명, 증언, 화거.

돌아감 : 기세, 별세, 사세, 상선, 서거, 연세, 작고, 즐, 즐서, 타계, 하세

돌아가심 : 흥거, 흥서, 흥어.

긋김 : 등하, 승하, 예척, 척방.

긋기심 : 봉, 봉어, 봉조, 빈천, 상빈, 선어, 안가, 조락 2.

들이 쓰이고, 그 밖에 달리죽음(변사)에

갑작죽음 : 급사, 돈사, 즐사

개죽음 : 낭사, 도사, 허사

곧죽음 : 속사, 즉사, 직사

등이 70개 이상 쓰이며, 접어죽음에 ‘단서, 단절, 상사……’ 등 22개, 중이 죽으면 ‘귀적, 멸도, 무생……’ 등 13개, 그리고 또 10개는 더 쓰인다.

우리는 ‘조선말’이라고 써 왔다. 중국서는 보통 ‘자오시엔후아



· 광주사범학교 심상과 졸업
· 한글학회 사전편찬위원 취임
·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 취임
· 한말글 연구회 회장
· 「국어의 갈 길」, 「우리말 이야기」,
「지명유래집」, 「한국 신문방송
말글 변천사」 외

(話)'라 하는데, 글말체에서는 더러 자오시엔위(語)'라고도 한다. 일본서는 '조센바나시(話)'라고 하면 '말'이 아니고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조센고(語)'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 학자들은 일본식으로 '조선어'라고 한다.

'역할'이라는 말은 일본서 '야쿠와리'를 한자로 적은 '役割'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허깨비다. '야쿠(구실) 와리(나누기)'는 한자말로 '배역'과 같다. 그것이 번져서 "제가 해야 할 제 앞의 일"이란 뜻으로 쓰이게까지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고, 물건은 물건 구실을 하며, 저마다 제 구실을 한다."고 써 왔다. 만일에 '역할'을 쓰려면 우리 말 만들기(조어법)대로 '할역'(割役)이라고 써야 한다. 그럼에도 온 국민이 '구실'이나 '할 일' 대신 '역할'로 쓰고 있다.

우리는 '처지'라는 말을 만들어 썼다. 그런데 '처지' 대신 '입장'을 쓴다. '입장'은 일본말 '다치바'의 한자 '立場'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허깨비다. 그것을 '처지'의 뜻으로만이 아니라 '견지, 견해, 결심, 관심, 관점, 방침, 상황, 생각, 심정, 위치, 의견, 의사, 자리, 주장, 지위, 체면, 태도, 형편, 희망,……' 등 별의별 뜻으로까지 확대하여 아무 데에나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마구 쓴다.

황국신민화 세뇌기관이어서 치가 떨리는 '국민학교'라는 말을 일본서 없앤 뒤에도 우리만 50년이나 썼다. 우리 국어 사전에 한자말이 50% 이상, 왜말이 20% 이상, 서양말이 5% 이상 들어 있다. 그리하여 "봄에 싹 털옷 값"이라고 하면 털것을 기어이 "춘계에 저렴한 울 의복 가격"이라고 한다. 우리 마음가짐이 썩어빠져 있는 탓이다.

2. 우리 말글 가꾸기

우리말 '곳' 대신 한자말 '처소'를 쓰다가, 이젠

왜말 '장소'를 쓴다. 그리하여 '곳'이란 말은 없어져 간다. 그래서 안 된다. 외래말은 우리말을 없애고까지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말글을 아끼고 말글 규정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① 있는 말을 찾아 써야

벼랑길의 길섶을 일본서 '로카타(路肩)'라고 한다. 고속도로의 길섶만 보고 '갓길'이라고 했다. 벼랑길, 신작로, 고속도로의 길가는 모두 길섶이다.

'세대'라는 왜말을 '가구'라고 했단다. '가구(家口)'는 가족이나 식구라는 뜻이다. 우리만 써 온 '가호(家戶)'라는 말이 걸맞다.

'입구(入口)'라는 한자말은 '음식'이란 뜻이다. 그것을 일본서 '이리쿠치(入口)'라고 바꾸어 쓴다. 그 '입구'라는 왜말 찌꺼기는 우리말로 '어귀'다.

일본말 '시키치(敷地)'를 '부지'라고 하는 왜말 찌꺼기와 걸맞은 우리말은 '터'나 '대지(垜地)'다.

'품삿'이나 '삿돈'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임금(賃金)'이라는 왜말만 쓰고 있다.

② 표준말을 제대로 살려야

'돌'(생일)과 '똥'(주기)은 다른 말이다. 구별을 잘못하면 가르쳐서 바로잡아야지, '똥'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

차레를 나타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두째'를 서울 사투리로 '둘째'라고 한다고 사색스럽게 그것을 표준으로 삼았다. 그리고서 수량을 나타내는 '하나째, 둘째, 셋째, 넷째'와 혼동한다고 차레말을 없앤 것도 잘못이다. 차레말의 '두째'를 그대로 살려야 '열 두째, 스물 두째'와도 어울린다.

'피다(밀을), 피다(아이틀), 썩다(바람을), 썩다(별을)' 들과는 다른 '고이다(곰국이), 꼬이다

(끈이), 쓰이다(벌에게), 쪼이다(닭에게)'들을 겹수 표준말로 허용하는 것은 멀쩡한 우리말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다.

'-장이'는 사람에 관한 말에 쓰고, '-쟁이'는 사람이 아닌 '갈고쟁이, 고쟁이, 끈쟁이, 끌목쟁이, 곱쟁이, 소금쟁이, 소루쟁이……' 들에 썼다. 그것을 기술자와 그 밖의 것으로 구별하여 '-장이'와 '-쟁이'로 가려 쓰지 못하게 해 놓았다.

그러지 말고, '산비장이, 작은멋장이, 큰멋장이'가 식물이니까 '산비쟁이, 작은멋쟁이, 큰멋쟁이'로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멋장'이는 사람, '멋쟁이'는 식물로 구별이 된다.

③ 맞춤법도 일관성이 있어야

'닐리리'를 '닐리리'로 적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에게는 '니'로 적는 버릇이 없었다. <훈몽자회>에도 '儺 닝금 금'이라 했다. 우리 국어 사전들에도 '니나노'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니그로, 니스, 니코틴, 니트' 들도 '뉴'로 적지 않는다.

'개구리, 기러기, 꼬꼬리, 날라리, 매미, 빠꾸기'로 되어 있어, 사전에서도 '씩새기, 노랑찍지기, 따오기, 딱따기, 뜸부기,……' 들로 거의 옳게 적용했는데, 실수하여 일부 '꿀꿀이, 딸딸이, 푹푹이, 짹짹이'로 적었다. 이 실수한 것만 바로 잡으면 깨끗한데,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여 '씩씩이'로까지 적게 해 놓았다. 그렇게 하면 '개굴이, 기럭이, 꼬풀이, 날랄이, 맴이, 빠꾸이, 노랑찍이, 따욱이, 딱따이, 뜸복이,……'들로 적게 되는 혼란을 알고 했던가.

사이시옷은 맥없이 차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낱말을 알아보기에 필요해서 있다.

數字 : 숫자 : 수를 나타내는 글자.

수자 : 몇 글자.

車間 : 차간 : 차의 사람이 타는 칸.

차간 : 차와 차의 사이.

代數 : 덧수 : 세대의 수.

대수 : 수학의 대수학.

의 구별이 있듯이 받칠 경우와 안 받칠 경우가 있는 것이다.

'전셋값'의 '값'을 '가'(價)로 바꾸어 '전셋가' 아닌 '전세가'로 적는다면 '전셋집'(家)이 될 것이다.

④ 띄어쓰기도 합리적이어야

낱말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띄어 쓴 낱말들은 뜻이 확실히 살아 있다. 그것을 익히고 나서, 붙여 쓰는 경우를 연구해야 한다. 낱말을 붙여 쓰면 뜻이 달라진다.

'큰 집'은 작은 집이 아닌 고루거작이다.

'큰집'은 집이 작아도 중가나 형 집이다. 이런 때, 아우 집은 아무리 커도 '작은집'이다.

'찾아 가다'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가지고 가는 따위에 쓰인다. '찾아가다'는 남을 만나러 가는 경우에 쓰인다. 둘 다 '찾아가다'로만 쓰면 잘못이다.

'체하다'는 몰라도 아는 것처럼 꾸미어 말할 때 "저 사람은 체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데 '체하다' 앞에 '아는' 꼴 말이 오면 "아는 체 하다"처럼 띄어 써야 한다. 마치 '일하다'에서 "큰 일하다"로 달라지고, '공부하다'에서 "무슨 공부했니?"로 달라지는 것과 같다.

'아는, 큰, 무슨' 따위 다음에는 '체, 일, 공부' 같은 말이 올 수 있어도, '체하다, 일하다, 공부하다' 같은 꼴 말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⑤ 소리내기도 한결같아야

'의'는 [으]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소리여서 말 가운데서 그 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다고 그것을 '으, 예, 이, 어' 따위 여러 가지로 둔갑시켜 소리내게 해서는 안 된다(어떤 지방에서는 '의사'를 '어사', '의류'를 '어류'라고 하지마는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지 그대로 인정하려고 해서 안 된다. '관광 도시'를 '강간 도시'라고 해도 바로잡지 않고 인정할 것인가).

'依倚의 意義'는 '의의의 의의'가 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소리내기 까다롭다고 '의이'에 어으'로 소리내라고 할 것인가. 그것이 싫으면 '기댐의 뜻'으로 다듬으면 된다.

'家家가 可呵'(집집이 우습다)도 '가가가 가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잔피를 부리면 혼란이 온다.

'6·25'를 [유기오]로 소리내라고 한 것도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소리낸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1. 11'(1월 11일)은 [일리릴]이고, '11. 1'(11월 1일)은 [이릴릴]이다.

'6·25'는 어디까지나 [용니오]가 원칙이다. 이미 '역이용'(逆利用)은 [영니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용-문'을 [등용문]으로 소리내라고 한 것은 애들 장난이다. 그런 문은 우리 국어 사전에도 없다. 문제는 '등-용문'(登龍門)이다. 설마 [등농문]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3. 하면 된다

'핸드커치프'가 일본서 '항카치'로 변한 것을 우리도 개화기에서 일제 때까지 썼다. 그러다가 8·15 후에 슬그머니 '손수건'으로 바뀌어 '항카치'라는 말은 없어졌다.

1960년대 초에 우리 신문들에 '오름세, 내림세'라는 말이 나타났다.

1969년에 서울신문사에서 신문말 다듬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위원회에서 '매점·매석'을 '사재기'로 한 것들이 지금도 쓰인다.

'큰물이 들거나 물높이가 높을 때에만 잠기는

강변의 턱진 땅'이란 뜻의 '고수부지'란 말이 1982년에 나온 민중서림 <국어 대사전>에 올라 있다. 이 왜말은 일본에도 없다. 일본서는 '가와시키'라고 한다. 그것을 지명위원회에서 '한강 시민공원'이라고 했다. 좁은 짓이다. 한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어 심의회에서 '둔치'라고 했다. '둔치'는 호숫가나 바닷가에도 있는 '물가의 언덕'이다. 1992년에 나온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에 내가 '강터'이라고 한 것이 올라 있다. 이 말이 그 해에 나온 북쪽 <조선말 대사전>에도 올라 있다. 그러면 된 것이다.

<국어 대사전>에 '단말기'라는 왜말이 올라 있다. 화가 나서 <우리말 큰사전>에 '끝장치'라고 만들어 넣었다. <조선말 대사전>에는 '말단장치'라고 되어 있다. '단말'은 '끝'이다 '말단'과 같은 말이다.

왜말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으나, 그렇다고 왜말이 다는 아니다.

1990년대 들어 새말이 쏟아져 나왔다.

한 음절 말 : 꿀, 짱, 끼, 덤, 뿔, 틀, ……

두 음절 말 : 꺾기, 떡값, 망살, 모람, 물꼬, 물밀, ……

세 음절 말 : 검은돈, 패심죄, 껌안기, 동아리, 물갈이, 싹쓸이, ……

네 음절 말 : 거듭나기, 군살빼기, 기죽이기, 빗장풀기, 손발척척, 열린마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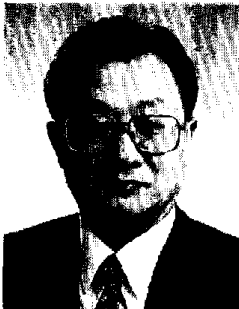
다섯 음절 말 : 나라세우기, 뜨거운 감자, 물래쓰레기, 바르게살기, 아랫물담기, 틈새벌리기, ……

세종 임금의 문맹을 없애고, 우리는 말글을 바르게 쓰는데, 이 새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어 교육의 역사와 현황

정준섭

근대적 의미의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국어 능력을 길러 주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서양식 교육제도가 들어와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방법 등이 새롭게 개발되고부터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역사는 100여 년에 불과하다. 비록 금년이 세종 탄신 600주년이 된다고는 하나, 우리말과 글은 오랜 기간 한자·한문에 의한 문자 생활로 인하여 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만 규방의 아녀자와 천민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전수되었으며, 언문이니 반절이니하여 사대부의 문자로서는 대접받을 수 없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경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중등교육연구부장
-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공저)」 외

그러던 중, 서구의 근대화 물결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근대적인 국어 의식에 따른 국어 운동과 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국어 교육은 국가의 공용어라는 의식에서 설정된 것이며, 국어 교육은 그러한 국가 의식 밑에 실시되는 것이다. 의식적인 국어 교육은 서양의 경우 대개 문예부흥에 이은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시작되었다. 이 근대화의 물결로 서구는 라틴어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이 때에 비로소 자각하게 된 국어 의식에 따라 각국에 국어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의 국어 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에서나 시작되었으니, 선진 서구와 비교해 볼 때 그 역사의 일천함은 면할 길이 없고, 일제 36년과 6·25를 감안한다면 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 또한 순탄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에 의한 문호개방, 18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 1894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 등을 거치는 동안 국어 교육이 구체화되어 갔다. 초기의

국어 교육은 갑오경장 당시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학부야문(學務衙門)의 고시와 홍범십사조(洪範十條) 및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에 직접 근거하여 실시된 것이다. 1895년(고종 32) 7월에 공포된 한성사범학교 규칙에 의하면, 당시 국어 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國文…………講讀
- 習字…………楷行草의 三體 及 教授法
- 漢文…………講讀
- 作文…………日用書類 記事文 及 論說文

1905년 강제로 체결된 이른바 일본과의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이후, 일제는 학부참여관(學部參與官)을 두어 1906년 8월에 학제를 개편했고, 1908년에는 일인 차관이 실권을 쥐었고, 1909년 7월에는 여러 학교령의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국어와 한문을 합쳐 국어 급 한문이라 하고 일어와 대등하게 놓음으로써, 오히려 일어를 중요시하고 제2국어로 교수했으니, 이때부터 이미 독립국은 아닌 셈이었다. 명색만 대한제국이었고, 일본의 식민지와 다름 없었던 당시의 교육은 1910년까지 계속되었다.

1910년 마침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그 뒤로 35년간 말과 글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국어 교육은 조선어 교육이 되고, 일본어 교육이 국어 교육이 되었다. 일제는 1911년 9월에 1차 조선교육령을 내고 국어 급 한문을 조선어 급 한문으로 전락시켰으며, 1922년 2월에는 개정한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령을 부연한 각급 학교의 규칙에 보통학교는 일어를 습득시키는 일을, 고등보통학교는 일어를 숙달시키는 일을 목적으로 했으니, 당시 교육의 목적은 일어를 가르침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또한 조선어 급 한문은 그것을 나누어 조선어를 정규 과목으로 하고 한문

은 수의 과목으로 하였다.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 3월에 개정한 3차 조선교육령을 내고 새로운 교육 방침을 선포했다. 그리고 개정된 교육령에서는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고치고, 그 해 4월부터 못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그 사용조차 금지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이 광복되고, 미군정기의 교수요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지금은 제7차 교육과정을 위한 개정 논의가 한참 무르익고 있다.

교수요목으로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대체로 4단계로 나누어 국어 교육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45~1955의 교수요목기이다. 조국 광복 후 최초의 이 교육과정은 미군정에 의해서 공포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6·25가 끝난 후까지 시행되었다. 교수요목에 나타난 국어과 교육 목표는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 문화 창조, 국민 정신 함양의 세 가지였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교과영역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짓기)'로, 활동 중심의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광복 후 시대적 특수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교육과정은 현실과 유리되어 거의 문서로만 남아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대신에 8·15 광복으로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 우리 민족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되찾아 주고,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문맹을 퇴치하고 표준말을 보급할 수 있는가 하는 국가적 당면 과제의 해결이 국어과 교육에 대한 온국민의 기대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 실질적인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한글(특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보

급과 문맹 퇴치였다.

둘째 단계는 1955~1981의 제 1, 2, 3차 교육과정기이다. 이 시기는 4·19혁명과 5·16,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와 경제적 근대화 양립하였던 때이다. 이 시대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요목 시기에 빛을 보지 못했던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을 강조하고 교과 내용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는 사실이다.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진보주의 교육 사조의 영향과 도구로서의 언어 기능을 내세웠다. 따라서 언어 기능을 '사회 형성의 기능, 인간 형성의 기능, 문화 전달의 기능'과 관련하여 풀이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도 제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언어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즉, 제2차 교육과정은 생활 중심, 경험 중심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를 실천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여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국어과의 교육과정도 널리 사회 생활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3차 교육과정은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언어 생활, 개인 생활, 건실한 국민 육성, 문화 창조의 네 가지 점에서 진술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 진술에도 나타나듯이, 제3차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을 사고 차원으로 올려 강조하고 있으며, 또 국어 교육을 통한 가치관 교육도 병행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지도 사항의 정선·계열화를 꾀하였고, 가치관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제재 선정의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1차,

제2차, 제3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은 생활 교육으로서, 또 기초 교육으로서의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 그 첫째요, 반공과 도덕 교육을 밑바탕으로 하는 인간 형성과 국민적 자질의 함양이라는 가치 교육이 그 둘째였다.

셋째 단계는 1981~1992의 제 4, 5차 교육과정기이다. 10·26사태와 12·12,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전주곡으로 가진 이 시기는 외양으로는 격동과 변화의 시기였으나, 내면으로는 고통과 인내 속에서 민주화로의 성숙을 만들어 낸 시기이다. 6·10항쟁과 6·29선언을 통하여 민주화로의 대장정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도 시대적 변화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 왔으니,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내용 영역을 이제까지와는 달리 언어 기능, 언어 지식, 문학의 3대 영역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 교과의 목표도 이 영역 분류에 따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국어과 교육관은 과거의 국어과 교육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의 국어과 교육이 언어 사용 기능(言語使用技能)의 신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속에서 언어 지식, 문학 등의 내용을 종속적(從屬的)으로 포함시켰던 것을, 이 시대에 와서는 언어 사용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지식, 문학의 세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분하여 교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세 영역이 모두 언어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고, 또 이 세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시기의 국어과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구조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개항이

라 할 것이다.

① 국어과 교육을 통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② 국어과 교육을 통하여,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힌다.

③ 국어과 교육을 통하여, 문학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중심으로 문학(문예)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위 3개항을 국어과 교육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제1항(언어 기능)은 이른바 국어과의 '도구 교과(道具教科)'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제2항(언어·국어의 이해)과 제3항(문학의 이해)은 국어과 교육의 고유 영역이라는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빛째 단계는 1992년 이후의 시기가 되겠다. 1992년의 대통령 선거는 이 땅의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었던 정통성 시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일대 변혁을 가능케 하였다. 이 시기 우리 민족이 당면한 새로운 문화적 과제는 모든 방면에서의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민족 문화를 건설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성장해 가느냐의 문제다. 서구 문화의 수용과 전통적 가치관의 정립, 교육, 학술, 종교, 문예 등 각 방면을 통한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의 확립, 이를 통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성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대의 시작은 제6차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제6차 교육과정은 지금까지의 경직된 대량 획일 교육인 '산업 모델'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 모델'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모델 교육은 '소품종 다

량 생산 체제'가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다품종 변량 생산 체제'와 같이 교육 소비자의 다양성과 개별성, 인간성이 존중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개정된 국어과 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국어과는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가지게 하며,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다. 또한, 국어과는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고, 올바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교과이다. 고등학교 국어과는 중학교 국어과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 언어와 국어에 관한 지식, 문학에 관한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교과이다. 이를 실현함에 있어, 국어과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강조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라는 시대적 요구를 고려하여, 공통 필수 과목으로 국어를, 과정별 필수 선택 과목 또는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을 설정한다(교육부, 1992).

이제 한창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 개혁의 구현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와 국어교육 강화의 필요성

이 완 기

1. 들어가며

1997년부터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면, 2000년에는 우리 나라 3~6학년 초등학생들은 전부 영어를 배우게 된다. 이것은 많은 생각 거리를 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도 제대로 못하면서 초등학교에서 까지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초등영어교육에 투자할 재원을 중등영어교육의 개선에 투입한다면, 초등영어교육을 실시할 필요 없이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국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초등학교 시기에 영어를 가르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쓸데없이 혼란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영어 과외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만연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까? 국어교육이 경시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을까? 또 어린이들이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문화 시대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같이 우리 후손의 장래,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우려와 걱정의 표현 들일 것이다.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졸업 (영어교육학 박사)
-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부교수
- 「초등영어교육론」, 「영어과 평가론(편)」 외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끌게 된 문제 중의 하나는 국어교육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혹은 국어교육이 약화되거나 경시되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

어를 소중히 여기게 한다.”는 것이 국어과의 교육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영어교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이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의 초등교육을 아끼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고된 연구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필자도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초등영어교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쓰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2.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어습득장치’(LAD), ‘결정적 시기’, ‘두뇌의 기능 분화’, 혹은 정서적 요인 등의 이론적 가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가 어른보다 외국어를 쉽게 배운다는 경험적 관찰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우리 나라에서 중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영어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더 빨리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신봉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사실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외국어는 어느 나이에거나 배울 수 있다.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워야 할 이유는 어린이의 발달 측면에서보다는 사회의 변화 발달 측면에서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1) 영어를 모르면 불편하다.

워싱턴 대학의 시드니 칼버트 교수의 통계를 보면, 영어를 모국어나 제 2언어로 쓰는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0%도 안 된다. 영어를 제 2언어로 까지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1958년에 9.8%, 1992년엔 7.6%로 떨어졌다 (헌팅턴 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세계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제 2언어와 외국어는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 이완기, 1996 참조) 오늘날 영어는 이미 영국, 미국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국제간의 업무나 외교, 국제기구, 여행, 항공 등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세계 공용어가 되어 왔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나 지식을 영어를 알면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세계 라디오 방송의 60%, 전세계 우편물의 70%, 전세계 전화 통화의 약 85%, 전세계 7억개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정보의 약 80%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한다 (Naisbitt, 1993). Kaplan & Ostler(1982)는 세계 정보의 약 85%가 영어로 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영어가 세계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미 영어로 모든 것이 되어 있고, 또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범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하지만, 추측컨대, 영어가 세계어라는 위상이 만고불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등이 히랍어, 라틴어, 아랍어 등의 세계어를 만들어 내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언어들을 세계어라고 하지 않는다. 영원한 제국이 없었듯이 영원한 세계어도 없다. 오늘날은 영어가 세계어가 되어 있지만, 세월이 가면 그것이 어느 것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어를 세계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2) 영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변화 속도는 예측을 초월한다. 그 방향도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컴퓨터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과, 영어를 모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을 맺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생존의 필수 요건인 의식주의 해결을 급선무로 삼았지만, 이제는 삶의 질 추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영어교육의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된 근원적인 이유도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영어교육을 통하여 더 높이자는 것이다. 21세기의 사회에서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특정의 전문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삶의 질에 관한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요즘은 해외 여행이 매우 쉬워졌고 일반화되어서 1996년 한해에만 400여만 명의 한국 사람이 해외 여행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하고 싶어도 자신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을 자신이 알아서 가고, 또 가서는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며, 관광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과, 인솔자가 반드시 있어서 인솔자가 깃발을 들고 가는 대로 따라 다니고, 그 밖의 여행에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전자는 자신의 삶을 알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누가 더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전자이다. 또 요즘은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컴퓨터를 쓰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 이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항상 남의 힘을 빌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자가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영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아니,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 있다. 이 세상엔 여러 가지의 외국어(수단/도구)가 있지만, 영어는 그 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그래서 더욱 효과적인 도구이다. 영어를 배움으로 해서 우리의 것을 버리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영어는 우리의 말과 문화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의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다.

3) 중등영어교육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1997년도에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된 때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세계화 추진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의 교육 변혁기에, 조기교육의 한 갈래로 외국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초등학교에서 특별활동의 형태로 영어를 부분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초기의 특별활동 형태로 운영될 때에는 초등영어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 이상은 아니었고, 그 이상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나라가 열리고 사회가 열리고, 여러 나라간에 물적, 인적 교류와 왕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88년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 휘몰아친 변화의 모습을 잠깐만 돌이켜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2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의 성립과 더불어 우리는 국가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영역인 영어교육에 일대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법과 독해 중심의 교육으로 굳어져 있는 중등학교의 영어교육을 듣기·말하기 중심의 교육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그러나 문법과 독해 중심 교육의 오랜 관행에 젖어 있던 중등학교 영어교육을 표가 나게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과 엄청난 재정 투자를 요하는 일이다.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지도나 압력과 더불어,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내부적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중등학교 이전의 단계에서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듣고 말하는 것 중심으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내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 중등학교의 영어교육은 비로소 실제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중등학교 영어교육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사교육, 자료개발 등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사회가 변해 나갈 방향과 그 속도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좀 무리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고, 교과서도 새로 제작했으며, 교사교육과 연수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이미 시작된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도를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때이다.

3. 국어교육 강화의 필요성

1) 영어를 잘 배우면 문화 사대주의에 물들지 않는다.

여러 가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문화 사대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혹은 국어교육이 허약해질 우려가 있다, 국적 없는 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염려를 하면서 반대하기도 한다.

문화란 언어, 종교, 전통, 관습, 사회 가치, 인간의 행동, 지식, 물질적 소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화란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의 구체적 표현이고 생활의 구체적 모습이다. 외국 문화의 면면들은 항상 접하는 자신의 것과는 일단 다르기 때문에 뭔가 신기하고, 더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화 사대주의란 외국의 문화에 심정적으로 종속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영미 문화는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소위 선진국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것은 무시하고 구태의연하고 촌스럽다고 업신여기는 마음의 자세, 즉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를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서 만약 이와 같은 문화 사대주의가 일반화되고,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문화 사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실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문화 속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은 남의 문화에 쉽게 종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선 초밥이나 우동을 자주 먹는다고 일본 사람이

● 우리는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면서, 영어도 잘하는' 한국인을 원하지, 영어만 잘하는 한국인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이 영어교육에 임하거나 어린이 영어교육에 관여해서도 안 될 것이다.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햄버거나 피자를 먹고 청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 사람이 김치나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남의 영향권 하에 종속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나 의식주 등의 문제가 남에게 결정적으로 달려 있을 때이다. 이럴 때에는 정신적으로 종속되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식주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미 제국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물질적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가 한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써 오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 왔지만, 우리 문화가 중국 문화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중국의 문화와는 다른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지켜 오고 있다. 5000년 우리 문화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만큼 그렇게 허약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가르치면 영미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어를 잘 해야 영어도 잘 할 수 있다.

자신의 모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결코 외국어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자 진실이다. 외국어를 잘해야 국어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 '한(根)'이란 것이 있다. 이 말에 대응하는 영어 어휘를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적절

한 대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 밖의 많은 것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한국어말과 영어가 '한(根)'의 경우처럼 모두 그 대응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미상으로 완전히 다르다면, 아마 한국 사람이 영어를 지금처럼이라도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과 영미 사람간에 정서나 가치, 의미의 이해 등의 많은 부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번역이란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한국어와 영어에는 많은 것이 서로 상통하고 있고, 국어를 배울 때 가지게 되었던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식·경험 등은 영어를 배우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배운 지식(스키마)을 활용하지 않고 외국어를 배우는 경우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모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 할 수 있는 바탕과 기초가 마련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영어를 제 2언어나 모국어로 배우지 않고, 단지 외국어로서만 배우는 처지에서는, 국어의 올바른 사용 능력과 국어의 언어적 감각이 영어를 배우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국어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이유로도 작용한다.

3) 영어교육은 국어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영어교육이 국어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이 오히려 모국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도(이옥로 1983, 박형기 1991 등), 외국어 교육과 국어 교

육간의 상호 간섭으로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외국어를 접해 보지 않고 우리말만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말 자체에 대해서 외국어를 공부해 본 사람보다 더 잘 모를 수도 있다. 우리말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말의 모습을 밖에서 바라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집이 서울이세요?”

“예, 서울입니다.”

“김 선생님은요?”

“저도 서울입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이다. 이 대화가 한국어 어법으로 볼 때 틀렸거나 어색하다고 느끼는 한국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를 배운 한국 사람은 이 대화를 왜 이렇게 표현할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와 같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화 표현에서 문제가 되는 “집이 서울이세요?”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뜻이 통할까? ‘집 = 서울’이란 뜻인가? “저도 서울입니다.”는 또 어떤가?

위의 대화는 의미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 사세요?”

“예, 서울에 삽니다.”

“김 선생님은요?” (김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저도 서울에 삽니다.”

이것을 영어로 옮겨 보자.

“Do you live in Seoul?”

“Yes, I do.”

“How about you, Mr. Kim?”

“Me too.”

영어공부를 공부한 많은 사람들은 이 대화가 의미의 명료성이나 표현의 자연스러움 문제를 떠나서, 표현 양식이 논리적으로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영어)를 접해 보지 않

은 사람은 이런 우리말의 표현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 의사소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말의 바람직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또 우리말 속에 외래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어를 배우면 우리말과 외래어의 분별력이 길러져서 국어 순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우리말을 보다 바르게 쓰고, 정확하게 쓰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4) 국어교육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실시되면, 국어교육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진 사람이 많다. 이런 일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말, 우리글은 우리가 갖고 닦아서 발전시켜야지 어느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초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의 국어 수업 시간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158.5시간으로 미국(306시간), 프랑스(288시간), 일본(236시간) 등(한국교육개발원 1995) 다른 선진국에 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국어 수업 시간의 비중이 매우 낮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은 우리말을 바르게 배우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을 기르는 데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우리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다른 과목의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국어 수업의 시간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교육 과정상으로 초

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학년에서의 국어교육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국어교육 강화는 수업 시간의 절대 수를 늘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업 시간 수의 조정을 포함해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바른 자세와 효과적인 모국어 교육 기술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초등학교 교육의 거의 전부는 우리말을 바르게 배우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시기이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에서 제시한 이유들 때문에 외국어인 영어도 가르치게 되었다. 이것은 대국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실시를 반대하거나 막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장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교육은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의 국어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어교육도 살고 영어교육도 살 수 있다.

4. 맺는 글

이 글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관점을 피력하였고, 또 그 관점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국어교육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요즘 TV 등 매체의 영향으로 우리 학생들의 사고나 행동 양식이 매우 서구화되고 있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 영어를 모르고는 (미래) 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세계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의식을 제

고하며, 전통 문화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더 커졌다. 또 한편으로는 세계 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적 균형감각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영어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견지해야 할 입장은,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든,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시든, 청바지를 입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이고, 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잃고 서구 문화에 대한 맹목적 사대주의에 빠지거나, 우리의 국어교육이 약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우리말을 하면서 영어 단어를 마구 섞어서 쓰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확실한 방향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면서, 영어도 잘하는' 한국인을 원하지, 영어만 잘하는 한국인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이 영어교육에 임하거나 어린이 영어교육에 관여해서도 안 될 것이다. ☹

올바른 국어 교육을 위한 제언

김 혜 숙

I. 들어가며

언어란 근원적으로 인간의 사회생활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언어의 기능이나 요소가 사회생활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형성된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국어를 통해서만 경험을 해석하고 사고를 형성하며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국어는 단순히 현상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유도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 작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우리의 국어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룩된 겨레의 정신이며 우리의 얼을 담은 역사의 꽃이다. 이렇게 소중한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중요도를 인식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묵인한다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지적하고, 갈고 닦아 빛내 줄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말·우리글을 발전시키는 책임감을 갖고 솔선하여 실천하는 개개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어에 대한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 등 그 어디에서나 두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교육으로 행해지는 의도적인 국어과 교육이 바탕이 되어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더욱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곧, 국어 교육이 국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라면, 국어과 교육은 학교 교육을 통해 언어 기능 및 지식, 국어의 바른 사용, 그리고 문학에 관한 기초적 이해와 기능을 학생들에게 의도적·계획적으로 길러 주는 것으로서,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



-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국어학 박사)
-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현대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언어와 삶」 외

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창조 능력에 불을 당기고자 하는 교과이다.

이에, 바른 국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규칙과 원리를 익히고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국어과 교육의 확인·실천이 요구된다. 그와 병행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무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일체의 교육 활동으로서 '겨레말'을 강화·권장하고 국어를 순화해야 한다.

II. 국어과 교육의 특성과 방향

국어과는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현재, 제6차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사회와 개인의 삶에 적합성을 가진 교육 과정 추구'에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창의적·도덕적인 사람이며, 도출된 교육 과정의 구성 방향은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는 교육,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을 배양하는 교육,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학습자의 경험 세계가 증시되는 교육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곧, 국어과 교육 과정은 이념적 지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어 교과와 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일관된 축으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어과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에 대한 지식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구체적인 언어 현상에 대한 규칙을 창출하는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곧, 학습자에게 창조적 능력이라는 동기를 형성하

여 줌으로써 국어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현상에서 규칙과 원리를 발견하는 탐구 능력을 기르며, 나아가 정서적 요소와 민족적 정기를 불러일으켜 줌으로써 국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태도를 기를 때, 국어 교육의 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교육이 행해지려면 교육 과정이 잘 짜여지고, 교재가 완벽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학습 보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지고, 능력 있는 교사가 착실히 가르치며, 학생들은 최선을 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런데 국어 과목에는 문자 정책과 입시 방법이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 아래 좋은 목표를 세웠어도 이들 정책적인 문제가 바르게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제 6차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도출된 교육과정들은 그 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어려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II. 우리말의 '얼'을 살리는 교육

국어 교육의 근본적 사명은 이루어내는 힘(energia)을 가진 '말'의 교육에 의하여 인간 형성에 깊숙히 관여하고, 민족 문화 형성에 본질적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민족의 얼을 지키고 키우는 데 근본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민족은 혈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결국 민족의 징표는 언어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름뭍이 바로 우리의 국어인 것이다. 인간은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인 사고 체계를 함께 습득하게 되며, 그 사고가 유도하는 일정한 행동 양식까지도 함께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기에서 소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집단이 형성되며, 그 민족 고유의 생활 감정과 깊은 사상, 아름다운

이렇게 언어는 인간의 외부적인 이해의 세계를 구성하고 내면적인 정신의 세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실체를 창조한다. 이에 국어 교육이 모든 교육의 중심이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서 등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한국 민족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모국어에 배어 있는 민족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그 정신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 즉 '문화의 씨'인 말을 바르게 세움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바로 서게 하고 우리의 사고를 바르게 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문화단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겨레말이란 어찌 보면 신비스럽기까지한 존재여서, 우리의 겨레말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는 자연히 '우리'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끼리의 상호 확인과 우리 아닌 사람을 구별시켜 주는 겨레말을 풍요롭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올바른 민족관과 투철한 주체성의 함양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사회가 창조한 문화는 그 민족이나 사회가 소유한 언어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그 까닭은 언어 자체가 그 민족의 전통이나 환경에 의하여 창조된 역사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국어 교육은 우리 한국어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남다른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바이스겔바(Weisgerber)는 말과 그 언어의 공동체가 가지는 얼과의 만남에 대해 '언어 습득은 그 언어 속에 실현되어 있는 언어 공동체의 세계상에 알맞게 자신의 의식을 주조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인간이 말을 갖는다는 것은 그 속에 살아 있는 얼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동참으로 인해 그의 역사적 존재가 형성됨을 암시해 준 바 있다.

이렇게 말의 힘은 사람의 생각을 함께 이끌어

간다. 훔볼트(Humboldt)는 "우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본다면, 각 언어에는 각 나라의 전통적인 세계상이 있으며 그 세계상은 우리의 감성적인 자각과 감정적인 표현, 정서적인 느낌과 이성적인 사유를 인도하게 된다. 곧, 얼이 깃든 언어는 문화를 창조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전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IV. 우리말 다듬기

국어의 순화(純化, 醇化)란 우리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여 올바른 국어, 아름다운 국어를 쓰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국어의 순화는 누가 할 것인가? 물론 국어 교육자나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선봉에 나서서 어느 정도 힘을 기울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협력·실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달성코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우리 말을 다듬는 일이 필요한 것일까?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수 없는 유동(有動)의 세계이다. 그런 '현실'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말이란 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람됨을 창조하는 필연적인 보충 관계를 감지한다면, 우리가 쉽게 버리고 흘리는 빈말들은 우리의 현실을 바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어를 순화함으로써 우리의 인간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밀접하게 되어 협동과 이해의 사회가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심정과 인격을

도야하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곱고 바르고 정확한 말을 구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말을 다듬는 일은 사회적 혼란을 바로 잡고 우리 겨레말에 섞여 있는 외래어·속어·비어 등의 잡티를 제거하며 정확한 발음과 맞춤법에 맞는 표준어를 구사하며, 가능한 한 명랑하고 좋은 말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다. 말이 씨가 되어 그것이 현실로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고운말 쓰기·우리말 다듬기 등의 궁극적 목표는 알맹이 있는 말들을 정확하고 책임있게 사용하여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지덕(知德)이 계발(啓發)된 훌륭한 사람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는 인간의 외부적인 이해의 세계를 구성하고 내면적인 정신의 세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실체를 창조한다. 이에 국어 교육이 모든 교육의 중심이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V. 맺으며

국어 교육은 국어의 사회 형성의 기능, 개인 형성의 기능, 문화 획득·창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옛사람들은 교육의 목표를 사립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두었으며, 지금도 어느 나라나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민족 주체 의식과 고유 정신을 심어 주는 것을 교육의 근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실용적이고 정신적 도야의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의 방법은 그 나라의 말과 글을 잘 가르쳐서 겨레의 자주 정신을 굳건히 심어 창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공기나 물이나 토양이 그렇듯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개개의 사람들이 매 순간 사용하는 언어가 곧 그 공동체 전체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의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바른 언어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 환경이 인간의 육체적·물리적 생명을 지켜준다면, 언어 환경은 정신적 생명을 지켜주는 밑거름이다. 언어 환경을 바른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정신 자세와 먼 앞날을 바라보는 원시적(遠視的) 안목으로 우리말과 우리글을 귀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또한 바르고 고운 말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사회·학교가 삼위일체가 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높은 언어 문화권을 조성하고 새로운 민족 언어 문화를 창조하는 역군(役軍)을 양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어 교육과 민족 주체성 교육의 바른 길이라 하겠다. ㉞

세계화 시대의 국어 교육

노 명 완

1. 인간, 사회, 그리고 교육

교육은 인간의 본성과 필연의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의 대상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육은 사회와도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바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문제는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 중심의 사회, 국제화 사회, 인간화 사회, 가치의 다양화 및 다원화 사회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현대 사회에 대한 이같은 여러 가지의 특징적 명명은 크게 두 가지로 종합될 수 있다. 하나는 지식 및 정보 중심의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인간) 중심 사회이다.

현대 사회가 '지식 및 정보 중심의 사회'라는 점은 부(富)에 대한 인식의 변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경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에서 부는 곧 땅의 크기로 이해되었다. 그러다가 산업 사회에서는 공장이 부의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보존, 관리,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지식과 정보의 창조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고급 지식, 고급 정보를 만들어 내는 지력(知力: 지식을 다루고 생산해 내는 능력)은 부를 만들어 내는 가장 강력한 원천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라는 것도 사회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즈음 가정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 박사)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국어과 교육론」 외

에서는 할아버지의 의견 못지 않게 손자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 중심의 학습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상품 생산도 예전의 획일적인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 생산자나 디자이너의 이름을 걸고 소비자 개인을 찾아가는 고급 수준의 소량 개별 생산, 주문 생산으로 바뀌고 있다.

지식·정보의 창조와 활용, 그리고 개개 인간의 존중은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두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 국어 교육의 개념과 지식, 정보 그리고 인간 존중

국어 교과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과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은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그 나름의 교과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어 교과는 또한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교육 속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 교육은 다른 교과 교육과 공통되는 교육적 보편성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어 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과적 고유성과 교육적 보편성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학자들이 탐구하여 낸 국어학 지식, 그리고 국문학자들이 탐구하여 낸 국문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국어 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이런 이해는 다분히 지식 중심, 학문 중심에서의 이해이다. 그리고 이런 문법 및 문학 이론 중심의 지식 교육을 국어 교육의 교과적 고유성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국어 교육의 개념 속에 국어학이나 국문학 지식 교육이 포함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다. 그러나 이런 지식 중심의 국어교육관에서는 국어(언어)가 갖고 있는 의사 소통의 기능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국어를 포함해서 모든 언어는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일상 생활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의사 소통의 도구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언어 교육에서는 언어에 대한 학자들의 탐구 결과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일보다는 생활 속에서 언어를 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사용 기능을 먼저 지도하여야 한다.

언어를 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기능의 교육은 언어를 의미로 이해하고 의미를 언어로 표현하는 정보 처리의 지적 과정에 대한 교육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어 교육은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루는 인간 접촉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국어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교육의 두 지표, 즉 지식과 정보를 창조적으로 다루는 지력(知力)의 교육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의(情意)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정보화·인간화 시대의 국어 교육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어 교육의 지도 핵심은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하는 표현 이해의 언어 활동에 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 활동은 비언어적인 의미(지식, 정보, 생각, 느낌, 앎 등)를 말과 글 형태의 언어로, 그리고 말과 글 형태의 언어를 비언어적인 의미로 변형하여 처리하는 지적 창조 과정이다. 그러면서 또한 인간의 언어 활동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간 접촉의 사회적 관계이다. 바로 이런 '정보 처리'와 '인간 접촉'이 국어 교육의 새 개

념이며,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국어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지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국어 교육의 새 개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언어 활동은 곧 창조적 활동이다.

인간의 지적 활동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은 바로 언어 활동이다. 예를 들면, 말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화제의 주제나 소재를 찾는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찾는다. 말할 때에 하는 이런 지적 작용이 '내용 창조' 활동이다.

일단 화제의 내용을 만들어 낸 후에, 화자는 그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단어들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엮어 문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뒤에 이어질 다음 문장들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문단을 구성하고 온전한 텍스트인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작용은 모두 언어적 '표현 창조' 활동이다.

이해 과정인 듣기 과정도 모두 창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자가 듣는 것은 언어도, 의미도 아닌 음파로 된 말소리이다. 청자는 이 말소리를 단어로 바꾸고, 일련의 단어들을 엮어 문장을 만들고, 또 일련의 문장들을 이어 텍스트 수준의 말을 만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자는 하나의 온전한 지식 덩어리인 텍스트를 만들어 낸다.

(2) 언어 활동은 곧 교수·학습 활동이다.

국어 교육에서 핵심으로 삼는 언어 활동,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모두 교수-학습 활동이다. 이런 점을 우리는 여러 교과서의 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상의 예를 살펴보자. 역사 교사가 수업에서 역사 내

용을 말로 설명한다. 이 설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지식 창조 활동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업에서는 하나의 교수 활동이 된다. 그리고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은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 내용을 이해한다. 학생의 이런 활동은 역시 하나의 지적 창조 활동이 되면서 동시에 학습 활동이 된다.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하는 '공부'라고 하는 학습 활동도 모두 언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과학 교과서를 읽는다고 하자. 이 공부 활동은 모두 언어 활동(구체적으로는 읽기 활동)이며, 이 언어 활동을 통해 학습이라는 지적 작용이 일어난다. 학생이 교과서 내용에 밑줄을 긋는 것도, 그 내용을 노트에 요약 정리하는 것도 모두 언어 활동이며 동시에 학습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언어 활동은 곧 학습 활동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의 효과는 언어 활동의 효과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책을 잘 읽는가 못 읽는가 하는 읽기 활동의 효율성에 따라 과학 공부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읽기를 통해 교과서의 학습을 설명하는 것이 학습 독서(content area reading)이다.

(3) 언어 활동은 곧 사회 활동이다.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접촉을 통해 '일'을 해 나간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모여 하는 회의도 접촉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이고, 상인과 고객이 만나 물건을 팔고 사는 것도 접촉을 통한 일하기이다.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한 일하기'로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한 일하기는 대부분 말과 글이라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렇게 본다면, 언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회적 접촉의 수단이 되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활동은 사회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 활동은 곧 사회 활동이 된다.

언어 활동이 사회 활동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언어 활동의 성공 또는 실패는 곧 사회 활동의 성공 또는 실패가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일을 처리하는데, 이 때의 일처리의 성패 여부는 상당한 정도로 그들이 어떻게 말을 주고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사회에서 성공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표현과 이해의 언어 활동을 통한 사회 활동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언어 활동은 인간적 만남의 활동이다.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인지(認知)와 정의(情意)는 모두 중요한 교육의 대상이 된다. 그 중에서 정의는 미술, 음악, 무용과 같은 예술 교과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술 교과는 그 교과가 갖고 있는 정보 소통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교육적 애로를 겪고 있다.

우리는 미술이 사람의 정서를 잘 표현해 준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술 표현의 수단인 선이나 색채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미흡하다. 어느 미술가나 조각가도 회화나 조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작품을 완성하고 난 후 거의 언제나 뭔가 표현의 미흡함에 불만을 갖는다. 표현이 이리할진대, 하물며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이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및 이해의 불완전성은 동작을 수단으로 하는 무용, 그리고 소리를 수단으로 하는 음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하여 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은 훨씬 수월하게 인간의 생각과 느낌, 정서를 정교하게 표현하고 이해시킨다. 이는 언어가 갖고 있는 표현의 정교성과 위계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비가 내리는 모습을 여러 가지 의성어, 의태어를 동원하여 매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비-여름비-소나기/여우비' 등과 같이 위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정교함과 위계성은 언어가 아닌 선, 색채, 소리 등으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언어가 인간 정서 전달에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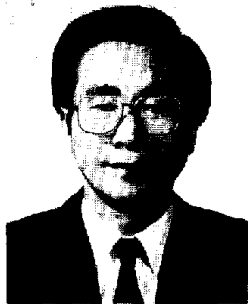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국어 교육은 국어학이나 국문학의 지식을 다루는 교과 교육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렇게 본다면 국어 교육은 수학, 과학 교과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지식 영역을 담당하는 교과 교육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어 교육을 문법 및 문학의 지식 뿐만 아니라 표현·이해의 언어 기능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표현·이해 교육을 그 핵심으로 본다면, 국어 교과는 매우 창조적인 지력의 교육, 학습 수단의 교육, 사회 생활의 교육, 그리고 삶과 정서를 높여주는 인간 교육의 교과가 된다. 바로 이런 점이 국어 교과의 본질적 특성이며, 지식·정보 중심과 인간 존중의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국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한다. ●

국어 교육의 현상과 개선 과제

박 영 목

1. 훈민정음 창제의 교육적 의미

올해는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이전까지 이땅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문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자유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맹(文盲)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한자를 이용하여 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각고의 노력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졸업
 (철학 박사)
 ·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어교육학 원론」, 「국어 이해론」 외

훈민정음, 즉 한글의 창제로 인하여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문어적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당대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문자를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글이 쉽게 배워서 깨칠 수 있는 문자라는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의 서문에서 밝힌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한글은 말소리의 단위와 문자의 단위가 거의 일대일로 대응되는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말소리를 그대로 문자로 전환하기가 쉽다. 또한, 한글 자모의 수효도 28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한글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한글을 터득한 사람들은 누구나 의사소통을 할 때 비교적 제약을 덜 받으면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말의 구조와 글의 구조가 다를 경우에 언

어 사용자는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말과 글의 구조가 일치하는 경우보다 훨씬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폭과 깊이 에 있어서도 심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우리말과 직결되는 우리글을 갖게 됨으로써 당대의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말에 투영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정서적 향기를 더욱 세련되게 가다듬고 더욱 풍요롭게 꽃피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말에 투영되어 있는 이러한 정신과 정서는 한글 문장으로의 표현과 이해를 통하여 더욱 정교화된다.

조선 시대 후기까지는 한글에 의한 문어적 의사소통 양식이 비록 양반 사회의 정통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평민 사회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고도 소중한 의사소통 양식으로 자리잡아왔다. 개화기 이후에는 한글 텍스트가 언문일치 운동과 더불어 우리 언어 공동체의 주도적인 텍스트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 텍스트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한글 텍스트가 우리 언어 공동체의 정통적인 것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종대왕 탄신 60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의사소통 기능의 신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현상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탐색해 보는 일은 훈민정음 창제의 민족사적 의의를 반추하는 일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 교육의 현상

초등학교 국어 교과는 학생들에게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육에서는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하는 일, 국어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일,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는 일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중학교 국어 교과는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국어 교육에서는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 신장의 기저가 되는 언어 사용의 원리와 절차에 관한 지식을 학습시키고, 실제적인 표현 및 이해 학습 활동을 통하여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있다. 또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는 중학교 국어 교육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 언어와 국어에 관한 지식, 문학에 관한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국어 교과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국어 교과의 도구교과적 성격을 강조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 추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통 필수 과목으로서 국어 과목을 설정하고, 국어 과목의 심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별 필수 과목으로서 화법 과목, 독서 과목, 작문 과목, 문법 과목, 문학 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위에서 정리해 본 국어 교육 현상은 국어과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 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의거

해 교과서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편찬한 이후, 초등학교 현장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이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언어 사용 기능의 효과적인 신장을 위한 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실제 수업은 과정 중심,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지 못하고 결과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에 직결되는 언어사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의 국어 교육은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국어과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을 교원 양성 기관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고등학교 현장의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은 현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하위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의 과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원 양성 기관인 국어교육과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국어학과 국문학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화법, 독서, 작문 등의 과목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국어 교과를 통하여 길러 주고자 하는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 능력임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전제로 하는 고등 사고 능력이다. 학교 현장의 국어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국어 교사가 표현 이론과 이해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론의 바탕 위에서 학생들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3. 국어 교육의 개선 과제

국어 교육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어과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국어 교과서가 개편된다고 할지라도 학교 현장에서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교사가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실천하지 못한다면 국어 교육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먼저 국어 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 교육의 개선 과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학습자 중심으로 국어과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성장 발달의 유형을 이해해야 하고, 언어사용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취 목표 및 수준을 이해해야 하고, 학생들의 학습 유형 및 언어사용 유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어 교과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어 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 이론과 작문 이론을 이해함과 아울러 그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해야 하고, 언어의 구조와 사용, 변화 등에 관한 이론을 이해함과 아울러 그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해야 하고, 구어 텍스트와 문어 텍스트의 관습 및 규칙을 이해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작문과 독해를 위한 전략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어 교육의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학습 지도를 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

추어야 할 것이다. 국어과 수업을 일관성 있는 원리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즉 점진적 책임 이양, 자율적 학습의 조장, 실제적 성장과 잠재적 성장 등을 이해하고, 작문 능력 및 독서 능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국어과 수업 전략과 효과적인 학습 운영 방법 및 수업 운영 방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언어사용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학습 지도의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와 다른 교과 사이의 관련성은 물론 국어 교과와 다른 교과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수업전략을 이해해야 하고, 국어 교과의 영역별 학습 지도 과정에서 주요 문제, 주제, 개념, 장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학습 지도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문화 집단과 연관된 학습의 유형과 언어사용의 유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언어사용 방식의 다양성, 언어사용 맥락의 다양성 등을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언어의 이해 방식과 사용 방식에 대한 문화적 관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 전략 및 작문 전략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 교육과 관련되는 전문 조직 및 자원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동료 교사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 지도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어 교육 전문가 집단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국어 교사의 전문성 문제는 국어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국어 교육의 질은 국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으며, 국어 교사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 현장으로 진출할 국어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어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이 국어과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국어 교육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유대와 민족의 정신을 살찌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다. 교사의 전문성 문제 외에 국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또 한 가지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는 국어교육학 연구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국어교육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는 다양한 국어 교육 이론이 개발될 때, 국어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현장의 국어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사의 체벌

폭력인가, 사랑의 매인가?



이원적 흑백논리는 지양해야

서희식 (당산중학교 교사)

세계 체벌에 대한 유형을 조사·구분하여 보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악이 숨어 있다는 성악설에 입각하여 악을 몰아내고 악을 교정하기 위해서 회초리에 의한 체벌을 허용하던 국가와 인간주의 교육관과 인권사상의 고양, 루소의 성선사상 등에 의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체벌 반대운동을 추진해 온 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학교에 가는 일'과 '회초리로 때 맞는 일'은 동의어라고도 일컬어 졌듯이 어느 세계,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젊은이를 단련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체벌금지 국가에서는 학교의 체벌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가정에서의 체벌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관습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체벌문제가 비화되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체벌이 사회 문제로 거론된 것은 80년대 초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체벌 중 사고로 인한 교사와 부모의 사법적 소송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학생에게 체벌을 행한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심한 경우에는 교직을 떠

나에게까지 하는 일이 있는 후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금지의 일환으로 팔목길이 이하의 작은 지시봉 이외의 회초리는 모두 수거하여 폐기처분하고, 부득이 체벌을 할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하였다.

‘첫째, 절대로 학생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며 둘째, 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에라도 교육적으로 체벌이 효과적이라 판단될 경우에 한하며 셋째, 체벌 전후 학생과 부모님께 상황설명을 하여 묵시적 동의라도 받도록 하며 넷째,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 교사 자신의 책임하에 체벌을 하도록 한다.’는 자구책 정도이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체벌이 상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초임 교사들의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 교육이론처럼 존칭을 쓰고, 민주적으로 대하며, 교과학습 내용에 충실한 천사 선생님에게 현 교육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학생수에 실기 실습 교재의 부족으로 이론수업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각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할 수 없게 하는 수업 이외의 업무 부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일수록 학습 의욕을 잃게 하는 입시제도, 특히 문제 학생 선도 및 처벌 규정의 경직화로 근신, 정학, 퇴학, 제적, 전학 이외에 다양한 선도 및 상담 프로그램 부족 등이 학교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 주된 이유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의 누적으로 흥미를 잃고 학습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학급의 거센 말썽꾸러기들 앞에 무력하기 이룰데 없는 초임 교사들 중에는 산만한 이런 말썽꾸러기들을 교실 뒤나 복도로 내 보내고 수업을 진행시키기도 하며, 담임교사나 학생부에 학생을 대신 처벌하여 달라고 명단을 적어 넘겨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이 주의산만한 학생 모두를 포용할 수는 없으며 수업시간마다 이런 일을 반복할 수도 없다.

결국에는 자신의 수업시간 내 학습 분위기 장악은 이론적인 교수-학습 논리 이외에 현장에서 새로이 터득하여야 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자신의 문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교직을 그만 두어야 할까?, 아니면 회초리를 들고 최소한의 체벌을 하여야 할까?’의 기로에서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교사들의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지만 체벌이 ‘폭력인가? 사랑의 매인가?’의 이원적인 흑백논리로 생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체벌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없애고, 없애지 않고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즉 교사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가는 이 시점에서 체벌에 대한 시각은 ‘체벌 금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이를 교사 수난의 시대라 생각하기 이전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길들이기 방법을 적극 개발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며, ‘폭력과 사랑’이라는 극단적 양자택일의 결론은 내리지 않고 반문하고 싶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무엇이래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자녀를 정말 꾸짖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꾸짖을 용기가 있습니까?” 법은 이제 당신편이 아닙니다.



인간사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원형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위원장)

요즘 PC통신을 보면 교사의 체벌을 성토했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그들의 표현은 하나같이 원색적이다 못해 극을 달린다. '자격없는 교사', '폭력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교사'라는 표현은 아주 일반적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이유에서든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학생들이기에 분노의 감정이 적지 않은 것이다. 우리 세대가 학교 다닐 때 체벌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 소위 말하는 노는 아이들을 전담하는 교사가 따로 있었고 때로는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 표시를 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적든 적어도 체벌을 인정해 온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매 한 번 안맞아 본 사람이 있을까?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도 했었다.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들과 길에서 마주 치기라도 하면 그저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던 시절이었고 지금도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공부 잘하면 배불리 먹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철썩 같이 믿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체벌에 대한 찬반 의견은 지금도 팽팽하다. 교사들간에도 찬반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교육 현실이 한순간에 바뀌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 저항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학생들과 학부모들인데 지금까지도 대부분 학부모들은 때려서라도 공부를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이고, 심지어는 학급의 반장이나 학생회 간부들도 학생들의 통제 수단으로 때리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아이가 체벌의 대상자였다면 그때부터 학부모들의 태도는 바뀌어서 교사에게 비난을 한다고 한다.

여러 교사들이 체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현실에 부딪혀 보면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 실제로 과도한 체벌이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집단 난동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교육이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숙련된 기술자를 배출하는 방편이 아닌 참 인간을 만드는 교육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우리 나라같이 유래 없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어낸 나라에서 이 정도의 시행 착오는 더 좋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경없는 21세기, 첨단 정보화 시대, 아마 50대 이상의 교사분들은 지금 학교마다 설치된 컴퓨터가 부담스럽기만 할 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은 어떤가? 우리와는 엄청나게 틀린 사고 방식에 이미 그

들의 머리에는 적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교내에서 체벌은 그 효과의 찬반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빠르면 98년부터는 학교내 교사 체벌금지와 학생에게 존대를 쓰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다. 체벌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은 오로지 아이들에게 성적을 불모로 힘을 휘두르는 독재자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과거 우리 행정의 모든 것이 그러했듯이 힘을 가진 지배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지도에 있어 체벌보다는 인간사의 아름다움을 배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 주신다면 어떨까? 정말 앞으로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선생님 같이 가슴을 열고 학생들과 마주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제시기를 바란다. 한 나라의 미래는 후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체벌 금지는 교육 환경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김지나(양천 여자고등학교 2학년)

체벌이란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는 징계의 일종으로 훈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체벌을 통한 교육을 행해 왔다. 또한 교사직을 '교편(教鞭) 생활'이라 칭할 정도로 체벌은 우리나라 교육에 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98학년도부터는 체벌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실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체벌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체벌로는 훈화의 목적 그 자체가 달성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체벌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수의 학생뿐이며 대다수는 체벌을 '부당한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감정을 앞세워 체벌을 행하기 때문이다. 교사도 인간이기에 체벌에 있어서 감정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체벌 찬성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도 '감정 배제의 적정선'이라는 전제조건 아래서 가능하다. 하지만 실로 '감정 배제의 적정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따라서 대다수에게 폭력으로 받아들

여지면서 훈화의 목적을 상실한 수단은 어서 바뀌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때,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물리적인 힘, 폭력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교사의 충고나 꾸지람보다 체벌로 길들여짐으로써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토론과 설득을 통한 의사 수렴을 중요시하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셋째, 체벌을 통해 타율적, 수동적인 생활 습관을 익힘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열린 자세를 갖지 못한다. 체벌이 가해질 때, 학생들은 단순히 맞지 않기 위한 행동 변화를 보일 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거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입장에서 '매'보다는 '인격적인 대우'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 상담을 통한 교류는 체벌에서와 같은 반감을 없애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까지 느끼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체벌이 금지되어야 함을 논할 수 있다. 하지만 체벌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반드시 열악한 교육 환경의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 체벌 금지란 오래 이어져 온 교육에 대한 일종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열악한 환경 다수의 학급 인원, 주입식 수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 환경의 개선이 없이 단순히 체벌 금지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게 된다.

결국, 진정한 체벌 폐지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서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열린 학교를 만드는 동시에 교육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



인간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고성혜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체벌'은 다소 진부한 느낌이 드는 주제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이 주제는 여러 사람에 의해 이미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논의거리로 삼고 있고 또한 일반인의 체벌 불가피성이나 체벌반대론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이미 상당한 수준인데 반해 나 역시 기존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나 교사 등 훈육자는 피교육자에 대해 매를 들 권리가 있다고 보고 체벌을 정당한 훈육 수단으로 인정해 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체벌에 대한 시각 역시 변해 체벌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피훈육자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 분위기는 훈육자의 체벌 사용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매맞는 아이는 체벌로부터의 보호나 위기 개입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절박함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십여년 전부터 체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는 대부분 오랫동안 반복된 버릇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 문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폭력적인 강한 훈육 방법은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며 강한 제재에 대한 반발심과 스스로 희생자라는 생각은 더 과격한 행동을 유발하고, 이에 대해 훈육자 역시 더 강력한 행동으로 대처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한 훈육자가 좋은 의도로 체벌을 사용한다 해도 시기의 적절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자신의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기 쉽다. 훈육자의 일관성 없는 감정적 행동은 피훈육자의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며 불안감, 모욕감, 적대감 및 거부당하는 느낌,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갖는 등 마음의 상처를 준다. 매맞는 아이 스스로 자신이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매맞는 이유에 대해 수용하면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훈육자가 매맞는 이유나 방법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 억울함과 분노가 일게 되면, 이미 체벌의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훈육시 체벌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체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훈육없는 사랑이 아이를 망칠 수 있듯이, 훈육자와 피훈육자간의 인간적, 애정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체벌로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훈육방법을 사용하든간에 보다 중요한 것은 훈육자와 피훈육자 간의 인간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훈육자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하여야 한다. 체벌을 가하기까지 신중한 판단하에 선택한 행동이라는 것을 피훈육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체벌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탄력성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체벌기준의 일관성이 없을 때 피훈육자는 훈육자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며, 극단적인 체벌 기준은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자주 적용할 수 없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체벌로 인한 반발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훈육자와 피훈육자간에 체벌 기준이 합의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알려 훈육자나 피훈육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넷째, 훈육자는 체벌시에 감정이 앞서게 되기 쉬우니,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훈육자의 눈에는 체벌이 힘 있는 자의 완력, 고의성이 있는 불공평한 행동으로 비추어지고, 나아가서는 훈육자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 ●

교육복지국가를 위한 작은 제언

민 홍 자

3월이 시작되면 또 새로운 아이들과 만난다.

초등학교에서 봄을 맞이한지 8년째!

8년 동안 그 만남은 기대되는 설레임이 아니라 무겁게 다가오는 막연한 두려움이다. 그 동안 수많은 아이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 만남을 나누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본다. 하지만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업으로 교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배우고 생활하기 위해서 꼭 교사가 되려고 했던 마음은 교직 생활 8년째를 맞이하고 직업으로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너무나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까? 처음엔 내가 아이들에게서 받는 상처 때문에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던가? 그래서 더욱 높고 커다란 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 아이들에게는 또 얼마나 힘든 날들이 되었을까?

아이들과의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가 버린다.

‘조용히 해’를 하루에 20번 이상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하루해가 지나가고, 아이들을 보내놓고 생각해 보면 꼭 해야 할 말과 준비물 2~3가지씩 빼먹었기가 일쑤이다.

교실에 가득찬 아이들!

어떤 때는 하루에 담임인 나와 말 한 마디 안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질 못하고 집에 가버리는 아이들도 있다. 생각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취미도, 특기도 모두 다른 40~50명의 아이들! 같은 시간표에 따라 똑같은 교수 방법으로 모두 똑같은 결과에 도달할 것을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개인적인 나의 손길과 마음이 미치기엔 20평 남짓한 교실에서 어려움이 많다.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내게 교사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

문이라고 모든 원인을 돌리기도 하였으며, 한때는 부족한 교육 여건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고, 학교 교육 이전에 이미 완성돼 버린 가정 교육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모두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고, 어느 한 가지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이 사회가 교육에 지고 있는 총체적인 빛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현재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동하는 대변환기에 있다. 70~80년대 산업화 사회는 획일적이고 순종적인 인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양적 성장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는 개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자기 학습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교육도 개인의 특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전환기에서 우리의 교육도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과 자아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복지 국가(edutopia)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동안 막연히 생각만 해 오던 것을 정리해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당 인원 수의 과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위한 우리의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개개인의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개개인이 존중되는 학습 분위기를 이끌고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은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간에 서로 인간적인 만남과 생활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40~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는 사실상 어떤 좋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간다. 좁은 공간의 가득찬 책상과 걸상 그리고 책상 옆에 가득 매달린 책가방들, 의자 위에 벗어놓은 외투들 어느 한구석 넉넉하고 안정된 공간이 없다. 지나다니기에도 비좁은 공간 속에서 매시간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기란 거의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짜증과 신경질 속에서 나오는 거칠고 험한 말들이 전부다.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 한명 한명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온순하고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지만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좁은 교실에서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일 때에는 공격적인 행동과 말이 앞서게 되고 교사로서도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교실에서는 인간적인 대화와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 내가 느끼는 우리 교육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학문적 소양, 정보들 역시 중요하고 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창의력과 자기 학습능력을 키워 주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중요한 인간적인 믿음과 신뢰가 밀받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 빨리 학급당 인원수를 20~25명 수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둘째, 교직의 전문화

현재 교직에 대한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근무 조건과 처우가 미흡하여 우수한 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 사회의 주역을 가르칠 유능한 교원을 양성·유치하며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 및 인사 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은 5·31 교육 개혁 방안에도 나와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학력을 더욱 전문화하고 연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런 방안들로 우선 전문 학년 담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교실에서의 수업은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한 수업을 위해서 설사 많은 양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언제 사용될지 모르고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전문성을 살린다면 한 교사에게 해마다 학년을 바꾸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학년을 최소한 몇 년간 연속해서 맡게 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교직의 전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교사들의 현직 연수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연수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연구와 자율적인 연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연구기관도 교육청 단위의 운영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사설학원(영어회화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연수로 포함시켜서 교사들의 폭넓은 자기 발전의 기회를 독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울러 5·31 교육 개혁 방안에도 있는 것으로 자율 출, 퇴근제를 하루 빨리 현실화해서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연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의 효율화

학교에는 형식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내용은 간단하나 그 모든 것들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물론 교육적 효과나 그로 인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떤 형식과 문서도 감수해야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모든 학교의 문서들이 전산화되어 불필요한 서류와 결재를 생략하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위한 교사로서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넷째,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

교육은 학교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말하면서 느껴온 바로는 학교의 역할은 가정의 부차적인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 놓으면 모든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학교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교육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세부적인 실천을 학교와 가정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처음 학급을 맡았을 때 학부모와의 관계는 괜히 어색하고 쑥스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부모를 멀리하고 또 가능한 가정환경의 선입견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학교 생활만 보려고 노력 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동의 학교 생활에 대한 옳은 이해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아이의 가정을 이해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이해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부모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겸손함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교실의 문턱이 병원의 문턱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 아이에 대한 걱정거리나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학부모와 교사가 의논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서로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게 되어있지 못한 현실이다. 앞으로 교사나 학부모 모두 열린마음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진정한 작은 만남을 많이 나누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책 -멀지만 가야 할 길- 은 그동안 수없이 생각하고 되새기며 실타래처럼 가슴에 꼭꼭 접어두고 있었던 것들인데..... 막상 지면을 앞에 놓고 차곡차곡 말로 만들어 꺼내려니 입에서, 가슴에서만 뱅뱅거리며 얽힌 실타래가 되고 말았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그와 함께 새학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우리의 새로운 만남도 시작된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아름다운 봄은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봄의 싹을 우리 손으로 키워나가야겠다. ☺



민홍자

-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초등교육 전공)
- 서울 응암초등학교 교사

사랑과 자발성을 키우는 숲속 마을의 작은 학교

— 경남 산청 간디 청소년 학교를 찾아서 —





사랑과 자발성을 키우는 숲속 마을의 작은 학교

경남 산청의 간디 청소년 학교를 찾아서

이 종 태 (본원 연구원)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흐름 중의 하나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라고 해야겠지만, 이 흐름은 벌써부터 대중 매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입시 위주의 메마른 교육에 식상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모습을 발굴, 소개하는 이 난에서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에 관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일선에서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편집자 주-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농담처럼 이야기되는 이 말은 대학 입시의 성공을 숙명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학교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대부분의 중고생들은 하루 24시간 중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을 스무 평 남짓한 교실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긴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고작 교과서와 공책, 그리고 시험지와 의 씨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욕구와 관심을 유보한 채 끊임없이 유형·무형의 채찍에 의해 지루한 싸움을 견디기를 강요받는다. 여기서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거리로, 본드의 환각 세계로, 극단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내몰린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 특히 조만간 자녀가 그러한 현실에 마주쳐야 하는 부모들 중에는 새로운 학교, 이상적인 학교 교육을 상상에서나마 그려보기도 한다. 아이들이 시험과 상급학교 입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친밀한 사이가 되어 삶과 배움이 어우러지는 학교, 삭막한 시멘트 숲 속의 네모 반듯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텅굴기보다는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과 벗삼아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학교, 보이기 위한 지식과 태도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익히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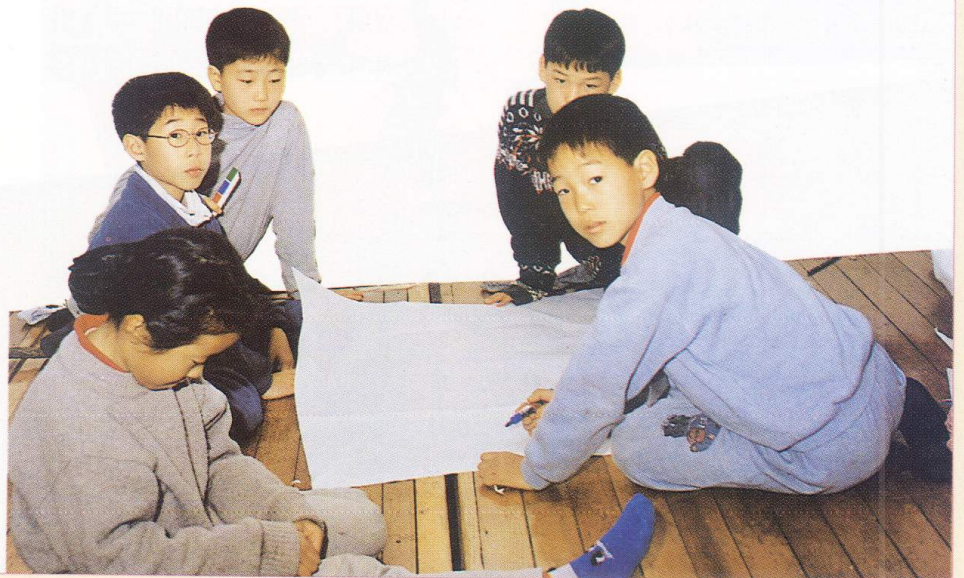
이러한 학교란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인가? 최근의 변화는 그것이 현

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분적이거나 이러한 학교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미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 방안에 따른 교육부의 탈규제 학교 정책과 아울러,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대안 교육 운동이 그것이다. 아직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주말학교·계절학교가 대안 교육의 주된 형태이지만, 글자 그대로 기존의 학교를 대신할 대안적인 학교도 여러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꿈에나 가능할 법한 학교가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간디 청소년 학교’……. 이는 새로운 학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 학교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학교의 이름이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번지. 산청에서 진주로 가는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10분쯤 가다 보면 오른 쪽의 간이 휴게소를 지나자마자 왼편의 외송가든 옆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5분쯤 산길을 오르면 옹기종기 농가가 보이고, 다시 언덕을 오르면 앞뜰에 배나무가 수십 그루 심어진 육

중한 돌집과 통나무와 흙으로 지은 둥근 건물이 나타난다. 여기가 간디 청소년 학교의 요람이다. 앞으로는 발 아래 동네를 두고 멀리 지리산 자락이 펼쳐지는 탁 트인 전경이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뒤로는 둔철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다. 이런 위치 때문에 치받아 올라오는 겨울의 골바람이 제법 사납다.

북쪽의 산수-갑산에 대비되는 함양-산청 땅. 이처럼 척박한 두메산골에 어떻게 해서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게 되었을까? 그 과정은 이렇다. 대학 시절부터 공동체에 관심을 쏟던 양희규 박사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어느 화가가 혼자 돌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던 이곳에다 오래 전부터 꿈꾸던 공동체 마을을 건설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때가 1994년 12월. 우선 양 박사는 육체 노동을 중시하고 소박하게 살다간 인도의 성자 간디를 본받고자 간디 농장을 열고, 95년 2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과정의 간디 대



학도 개설하였다. 한편, 학교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 양박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여러 사람의 호응을 얻어, 이를 같이 추진하고자 모인 교사들과 함께 1996년 3월부터 1년 동안의 교사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학교의 연습으로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어린이와 청소년(중고생)을 위한 계절학교를 열었다. 계절학교에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듯 전국에서 매년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학교 설립의 꿈이 익어갔다.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든다고 할 때 우선 떠오르는 어려움은 학생 모집과 교사의 확보이다. 좋은 대학의 입학이 중고등학교 교육의 최대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인가도 없는 두메산골의 실험적인 학교에 오려고 하겠는가? 월급도 형편없이 낮은 학교, 그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교사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학교에 어떤 교사가 오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였다. 지난해 10월 3일 처음으로 예비 학부모회가 열리고 11월 3일 5명으로 구성된 정식 학부모회가 설립되면서, 그리고 12월부터 학생모집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문의가 오고, 부모와 함께 3자가 동시에 찬성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20명선이 쉽게 넘어버렸다. 1월 말 선발이 끝났을 때 학생수는 모두 24명이었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이 반 이상인 것을 보면 단순히 기존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온 학생들은 아니었다. 어떤 중학생은 전교 1등을 유지할 만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미지의 이 학교에 왔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다소 많지만, 반 가까운 학생들은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었다.

어떤 부모들이 이 두메산골에 아이들을 보냈는가? 부모들의 직업은 교수, 연구원, 의사, 유기농 생산자, 화가 등 다양하고 지역 또한 서울에서 시골 농촌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다만 한결같은 공통점은 입시의 중압감과 삭막한 경쟁에

시달리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결코 자녀의 앞날에 보탬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물론 많은 부모들이 처음에는 망설이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을 따라 계절학교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의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같은 처지의 학부모들의 열의와 책임감에 서로 힘을 얻으면서 우려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이 계절학교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부모는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이번에 졸업하는 큰 아이는 일반 학교에 보내기로 하였지만, 둘째 아이는 꼭 이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계절학교에서 추위나 다소 불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의 생활과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탐구하는 과정에 만족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얻은 것이다.

서울 주변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부모는 아직도 교사가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고 무의미한 감지(공책에 교과서를 까맣도록 반복해서 베끼는 것)를 숙제로 내는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이 싫어 중학 1학년에 다니는 딸을 자퇴시키고 이 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더불어 한길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명·자·년·이·복·명·로·서·명·해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도 기존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일종의 거부 현상이 보편화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제 기존의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할 곳이라는 신념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가?

교사 문제는 지난 1년간의 준비로 우선은 해결이 된 상태이다. 양박사를 비롯하여 간디 농장에 상주하는 다섯 명의 교사 외에도 시간제로 교과를 맡을 교사와 컴퓨터나 유기농법 등 특강 형식으로 지도를 해 줄 자원 교사나 학부모 교사도 다수 확보된 상태이다. 이들은 대개 간디 대학을 통해 이 학교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연차적으로 6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들을 미리 확보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 학교가 올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3월 1일 개교하는 간디 청소년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선, 이 학교는 학생수 20여 명의 아주 작은 학교로서 옛날 서당처럼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입학할 때의 과정(중 1에서 고 1)에 따라 최소 3년에서 6년까지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지만, 능력에 따라 더 일찍 다음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진학을 위해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해진 교과과정을 따라 획일적으로 배우기보다는 각자의 관심과 능력에 맞추어 스스로의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하게 된다. 즉,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면 지식 교육에 주력하고 악기를 배우거나 농사를 지으려 한다면 그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은 오전에 국어, 영어, 과학 등의 일반적인 교과를 배우고,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와 집짓기, 우리 장단과 춤 등 의식주 해결 교육과 감성 교육을 한다. 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많은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기보다는 적은 과목을 깊이 공부하는 집중식으로 운영한다. 이 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실이나 텃밭에 한정되지 않고 배움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옮겨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따라서 방과 후에도

각자의 관심과 진로 계획에 따라 학습하고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듣는 시간도 편성되어 있다.

이 학교의 평가는 중간 평가와 기말 평가로 이루어지지만, 보통의 학교와는 달리 필기 시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소의 발표와 과제 수행, 토론에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공책, 과제물, 글모음, 작품, 연극, 춤 등을 친구들과 교사, 학부모 앞에 펼쳐 놓고 여러 가지 도움말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평가 과정이 하나의 잔치가 되도록 한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평가 결과는 점수나 석차로 산정되지 않는다.

이 학교의 크고 작은 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와 학생이 모두 모여 갖는 '식구회의'에서 토의





* 일주일 시간표의 예 (별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어남 6:30							
아침 식사							
아침을 여는 시간 8:00~8:20	종교 활동						
오전 교과	특강 이나 철학	영어	국어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영어	국어	영어	국어	사회 과학	
8:30~12:30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수학	자연 과학	자연 과학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수학	자연 과학	자연 과학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의식주 감성 교육 14:00~16:00	텃밭 가꾸기	우리 장단 우리춤	집 짓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식구 회의	
개별화된 학습 시간 16:00~18:00						생활 정리	
저녁 모임 18:00~18:30							
저녁 식사							
자유 학습 19:00~21:30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자유 학습						
잠 22:00	잠자기						

되고 결정된다. 이런 방식은 영국의 섬머힐을 모델로 하여 이미 국내에서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나 영산 성지고등학교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는 도시 중하층 월평균 공·사교육비 정도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학생들이 부담하여 충당하고, 기숙사와 식당 운영은 학부모회에서 책임지고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교육협동조합'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일반 학교에 비해 학부모들의 역할이 대단히 큰 편이다. 한 마디로 단순히 학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함께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가 바탕으로 삼는 교육의 원칙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교육은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며, 가르침과 배움은 자발성을 가질 때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표는 '전인적 삶', '공동체적 삶', '자연과 하나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데 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아직 아무도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려는 간디 청소년 학교— 이 학교의 시도가 성공할는지 아니면 하나의 실험으로 그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교육에 관한 실제적 요구가 있고 거기에 부응하려는 교육적 열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자의 결합은 아마도 기존의 학교 교육에 풍부한 교육적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㉞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낸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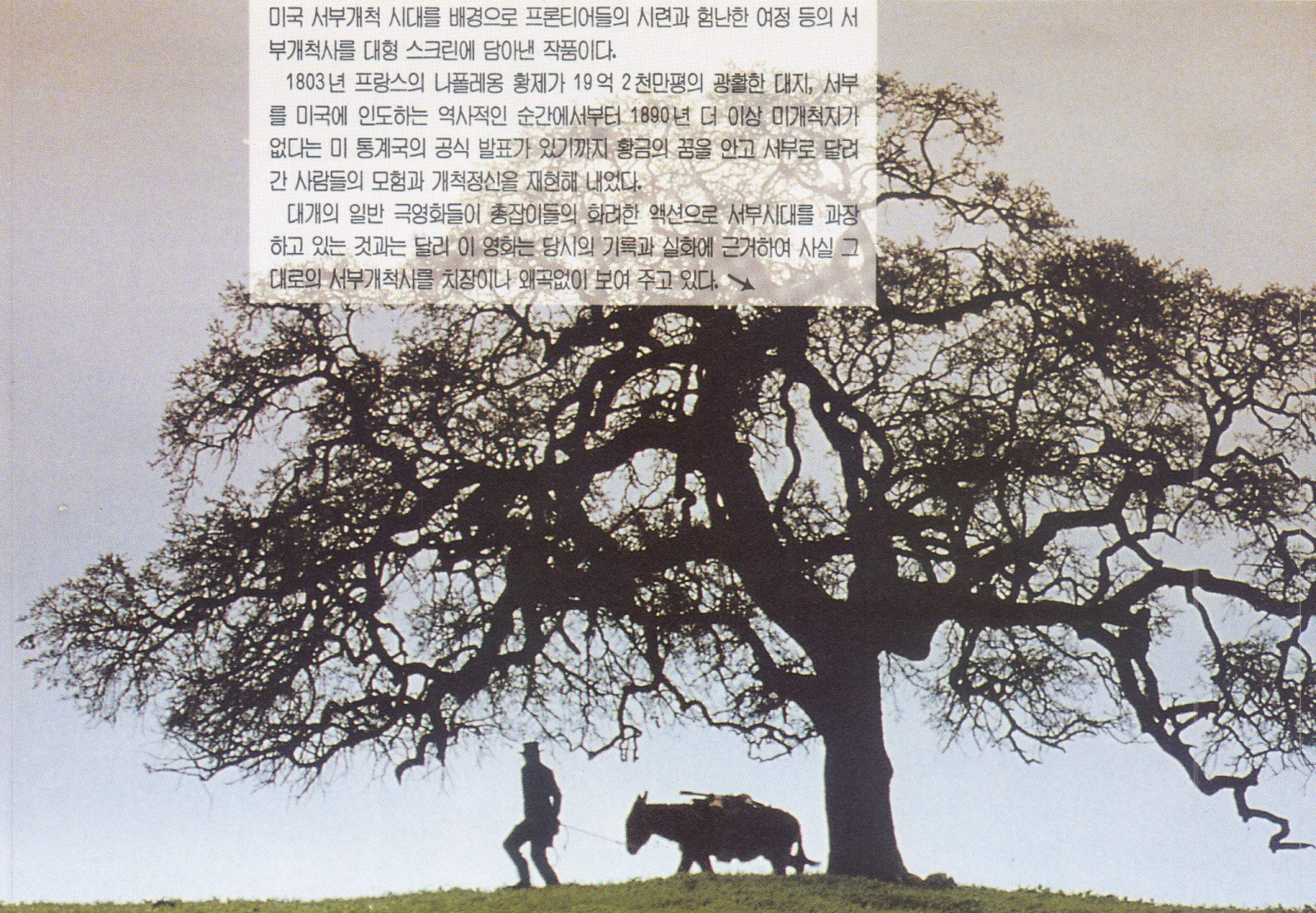
「위대한 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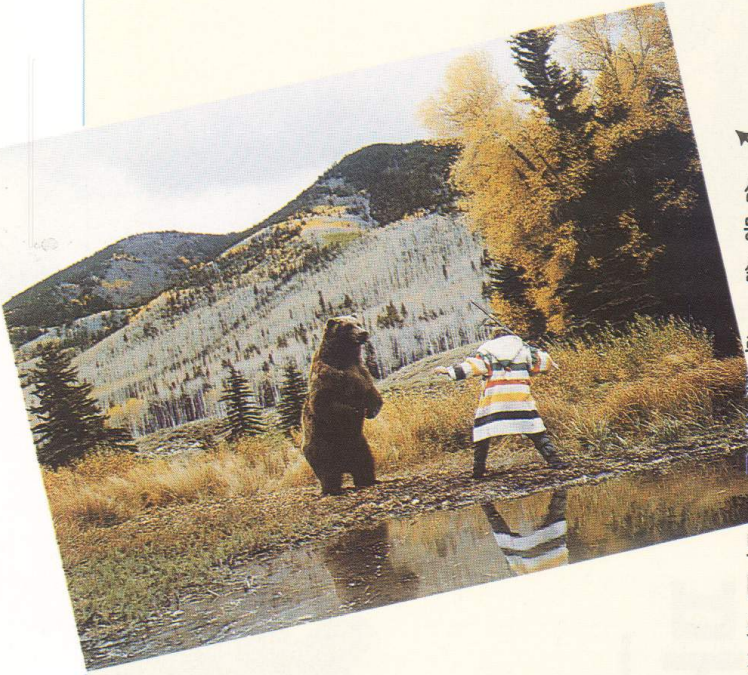


영화 「위대한 서부」(원제 : The Great American West)는 19세기 미국 서부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프론티어들의 시련과 험난한 여정 등의 서부개척사를 대형 스크린에 담아낸 작품이다.

1803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19억 2천만평의 광활한 대지, 서부를 미국에 인도하는 역사적인 순간에서부터 1890년 더 이상 미개척지가 없다는 미 통계국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 황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달려간 사람들의 모험과 개척정신을 재현해 내었다.

대개의 일반 극영화들이 총잡이들의 화려한 액션으로 서부시대를 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영화는 당시의 기록과 실화에 근거하여 사실 그 대로의 서부개척사를 치장이나 왜곡없이 보여 주고 있다. ▶





영화는 골드러시를 따라 금광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욕망, 역마차에 몸을 싣고 콜로라도강을 헤쳐나가는 초기 서부 이주민들의 열정 등을 수백명의 등장인물과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여, 웅장한 스케일로 서부의 형성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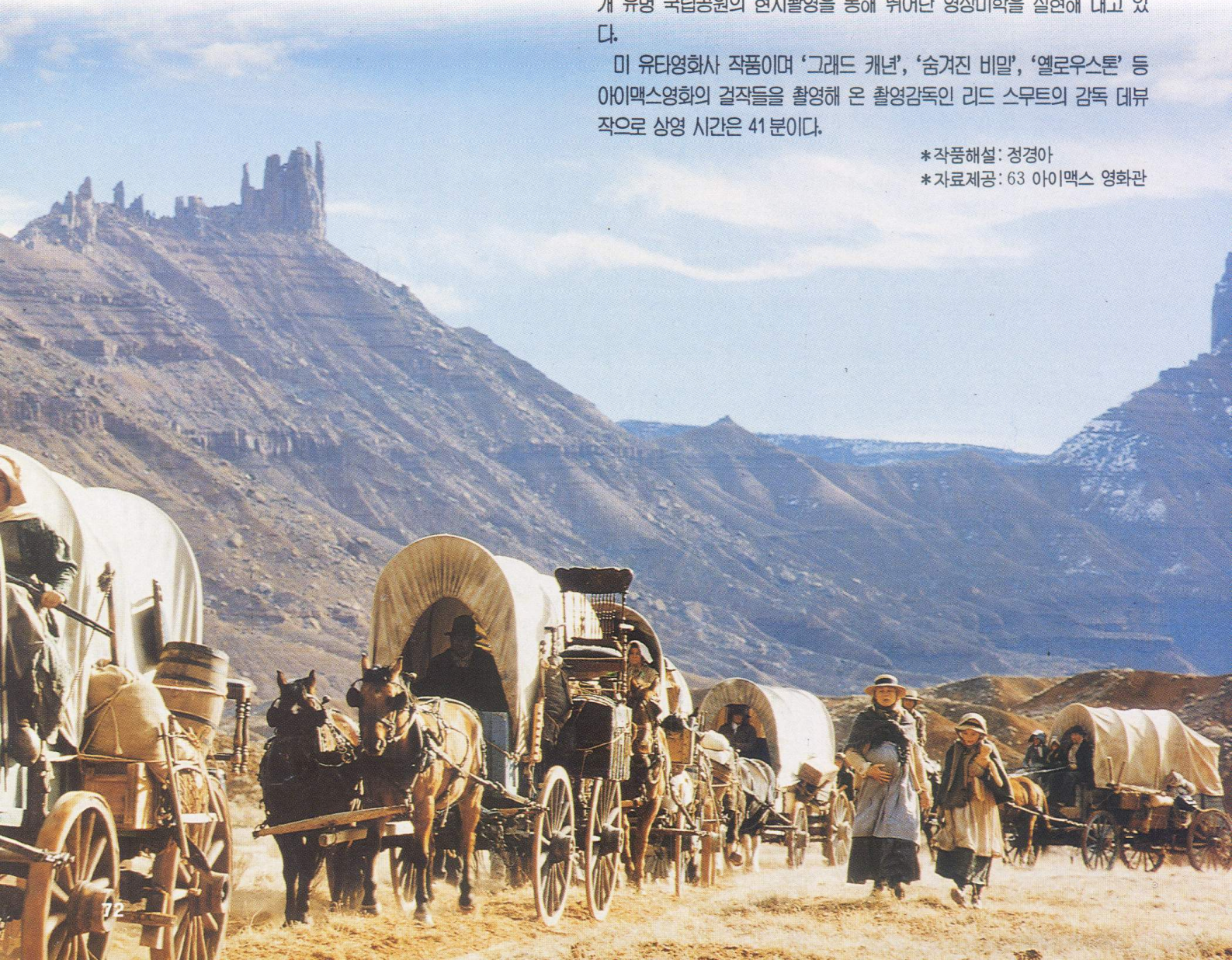
제퍼슨 대통령의 명을 받고 동부에서 서부로의 육로를 개척한 메리 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락의 험난한 여정, 수천마리씩 무리를 지어 달리는 버팔로를 찾아 서부의 거친 자연과 외롭게 싸우는 사냥꾼 휴즈 등 영화는 도전과 모험정신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주역들을 실제 모습 그대로 재현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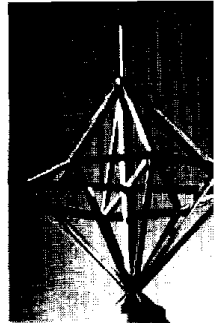
이 영화는 화면 중간중간 서부의 야생에 맞서 싸우는 인간들의 투혼을 보여주는데 특히 사냥꾼 휴즈와 야생공이 벌이는 혈투는 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 주고 야생공의 위협적인 공격에 맞서는 휴즈와 그의 뒤를 쫓아 호수로 뛰어든 야생공의 집요한 추적 장면은 근접수중촬영과 긴박감 넘치는 편집으로 관객의 가슴을 오싹하게 만든다.

이 영화는 또한 배경이 되고 있는 미조리강과 록키산맥을 넘어 태평양연안에까지 이어지는 미국 서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 이를 위해 촬영진은 그랜드캐년, 옐로우스톤, 브라이스캐년을 비롯한 27개 유명 국립공원의 현지촬영을 통해 뛰어난 영상미학을 실현해 내고 있다.

이 유티영화사 작품이며 '그랜드 캐년', '숨겨진 비밀', '옐로우스톤' 등 아이맥스영화의 걸작들을 촬영해 온 촬영감독인 리드 스무트의 감독 데뷔작으로 상영 시간은 41분이다.

*작품해설: 정경아
*자료제공: 63 아이맥스 영화관





* 이 연구는 류재택, 백은순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RR 96-12)를 요약한 것임.

서부 유럽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류 재 택 (본원 연구위원)

1. 외국 교과서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시정활동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이 외국 교과서에 오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또는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부족으로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과거 역사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진실된 역사가 굴절되어 알려진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의 역사를 강대국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사관으로 인하여 약소

국으로 인식된 한국의 역사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허다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일본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은 가장 심각하고도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2년도에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문제가 우리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였고 급기야는 양국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켜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197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외국 교과서 검토 작업을 간헐적으로 추진해오다가, 1982년도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이 계기가 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민간차원으로 일본 교과서를 검토·분석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도부터는 외국 교과서 검토를 위한 전담 부서(교과서 국제비교 연구실)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외국 교과서의 검토·분석은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관련 사실의 오류나 왜곡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 후 발견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오류 내용에 대한 원어판 시정자료를 개발하여 해당국의 교과서 개발 관계자나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은 아니다. 따라서 우회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발견된 왜곡된 내용에 관해 양국 학자간에 학술 토론이나 문제점 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을 소개하는 각종 자료나 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

또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여 학교 교육용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일, 외국의 교육자나 학자, 교과서 개발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역사나 현실에 직접 접하게 하여 한국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 양국간의 공동 연구나 공동 자료개발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본질적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 오해로 인한 오류나 왜곡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다.

2. 서부 유럽국가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검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교과서 검토 분석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이다. 이는 시정 자료집 개발과 다른 적절한 시정 활동을 하는데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외국 교과서의 검토는 시의성이 강한 나라나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나라의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지역, 문화, 언어, 정치 등 몇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즉,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아라비아어권, 서부 유럽, 동부 유럽, 중남미,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순차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부 유럽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로 최근에는 한국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서부 유럽 국가의 교과서 분석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한국관련 내용의 파악, 국가별·영역별(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화 등)로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지의 파악, 오류 내용, 왜곡 내용,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 등의 파악과 시정 의견, 불충분한 내용에 대한 보완, 과거 선행 연구결과와 현재 사이에 일어난 변화, 각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파악 등이었다.

교과서의 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과서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국관련 내용이 담겨진 책을 중심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과서 목록집을 참고하여 교과서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여 구입한 경우가 많았고, 독일의 경우 유대 관계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하여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현지 유학생에게 추가 구입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현지 공판을 이용하기는 현지 인력의 여유가 없어 어려웠다. 교과서 중에는 한국관련 내

용이 없는 경우도 많아 수집량과 분석량 사이에는 차이가 많다. 국가별 수집량과 분석량은 다음과 같다.

(수집량/분석량)

영국	프랑스	독일
25책/7	42책/15	35책/10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계
7책/2	4책/4	113책/38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회과 교과서 수는 비교적 많았다. 교과서 발행 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와 달라 자유발행제로 되어 있고, 교과서 종류와 명칭도 다양하다. 프랑스가 지리, 역사, 사회 등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에 반해, 영국의 교과서는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People, Cities and Countryside」, 「Making History」, 「The Era of the Second World War」, 「Agriculture and Industry」 등이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소국인 관계로 교과서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매우 찾기 어려웠다.

3. 국가별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관련 내용은 대체로 프랑스 교과서에 많이 게재되어 있었

고, 따라서 각국별 오류 내용도 많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6·25 한국전쟁과 최근의 경제 성장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각국별 오류 및 왜곡 내용과 그것에 대한 검토 의견, 시정안에 관한 내용은 많지만 여기서는 국가별로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요약 게재한다.

가. 영국 교과서

「The Cold War」(1993)

- * 한국동란의 발단에 대한 증거는 대개 정확적이다.……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원문 77쪽)
- 아직도 한국전쟁이 김일성이 주도하여 남침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내용이다. 한국동란의 발단에 대한 증거는 대개 정확적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발굴된 구소련과 북한측 자료에 의거하면 당시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에 관한 생생한 제 1차 자료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소련의 비밀외교문서, 북한 인민군의 정찰 명령 제 1호, 전투명령 제 1호 등을 들 수 있다.

- * (유사 내용) 이에 관련된 자료가 발표될 때까지는 누가 한국동란을 일으켰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군사적 증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북한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원문 79쪽)

「Agriculture and Industry」(1995)

- * 1960년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1986년

에는 2,000불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원문 96쪽)

- 통계가 오래된 것에 의한 미흡한 내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날(1995) 10,076\$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로 수정을 요한다.

- * 울산에 있는 현대는 그 자체의 자동차를 디자인해서 '포니'차를 생산했는데, 이 차는 전세계로 수출되었다. 1987년에 남한은 4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원문 96쪽)

- 「1995년에 남한은 25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제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역시 옛날 통계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알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내용이다.

「Work, Employment and Development」(1994)

- *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은 회사의 평균 비용에서 8%를 차지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한달에 최저 임금도 안되는 80파운드를 받고 있다.” (참고: 80파운드는 약 9,600원) (원문 154쪽)

-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한국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가 많이 개선되어, 현재 선진국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대만, 홍콩 등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오히려 고임금에 의한 고충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앞질러 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국제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프랑스 교과서

「Histoire」(1995)

“모택동은 압록강 이남으로 의용군 10만명을 보냄으로써 무력 개입을 결정하였다.” (원문 102쪽)

- 1950년 10월 말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人民志願軍’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의 대군을 파견하여 피멸 직전의 위기에 처한 북한을 구원하였다. 당시 중국은 50만여의 대군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1953년 휴전 전까지는 총 90만명의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해 전술을 사용한 중국군이 10만이라는 숫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수치이다. 어떤 원인인가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 * 한반도의 모든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과 위협으로 점철되어 있다. 20세기는 가장 잔인했던 시기들 중의 하나였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사정없이 한국민들을 대했다. (원문 288쪽)

- 한국사 왜곡과 잘못된 한국사 이해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사를 대부분 이와같이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침략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설명은 과장된 것으로, 중국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임진왜란과 일제의 한국병탄 등의 짧은 역사를 매우 과장, 고정관념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 “기적”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매우 높다. 노동 조건은 열악하다. 산업 재해는 빈번한데 그에 대응한 법안은 미흡하다. 임금은 낮고 근무시간은 길다. 파업은 봉급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듭되고 대기업들은 굴복해야만 했다.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도시에서의 힘든 생활 조건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진다. (원문 295쪽)

- 위의 글은 사회적 긴장이라는 제하의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

한 어두운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한국은 매우 살기 어려운 곳이며,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쉽다.

1960~70년대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하였다. 1987년 한해 동안 3,749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67.9%는 임금 인상, 15%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에는 연간 총 144건의 노동쟁의만 발생하였을 정도로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다.

현재 한국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122만원(7,625프랑)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은 1989년 이후 지켜지고 있는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Geographie」(1995)

* 고도의 숙련된 한국의 기술자는 서방의 인부 수준의 급료를 받는다. 사회보장은 존재하지 않고 근무 일수도 길고 휴가는 거의 없다. 젊은이들(어린이 포함)과 여자들(더 숙달된)의 비율은 중요하며, 여자들은 종종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자들보다도 40%가 적은 급료를 받는다. 그렇기는 해도 노동력은 다루기 쉽고, 잘 훈련되어 있으며 노력하는 자세(유교사상)가 있다. 또한 사회 운동은 한정되어 있어서 노조는 영향력이 많지 않고, 다소 정치 권력에 복종한다. (원문 43쪽)

* 이 저임금은 아주 길고(하루 9~10시간, 일주일에 6일 이상, 즉, 선진 산업 국가보다 평균 50%가 많은 근무 시간), 고통스러운(위생 규칙과 안전 규칙이 흔히 잘 지켜지지 않음) 근로에 대한 보답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근로자는 프랑스의 근로자보다 1/4을 더 일하면서 급료는 1/5에서 1/10의 수준밖에 받지 않는다.

게다가 미성년자가 일하는 것도 보편화되어 있고(잘 보호받지 못함) 사회 보장 범위도 좁다(서방보다 1/4배 이하 수준). 왜냐하면 연간 유급 휴가가 짧은 기간(대만이 10일, 싱가포르가 14일, 한국은 원칙적으로 20일인데 근로자들이 다 이용하지 않음)이고, 사회 보장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이다.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은 충분하지 않고 취직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문 44쪽)

→위의 두 예는 한국의 노동자 생활을 매우 비참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하는 내용이다.

「Geographie」(1995)

* 황해와 일본해 사이의 한국은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일종의 지협이다. (원문 310쪽)

→한국의 인상이 단적으로 묘사된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항상 두 강대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소국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인상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상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 이 나라의 서남쪽 목포의 조선소는 세계 적재량의 25%에 해당하며 세계 제 2위이다. (원문 3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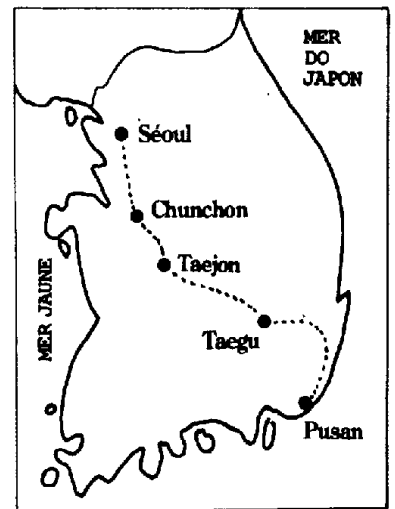
→여기에서 '서남쪽 목포'라는 설명은 '남동쪽, 울산(또는 거제도)'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울산에 현대 중공업, 거제도에는 대우의 육포 조선소가 있다.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오류 사례이다.

* 1994년도에 걸쳐 한국 제조업체는 2천 4백만대를 시장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그 중 80만톤은 수출용이다.). 그들은 스페인을 제치고 빠르게 캐나다를 추월해서, 세계 시장에서 5위를 가볍게 차지할 것이다. (원문 314쪽)

→'2천 4백만대'라고 표현한 것은 '240만대'로 바로 잡는 것이 옳다. 단순히 통계 오류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 일어난 오류이다.

(원문 316쪽)의 한국 고속 전철 TGV노선을 나타낸 지도



→한국에 TGV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사실은 프랑스 국민의 큰 관심사이다. Chunchon은 Chonan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집필자의 불성실한 자세로 나타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Le Monde Actuel」(1989)

* 일본인들은 한국을 여러 번 지배했는데,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은 191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이다. (원문 47쪽)

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를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여러 번 지배했다고 하는 설은, 일본의 한국사 왜곡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임나 일본부 지배(4~6세기)라는 허구를 조작한 것이며, 여기에 임진란의 7년 전쟁을 더하여 이와 같은 표현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사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Le Systeme Monde En Question T」(1989)

* 한국은 철도 석탄도 없으나,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인쇄술을 알았다. (원문 154쪽)

→ 한국의 역사를 호평하는 사례도 있다. 즉 자원도 부족한 나라지만 문화면에서는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 가장 중요한 단지는 포함 단지이다. 이 단지 덕택으로 한국은 철강생산 세계 제11위로 프랑스를 비짝 따르고 있다. (원문 161쪽)

→ 어떤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만한 국내외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 철강 생산 규모에서 중국,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제 5위(또는 6위)에 올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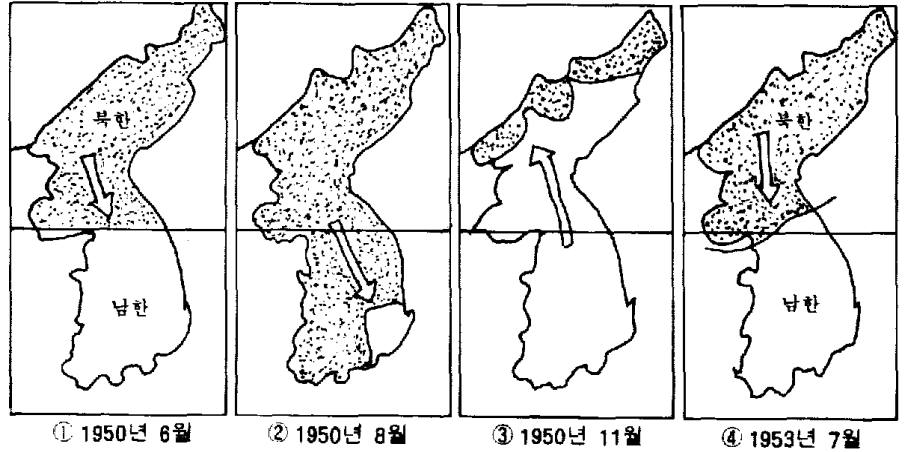
다. 독일 교과서

「과거로의 여행」(1994)

* 한국전쟁 (원문 207쪽)

한국전쟁의 경과 중, 지도 ①에서, 처음 남북한 대치 상태의 분계선은 북위 38° 선이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협정에 의해 북위 38° 선 이북 지역에 대한 일본군 무장해체를 단행하였다. 미군은 1개월쯤 늦은 1945년 9월에 남한 지역을 점령하였다. 경계

<한국전쟁 경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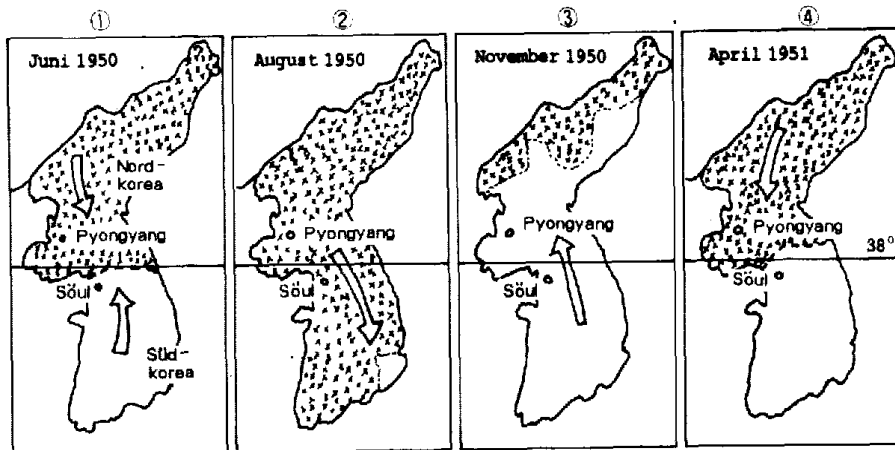


선이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8° 선을 경계로 하여 색을 구분하여야 옳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화살표는 삭제되어야 한다. 남침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였으므로 북침을 의미하는 화살표는 없어야 한다.

지도 ②에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 지역이 조금 크게 그려지는 것이 옳다. 지도 ③에서, 연합군이 최북쪽으로 진격한 선이 초산, 혜산까지였다. 압록강 선에까지 도달하였음이 나타나야 한다.

지도 ④에서, 1951년 중국군의 반격으로 38° 선 남쪽으로 다시 밀렸다가

유엔군의 북진으로 오늘날 휴전선으로 고정되었다. 따라서 1951년 상황도로서는 38° 선 이남까지 내려간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1953년 7월로 바꾸어야 한다.



「일본, 중국, 한국」(1990)

* 서구화, 현대화의 대가는 정말 컸다. 올림픽대로에서 보이는 500여 가구의 빈민촌이 상계동에 있었다. 그 주민들은 투쟁하며, 거의 열 식구가 같이 사는 방 한 칸 짜리 집을 떠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대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로-그에 따른 후속적 재정 부담을 어차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던 만큼-이사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결국 경고도 없이 철거기동대에 의해 쫓겨났고 그 초라했던 집들은 그대로 납작하게 허물어졌다. (원문 150쪽)

→재개발 지역에 관한 기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매우 편협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소개하여, 이것이 마치 한국 사회의 전모인 양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례이다.

라. 네덜란드 교과서

「이야기 과거사」(1991)

* 유엔군은 15개국의 군대로 구성되었다.

→유엔군은 16개국의 군대로 구성되었다. 명확한 사실인데도 이러한 오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① 한국전쟁은 사실상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은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국가로 계속 나뉘어져 있다. ②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것 인지는 의문이다. 한국전쟁이 동파서의 불신이 점점 커져서 일어난 것임에는 틀림없다.

→앞의 사례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직도 한국전쟁 발발의 장본인, 원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과 불신이 조속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붕괴나 러시아, 중국의 비밀 문서가 완전히 공개

되어야 한다. 김일성의 남침 야욕이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실현되었음은 일부 소련 비밀문서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마. 오스트리아 지구

「지리와 경제」(1994)

* 70년대에는 제 2의 산업 혁명이 도래했고 일본과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전시법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에 자본과 기술의 도움을 주었다. 포항에 연간 생산량 850만의 초현대식 제철회사가 생겨났다. (원문 27쪽)

→위의 내용중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70년대가 아니라 1965년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포항 제철소(POSCO)의 현재 상황까지를 보충하여 소개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POSCO는 1995년말 현재 연간 조강 능력 2300만의 대규모 제철회사로 성장하여 단일 제철소로는 신일본제철에 이어 세계 제2위이며, 1999년말까지는 연간 2800만의 철강 생산을 위한 시설을 확장중에 있다.

4. 결 론

5개 서부유럽 국가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오류 및 왜곡 실태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만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이 항상 나쁘게만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발전이 빠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도 많다. 하지만 부정적 내용을 시정해야 한다. 잘못된 내용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성실한 오류, 낡은 통계에 의

한 옛날 실정 소개, 정보 부족에 의한 오류, 역사의 이해 부족, 강대국 중심 사관에 의한 역사 왜곡, 강대국의 왜곡에 따른 왜곡, 과거사의 확대 해석에 의한 왜곡, 불충분한 소개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과거사 확대나 강대국 중심 사관에 의한 역사 왜곡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응어리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어두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 전체를 어둡게 비치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과 몫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 이 연구는 유현숙, 김홍주, 양승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RR 95-10)를 요약한 것임.

장학기능 개선방안 연구

김 홍 주(본원 부연구위원)

연구의 배경

교육 지원 활동인 장학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간의 기능 배분이 모호하고, 담당 기관간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불명료하며, 전문적인 장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등 장학체제 전반에 대한 자성과 비판의 소리가 높다.

더욱이 단위 학교 운영상의 자율권 확대, 교단 중심 지원체제 구축 및 교육본질 추구 등 최근의 교육개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학체제를 정비하여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장학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수-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그 중요성이 인

정되고 있다. 따라서 장학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곧 교육체제 전체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

장학체제의 개선을 올바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장학 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간의 명확한 기능 배분과 이를 행하는 교육전문가, 그리고 장학의 대상인 교원들의 장학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때문에 교육행정기관간의 명확한 장학 기능의 설정과 장학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타당한 역할 제고 방안의 탐색은 시급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장학이 발휘해야 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장학이 교육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모

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장학 여건의 변화

장학은 변화하는 교육 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장학의 본질적 목적이 학교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 활동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학교가 어떤 요인에 도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장학 기능이 개선되어야 할을 시사해주는 교육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간 우리의 교육은 양적인 팽창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이러한 양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질적 수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장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즉 학교를 형식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형태의 장학은 국가나 학교에서 설정한 수준의 교육을 달성했는지의 점검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지도의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으며, 장학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공학의 도입, 정보화 시대의 도래 등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물론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학은 이러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교사들을 연수시키고, 전문가를 양성해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장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장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을 통한 교육 개선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요인, 학교 조직 풍토 및 건강 등이 모두 교육 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이다. 따라서 장학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발달의 영역은 교사 개인의 전문적 발달 (professional development), 교사의 개인적 발달 (personal development), 그리고 학교의 조직적 발달 (organizational

development)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도 장학적 책임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하며, 학교 조직관리에 대한 연수도 장학적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장학은 학교 구성원의 어느 일부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특수 영역에 대한 장학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특수교육, 영재교육, 직업기술 교육, 성인교육, 열린교육, 유아교육 등에 대한 장학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복지사회 및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교육에 밀려 소외를 당하던 특수 영역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교육서비스 특히 장학서비스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장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장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것이 감독하고 지시한다는 의미로 부각될 때, 장학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때 더욱 악화된다. 엄정한 선발 체제에 의한 장학직의 채용, 장학직을 대상으로한 연수의 강화 등을 통하여 어떻게 장학직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섯째, 장학을 담당하는 각

기관간의 연계체제 미흡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의 지방자치제로 인해 중앙의 행정기능이 지방으로 상당 부분 이양되고, 각 지방 교육행정기관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장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장학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및 일선 학교가 서로 수직적·수평적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앙 교육행정기관의 장학담당 부서의 폐지로 인해 중앙과 시·도의 장학이 연계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장학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각 기관간 장학 업무의 중복이나 모호함을 줄이고, 장학 기능의 효율적 배분 및 명료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학의 문제

초·중등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직들을 대상으로 장학의 현황과 그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간의 장학 기능과 역할이 불명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천적 측면에서 현재 장학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학사들이 장학과 거의 관련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

고, 장학 직원의 업무 과중, 절대적인 인력 부족, 전문성 및 행정 능력 부족 등으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학 기능 수행 정도에 대해서 장학직은 시·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장학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원들은 이들 교육청이 장학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장학직들은 장학직과 일반직간의 업무 연계성의 부족, 장학 조직의 부서별 업무 기능 분화 미흡, 부적절한 업무 배분 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일반직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반응하여 교육청의 장학 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교내 자율 장학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시간 부족, 교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장학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교장과 교감은 장학 활동으로 인한 개인적 유인책의 결여를 지적하여 교사와 교장·교감 간에 다소 다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별 장학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장학은 변화하는 교육 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장학의 본질적 목적이 학교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지도·조언 활동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학교가 어떤 요인에 도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학의 유형은 교내 연수로 나타났다.

장학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의 실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요도는 ‘교수-학습의 질 제고 기능’, ‘학교조직의 경영관리 기능’, ‘학생 생활지도 기능’의 순이었으나, 실제로는 ‘문서·서무관리 기능’, ‘학생 생활지도 기능’, ‘교육시책 홍보 기능’의 순으로 장학이 실천되고 있어 이상과 실제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장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요국의 장학 동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장학을 분석하여 본 결과 장학 활동이 교육행정기관의 중핵적인 업무로 되어 있고, 그 활동도 단순한 행정적인 지시·감독보다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하지 않고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존중의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장학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해 일선 학교를 방문하고 지도·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장학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최근 유럽의 국가들은 점차 국가 교육과정의 확대에 따라 일선 학교들이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장학과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 증진과를 연계하기 위하여 학교평가를 장학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장학직 임용 및 선발체제는 장학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선발이나 발탁에 의한 인사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교직 경력을 갖춘 자들 중에서 적성이나 교육관 그리고 연구 실적이 있는 자들을 승진시키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장학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종 현직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수를 통해 획득한 개인의 성취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었다.

장학체제 개선 요구

교원과 장학직을 대상으로 장학체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조사해 본 바 교육부는 장학에 대한

지원과 조정 기능을,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기능을, 시·군 교육청은 학교 자율 장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장학 조직은 앞으로 더욱 보강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장학 조직은 계 수준의 조직 신설·확대로, 시·군 교육청의 장학 조직은 과 수준의 조직 신설 요구가 지배적이었다.

장학직에 대한 인사 요구로서 장학 전담 장학직의 신설, 수석 교사에게 교내 장학 전담 역할 부여 등의 의견이 많았으며, 일반적으로 보임되어 있는 직책 중 상당수가 장학직으로 보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장학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직시 수습기간을 강화하고, 현직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현직연수도 특히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내 자율 장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원 역할 강화, 교원의 근무 부담의 축소, 교사의 다양한 요구 파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교내 자율 장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의 장학 지도 능력이 우선 제고되어야 하고 교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간 장학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학 기능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장학 기능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1) 장학의 본질적인 기능의 회복, 2) 장학 활동의 수월성 제고, 3) 장학을 둘러싼 교육 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4) 장학 담당 기관별 업무와 기능 명료화, 5)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 5가지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교육행정기관간의 장학 기능을 다음과 같이 재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부의 장학 기능은 국가적 차원의 장학 방침 설정 및 장학과 관련된 개혁적·혁신적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의 보급 등에 치중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장학은 가) 국가적 차원의 장학 기획을 위한 기능 강화, 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장학 모형 및 방법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의 강화, 다) 우수 장학 요원의 선발 및 교육, 라) 우수 장

학 사례에 대한 발표 및 보급, 마) 장학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이론의 신속한 제공 등으로 재정립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에 장학 기획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학은 지역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학은 가) 지역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 방법 및 수업 모형 발표를 위한 연구·개발 기능의 활성화, 나) 지역 교육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장학 요원의 선발·양성·연수의 기능 강화, 다) 단위 학교들로 하여금 장학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교환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라) 교사들의 장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과 모임 지원 및 교사들의 공동 연구 및 토의를 위한 공간(예컨대 교사 센터 등)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을 재정립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장학편수실을 신설하며, 장학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장학이 결국은 교단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교육 행정 기관의 장학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단위 학교의 장학 기능이 활성화되어

야 한다. 때문에 단위 학교의 장학은 가)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 나) 학교의 특성과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선택적 장학의 실시, 다) 장학 운영 전담 교사(예컨대 수석 교사가 신설될 경우 수석 교사의 장학 전담 교사화)의 확보, 라) 학교경영 평가를 장학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교내 장학에 대한 책무성 증진, 마) 학교간 자율 장학을 위한 교류의 활성화, 바) 교사들에 대한 교내 장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유인책의 마련 등을 통하여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교육행정기관 및 단위 학교의 장학 기능 재정립은 다음과 같은 장학직 인사 행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개 전형을 통한 장학요원 선발 및 일정 기간의 연수를 연계하여 제도로 정착시킨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장학직을 공개 채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장학직의 공개 채용 제도는 능력있는 장학 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아울러 그들을 이론과 경험으로 무장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선발 후 일정 기간의 전문적인 연수를 연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둘째, 장학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장학직 자격 제도를 개선한다. 장학이 전문적인 활동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자격증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학도 이제 다양화하고 분화될 전망임에 따라 장학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직급별로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획득하도록 한다.

셋째, 장학직과 연구직을 일원화하도록 한다. 현재 장학직(장학관, 장학사), 연구직(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은 서로 명칭은 다르지만 교차 임용하고 있고, 업무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앞으로 두 직종간의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양쪽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장학직과 연구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원직과 장학직으로 구분하고 현행 교육전문직의 명칭을 장학직으로 개칭하고, 장학사(관)를 장학직으로 일원화하도록 한다.

넷째, 장학 요원에 대한 연수 및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장학직은 스스로 업무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지도·조언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전문성

연마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교육청에서는 일반직과 장학직의 갈등 축소와 상호 업무 파악을 위해 장학직과 일반직이 서로 공동의 연수 기회를 갖거나, 서로의 업무를 교환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장학직 승진 및 전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간 교원직에서 장학직이나 연구직으로의 전직은 사실상 승진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학직 근무는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의 기회로 삼는 경향이 적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장학직 인사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장학직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직에서 장학직으로 전직할 때에는 반드시 장학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과정을 마치도록 한다.

여섯째, 장학직의 직무를 재정립한다. 앞으로는 장학 기능이 다양화 될 전망임에 따라 장학의 내용 및 범위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연구사(관)와 장학사(과) 간 통합을 이루어 일원화된 장학직은 다음과 같이 기능을 분류하여 보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장학의 업무를 교육정책 개발 담당, 교과지도 담당, 교육연구·개발

담당, 학교 운영 지원 담당, 일반 행정 담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학 기능 개선 방안의 도입 및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언하였다.

첫째,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장학 기능은 본부의 조직 및 편제만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학에 관한 연구·개발 기능은 국가 수준의 관련 연구 기관 및 산하 연구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 및 시·군 교육청의 장학 기능 역시 자체 조직이나 편제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따라서 시·도 및 시·군 교육청 역시 각 시·도에 있는 관련 연구 기관 및 산하 연구원과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장학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선 학교의 자율 장학 활성화를 위해 학교 단위 책임 경영 제(school-based management)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 장학을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각 시·도 및 시·군 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내 학교에 확대·적

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장학의 활성화는 학교 단위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단위 학교 기관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인바,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자체 평가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㉞

한국교육 논문 공모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문학술지인
<한국교육> 제 24 권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 내용 : 한국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게재 사실이 없는 논문에 한함.
- ◆ 마감 : 1997 년 6 월 30 일
- ◆ 매수 : 논문은 200 자 원고지 100 매
내외 분량으로서 한 편당 2 부 제출
(디스켓 포함, 한글 2.1 이상으로 작성)
및 영문요약(A4용지 5 매 이내) 첨부
(더블스페이스 타자)
- ◆ 제출처 :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조정팀
<Tel : (02)34600-210, 211>
- ◆ 기타 : 제출된 논문은 본원 연구기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일본의 교육개혁 방안

-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의 요약 -

김 태 훈 (일본 국립교육연구소 연구위원)

高階玲治 (일본 국립교육연구소 실장)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약 10년마다 학교교육의 기본 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왔다.

또한, 교육개혁의 방침을 정하는 심의회로서 중앙교육심의회가 있고 그 심의를 하는 교육과정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1995년 4월 '21세기를 전망한 우리 나라(일본) 교육의 미래상에 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족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했다.

1. 교육의 미래상 및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연계
2.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 학교간의 관계 개선
3. 국제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자세

심의된 내용인 제1차 답신은 주로 1과 3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답신의 구성은 3부로 나뉘어져 있고 심의된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향후 교육의 미래상

(1) 어린이들의 생활과 가정·지역 사회의 현상

전후, 일본은 새로운 교육 이념에 기초를 둔 새로운 교육제도를 출발시켰다. 그후 50년간,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고학력 지향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들의 교육상의 과제도 변했다.

① 최근의 어린이들은 과거에 비하여 적극성은 있지만, 학원이나 가정 등에서의 공부로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텔레비전과 매스미디어의 접촉이 많아져, 생활체험, 자연체험이 현저하게 부족해 있다.

② 최근의 어린이들은 사회성과 규범 감각이 떨어졌고, 자립성의 결여와 건강·체력 등에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다.

③ 가정에서도 교육에의 자각이 희박해졌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힘이 저하되었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 참가 활동 의식은 높아졌다.

(2) 금후의 사회 전망

금후의 사회는 국제화·정보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으로 현대 문명 본연의 자세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출생률의 저하, 고

형화, 남녀의 사회 공동 참여 문제 등 여러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3) 교육 미래상의 기본적 방향

① 풍부한 인간성과 정의감 등 시대를 초월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김과 동시에(不易), 사회의 변화와 함께 변해갈 필요가 있는 것(流行)의 두 면을 소중히 여긴다.

② 지금부터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은,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③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행동하며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④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타인과 협조하며,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 등 풍부한 인간성과 능률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과 체력을 중시하여 「살아가는 힘」을 키운다.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 및 가정과 지역사회가 교육에 충실하도록 한다.

— 어린이들의 생활체험, 자연체험 등에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 살아가는 힘을 중시하는 학교 교육이 되도록 한다.

— 과도한 수험 경쟁을 완화한다.

이 문제는 소위 학력 편중 사회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일은 어렵지만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이다. 과도한 수험 경쟁은 출생률 저하가 진행되는 가운데 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증가와 수험 경쟁의 저연령화 등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경쟁에 밀려들게 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선발 방법의 다양화, 평가 척도의 다원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과 대학, 고교 입시의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관공서도 채용 방법과 고용 관행에 변혁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으며 차후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되어지리라고 생각한다.

(4) 이지메, 등교 거부 문제

① 가정·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② 학교에 있어서 이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이 제기되고 있다.

③ 현재 각 학교 교육위원회가 이지메와 등교 거부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더욱 새롭고 충실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④ 교육 상담체제를 충실히 한 뒤에, 교원 이외의 전문가(학교 상담원(School Counsellor), 교육 상담원)와 각종 전문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물론 학교가 전력을 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교 독자적인 해결이 아닌 열린 학교 운영도 중요하다. 일정한 조건 아래서 「전학」의 탄력적인 적용, 이지메의 가해자에게 출석 금지 조치, 「적응 지도 교실」 등의 지도요록상의 출석 처리, 중학교 졸업 인정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

⑥ 어린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학교가 시간적·정신적으로도 가정과 지역 사회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존재가 되어 있는 현상을 직시하는 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⑦ 이 문제의 배경과 그 해결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2부.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역할과 연계의 미래상

제1장. 학교교육의 미래상

(1) 앞으로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의 기본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학교가 목표로 하는 교육은,
—「살아가는 힘」을 육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에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생애학습(평생교육) 사회를 지향하여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학습의 기초적인 자질의 육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여유’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즐겁게 배우고, 존재감과 자기 실현의 기쁨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힘을 몸에 내재토록한다.

—교육 내용을 기본으로 압축시켜,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중시한다.

—어린이들을 다양한 척도로 보아, 한사람 한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기른다.

—풍부한 인간성과 전문적인 지식, 기술과 폭넓은 교양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인 지도력을 갖춘 교원에 의하여 「살아가는 힘」을 키운다.

—어린이들이 같이 배우는 배움의 터로써, 높은 기능의 교육환경을 갖춘다.

—지역과 학교, 어린이들의 실태에 맞는 창의성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열린 학교를 만든다.

① 교육내용의 엄선과 기초·기본의 철저

교육내용의 엄선은 「살아가는 힘」을 육성한다는 기본적인 사고로 행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확실하게 몸에 배도록 한다.

교육내용의 엄선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

인 기초·기본은 무엇인가’ 각 학교 단계와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단계에 맞는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항시 철저하게 행한다.

사회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내용은 학교의 학습활동과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직시한다. 또 그 대신 사회적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내용은 배제한다.

그를 위하여 「교육내용 엄선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②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내용의 탄력화, 지도방법의 개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진행시킨다.

【초등학교·중학교에 있어서의 특색】

「여유」 있는 수업 안에서,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Team Teaching Group 학습, 개별학습 등 지도 방법을 한층 더 개선하여 개인에 맞는 지도가 되도록 힘쓴다.

중학교는 각 교과목의 선택 폭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의 탄력화를 위해 교육위원회가 학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개선】

필수 교과·과목의 내용 및 단위수의 삭감을 도모하며,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다 더 확대한다.

자원봉사, 기업 실습, 농업 체험 실습, 각종 자격 취득, 문화·스포츠 행사의 성과, 방송 대학의 방송 수업 등을 이용한 학습, 각종 학교 공개 강좌 등의 학습, 텔레비전·인터넷·통신 위성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자가 학습 등에 대하여 고등학교는 단위 인정의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통학 범위 내에 종합학과가 반드시 용인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한다.

③ 풍부한 인간성과 능률한 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의 개선

직장체험, 자연체험, 자원봉사 활동 등의 체험 활동의 충실을 한층 더 도모한다.

심신의 건강 증진 활동과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의 실천을 촉진하며, 평생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기초를 키운다.

④ 횡단적·종합적인 학습의 추진

사회 변화에의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횡단적·종합적인 학습을 추진한다. 각 교과를 엄선하여 일정하게 규정된 시간으로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을 설정한다. 이 시간의 학습 활동으로는 국제 이해, 정보, 환경, 자원봉사, 자연체험 등에 관한 종합학습과 과제학습, 체험적인 학습 등이 고려되지만, 어린이의 발달 단계, 학교와 지역의 실태 등에 맞게 각 학교의 판단에 의해 창의적으로 전개한다. 이때, 시험 성적에 의한 수치적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⑤ 교과재편·통합을 포함한 장래 교과 구성의 미래상

교과재편·통합을 포함한 장래 교과 등의 구성의 미래상에 관하여 조급히 검토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하여, 미래상을 계속적으로 조사·심의할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심사의 성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2) 새로운 학교교육의 실현을 위한 조건 정비

① 교원 배치의 개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구미 수준에 가깝게 한다. 또, 사회인의 활용과 비상근 강사(시간 강사)를 활용한다.

② 교원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

교원양성·연수의 개선, 교원채용의 개선을 도모한다. 특히, 교원양성에 관하여는 교육 상담을 포함한 교직과목의 이수, 교육실습 이수, 석사과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학생활동 모습



컴퓨터 교실

정을 활용한 양성 방법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또한, 교원 양성대학에 있어서는 Faculty Development(교원의 수업내용·방법 등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책의 총칭)를 행한다.

③ 사회인의 활용

특별 비상근 강사 제도의 활용, 외국어 지도 조수(ALT), 정보처리 기술자(SE)의 증원을 도모한다.

④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의 정비

여유와 정감 있는 환경, 정보 네트워크 환경을

구비한다.

⑤ 관계 기관·다양한 전문가와의 연계

사회교육 시설과 문화 시설 등 교육 관계기관과 학교 상담원, 교육 상담원 등 전문가와의 연계를 도모한다. 학교 상담원의 배치를 촉진시킨다.

⑥ 유아교육의 충실

학교를 육아 상담, 양육 교류의 장소로, 지역 내에서는 유아교육센터로서 유치원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등, 유아기의 교육에 대하여 폭넓게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⑦ 장애 등을 배려한 교육의 충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살아가는 힘」을 키워 주며, 가능한 한 사회적 자립과 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내용·방법의 개선에 충실을 다한다. 교육 조건의 정비, 교류 교육의 추진, 유치부·고등부의 정비, 직업교육의 충실, 교원의 양성·연수 등에 충실을 기한다.

제2장. 앞으로의 가정교육의 바람직한 자세

(1) 가정교육의 바람직한 자세

가정은 부모·자식간의 관계 형성과 가족과의 접촉을 통하여 「살아가는 힘」의 기초적인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곳이며,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2) 가정교육의 조건 정비와 충실 대책

① 가정교육의 바람직한 자세와 조건 정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 정비가 필요하다. 또, 아버지의 가정교육에 대한 책임과 기업에의 협력을 호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② 가정교육의 구체적인 대책

-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 기회 제공
- 양육 지원의 네트워크 형성 추진

— 부모·자식간의 공동체험 기회 제공

— 아버지가 가정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제3장.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교육의 자세

(1) 향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교육의 자세

어린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2)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교류의 역할과 조건 정비

사회 전체에 「여유」를 확보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활동을 활발히 한다. 그리고 조건 정비도 진행시킨다.

①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의 구체적인 충실 대책

- 활동 장소인 놀이터의 확보, 학교시설의 활용, 사회 교육·문화 시설의 정비와 새로운 사업 전개, 새로운 스포츠 환경의 설립을 추진
- 활동 기회의 충실을 위해 지역 단위의 활동 추진, 교류 활동의 추진, 자연체험 활동의 추진
- 청소년 단체 활동 진흥
- 지도자의 육성과 확보
- 정보 제공의 충실
- 「제4의 영역」육성에 있어 지엽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같은 목적과 흥미, 관심에 의해 계속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적극적으로 육성

② 지역사회의 체제 정비

— 市町村(市·郡) 교육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 : 일상 생활권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활동에 폭넓은 연결 조정·기획기능에 충실을 도모한다.

— 지역교육 연락협의회와 지역교육 활성화센터의 설치 :

지역사회 교육의 충실을 지역 단위로 행하는 방책으로써 협의회와 센터를 설치한다.

—정부와 都道府縣(市·道)의 지원, 민간 교육사업단체의 대응:

정부·都道府縣 市町村의 연계·협력을 강화시켜, 체계적인 시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민간교육 사업자에 의한 문화, 스포츠 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제4장.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

학교·가정·지역사회간의 상호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힘쓴다. 「열린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의 비상근 강사, 학교 자원봉사, 「여유교실」의 개방 등을 실시한다.

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할 일은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시정하는 일이다.

②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서클 활동을 이행한다.

③ PTA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교육위원회의 활성화를 진흥시킨다.

제5장. 학교의 완전 5일제 수업 실시에 대하여

학교 완전 5일제는 21세기 초기에 행한다. 학교 주5일제는 어린이들에게 「여유」를 확보하며 「살아가는 힘」을 키운다는 앞으로의 교육의 바람직한 자세와 연계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완전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으로 전체적으로 수업지수의 절감을 도모한다. 학력 평가는 단순한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한다.

【유의 사항】

① 교외 활동의 충실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의 힘이 필요. 교외 활동은 문부성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각 市町村 교육위원회가 실시 계획을 작성.

② 과도한 수험 경쟁의 완화와 「여유」를 확보.



보건체육(배구)

③ 학원, 토요일의 서클 활동 등이 지나치지 않도록 할 것.

제3부. 국제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바람직한 자세

제1장.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바람직한 자세

새로운 교육과제의 대응으로써 국제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진전, 환경문제 등을 학교에 도입하며 그 기본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존중한다.

② 교육내용을 엄선하여 여유 있는 교육활동의 전개를 도모한다.

③ 어린이들이 감동하고, 의문을 느끼며, 추론하는 등의 과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중요시한다.

④ 각 교과와 도덕, 특별활동 등의 상호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과정 전체를 연계한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⑤ 교과의 골격을 넘어 횡단적·종합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국제화와 교육

(1) 국제 이해 교육

① 넓은 시야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협조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육성하는 일에 힘쓴다.

② 일본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에 깊은 이해를 하며, 일본인으로서의 자기 확립을 중시한다.

③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등을 통해 국제 이해 교육을 추진한다. 그리고, 체험 학습과 과제 학습을 중시한다.

④ 외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유학 등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국제 교류의 추진을 도모한다.

⑤ 교원의 해외 파견 확충과 연수를 충실히 하며, 교원의 지도력을 높인다.

(2) 외국어 교육의 개선

① Listening과 Speaking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육성을 중시한 외국어 교육의 개선을 도모한다.

②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외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교과목으로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지만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종합적 학습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에 지역과 학교

의 실정에 따라서 영어회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외국의 생활과 문화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그때 원어민(Native Speaker) 등을 활용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제3장 정보화와 교육

(1) 정보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① 정보와 정보기기를 주체적으로 선택, 활용하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질과 능력 즉, '고도 정보통신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 판독 능력'을 육성한다.

② 초·중·고를 통하여 계통적·체계적인 정보교육의 추진을 도모한다.

③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준비를 충실히 한다.

(2)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교육의 질적인 개선

①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활동의 개선과 충실을 도모한다. 특히, 벽지에서, 또는 병으로 요양 중에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조속히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의 실전 연구를 진행시킨다.

(3) 고도 정보·통신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의 구축」

① 학교의 정보통신 관련 시설·설비 전체의 고기능화·고도화·각종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하여, 스스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수신해 가는 「열린학교」를 구축한다.

② 교원 양성과 연수의 충실, 정보처리 기술자 등 전문가의 활용을 추진한다.

③ 교육에 있어서 멀티미디어에 관한 중장기적인 종합 추진 프로그램을 책정한다.

④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전국에 제공하는 교육 정보 내셔널센터를 정비한다.

제4장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

(1) 과학적 소양의 육성과 교육의 개선

①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발상을 소중히 여기며, 어린이들이 「발견하는 기쁨」과 「창조하는 기쁨」을 통하여, 과학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도록 풍부한 과학적 소양을 육성시킨다.

② 이과(자연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도 관련을 맺어, 과학과 인간, 자연과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지도한다.

③ 교원 양성과 연수를 통해 교원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연구자·기술자 등 일반 사회인도 활용한다.

④ 관찰·실험용 설비와 과학 학습 센터의 정비 등 학습 환경을 정비한다.

⑤ 과학적인 견해와 사고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입학자 선발제도를 개선한다.

(2) 지역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①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며 움직이는 등 오감을 사용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과학 박물관 등을 정비한다.

② 어린이들이 과학에 흥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학·기업 등의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미나 개최를 촉진한다.

③ 다양한 학습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체제의 정비를 추진한다.

제5장 환경문제와 교육

(1) 환경교육의 개선·추진

① 「환경으로부터 배우», 「환경에 대하여 배우», 「환경을 위하여 배우」이라는 관점에서 환경 교육을 추진한다.

②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등과의 관련을 통한 환경교육의 추진과 체험적인 학습을 중시한다.

③ 환경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며, 환경 보전과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적인 태도와 능력을 육성한다.

④ 교원의 양성·연수의 충실 등 교원의 지도력 향상과 자연보호 관계자 등 사회인을 활용한다.

(2) 지역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

① 자연관찰과 야외활동 등 자연을 가까이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② 「자연의 집」 등 환경학습교실의 개최 등으로 다양한 체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③ 대학·기업에 의한 환경문제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④ 다양한 학습 기회에 대하여 정보 제공 체제를 정비한다.

⑤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장려한다. ●

* 사진제공:일본교육신문사



김태훈

·일본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 박사)
·동경도립대학 객원연구원
·현재 국립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및 일본대학 겸임강사

전문대학, 이제 바로 서야 한다

최 돈 민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료
(박사 과정)
· 본원 부연구위원
· 「경북 예천전문대학 설립 방안 연구」 외

1. 서론

“전국 155개 전문대의 원서접수 마감 결과 24만 8천 7백 84명 모집에 1백 47만 9천 1백 42명이 지원, 평균 5.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96학년도 5.09대 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최근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전문대학에 복수 지원 기회를 활용한 수험생들이 대거 몰린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별로는 동아방송전문대학이 19.7대 1, 학과별로는 서일전문대 유아교육과가 9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된 97학년도 전문대학의 입시 경쟁률에 관한 기사이다. 90년대에 들어서 전문대학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모습으로는 이제 전문대학이 자기의 자리를 잡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상당한 문제점과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2. 발전인가, 팽창인가

최근 5년간 전문대학 입학 정원은 무려 56%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4년제 대학의 입시 정원은 36% 증가에 그쳤다. 입학 경쟁률도 매년 높아져 1990년에 2.9대 1에서 1995년에 3.86대 1로 증가하였으며 복수 지원이 대폭 허용된 96학년도부터는 5대 1을 넘어 서고 있다.

전문대학의 돌풍은 사회에서 능력 중시 풍조가 싹트기 시작하였고 산업체의 위탁 교육 확대 등 짜임새 있는 교육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학벌과 간판보다는 기술과 능력, 적성을 찾는 방향으로 수험생 및 학부모의 의식이 정착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전문대학의 인기를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능력·실적주의 직업 사회로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자격증에 의한 능력 평가 사회로 변천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쉬운 전문대학으로의 진학 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 가능 종목은 총 178개로 자동차과의 경우 자동차정비기사 2급, 자동차검사기사 2급, 중기검사기사 2급, 건설기계기사 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중기검사기능사 1급, 일반기계기사 2급, 자동차실기교사 등 9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둘째, 학과의 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취미와 적성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과, 자동차기술과, 자동차서비스과, 자동차시험과, 자동차전자과, 자동차정비과 등 6개 과가 개설되어 있다.

셋째, 4년제 대학이 이른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비하여 전문대학은 기술·실기 중심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 과목은 실습 시간이 총 수업시간의 50%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졸업생의 취업으로 직결되어 순수 취업률이 85%대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실습 의무화, 산업 현장 출신자의 교수 채용, 산업체 점임 교수제도 등을 통하여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이면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표면적으로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하향 취업인 경우가 많고 군미필자가 상당수 있어서 임시 취업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이 동일계 진학의 경우 주간 40% 이상,

야간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동일계열의 학과도 대폭 넓어져 공고 기계과 졸업생이면 전문대학의 기계과뿐만 아니라 전기 또는 전자과까지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공업 고등학교 출신자는 전문대학 진학 시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어서 취업 현장에서 공고생을 모집하기가 점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방편이었으나 산업 인력 구조상 기능공(craftsman)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그 본래의 교육 목적인 중간기술자(technician)뿐만 아니라 기능공 양성까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90년에 개방대학이 6개교였던 것이 '97년에는 18개 대학으로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3학년으로의 편입이 훨씬 넓어졌음을 감안하면 표면적인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는 허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문대학의 지속적인 문호 확대는 4년제 대학과 같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개방대학의 급속한 증가와 전문대학 졸업자의 대학 진학으로 계수상의 취업률은 증가할지 모르나 이는 결국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구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양적인 확대에 앞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국·공립 전문대학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1996년 현재 145개 전문대학 중 8개교가 국립이며 공립 3개교(인천시립, 거창, 남해)를 제외한 나머지 134개교가 사립이다. 학생 정원 비율도 사립 전문대학이 대다수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신설된 전문대학이 24개교로 모두 사립이며 국립은 산업대학으로의 개편 등으로 같은 기간에 13개교에서 11개교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전문대학의 중요성과 인기를 감안한다면 사

90년대 들어 전문대학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상당한 문제점과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대학 교육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립 전문대학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다.

또한 최근에 신설된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설될 전문대학도 대부분 공업계 위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투자가 많은 공업계열 전문대학을 모두 사학이 담당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앞으로 신설될 전문대학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또는 읍·면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서 사학의 설립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국·공립 전문대학은 그 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그 지역 학생들에게 손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역사회의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사립 일변도의 전문대학 증설 원칙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작년부터 8개교의 공립 전문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들 공립 전문대학은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 회계 및 일반 회계에서 각 학교당 120억원이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개교후 연간 소요액의 30% 수준인 1개교당 6억원씩 5년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개교부터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개교후 5년 이후에는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간의 갈등으로 전문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립 전문대학의 재정적 안정책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3.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전문대학은 그 지역의 특성과 발전 계획에 부합되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는 전문대학의 교육 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전문대학을 주축으로 강력히 제시되고 있는데 개방대학 등에 계속교육 과정이 없거나 지역적으로 편재된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에서 졸업생에 대한 계속 교육의 특별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이수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자는 안이다. 이러한 입장은 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술대학의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다. 기술대학은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산업체가 설립 주체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조업 분야의 현장 적응이 가능한 전문기술자(technologist)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 체계의 다원성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1993년 기술대학 설립 방안이 발표되었을 때 기존 전문대학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전문대학들은 기술대학 설립 계획이 전문대학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1996년 2월 9일 발표된 신대학의 설립 방안이다. 이 대학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계속직업교육 과정으로서 산업학사 과정과 전문대학 졸업자를 위한 계속직업교육 과정으로서 학사과정을 두는 2가지

유형이다. 산업학사 과정의 신대학은 고등학교에서 2년간(혹은 3년간)의 직업교육을 받은 후 취업한 고졸자가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고, 학사과정 신대학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취업한 사람 또는 신대학 산업 학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전문대학 과정과 연계된 대학 3~4학년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의 주요 진학 통로인 개방대학의 체제에 대한 위기감으로 확산되어 개방대학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전문대학도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속교육 과정 설치와 정면으로 대치되어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전문대학의 내실화로 양질의 중견 산업 인력 양성 체제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개별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전문가들이 전문대학의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산업체와 같이 해야

전문대학이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관건은 전문대학과 산업체와의 연계 체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산학협동은 산업체가 대학에 연구시설 및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산학협동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중심 교육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수요자인 기업체와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체에서도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교육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대학

도 더 이상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졸업생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에는 정확한 인력 수요 분석에 의한 학과 선정,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 유도, 실험·실습의 강조 등 여러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산학협동을 통하여 산업체를 이용한 실험·실습을 할 수 있고, 산업체는 자신의 필요에 부합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동을 통하여 전문대학과 산업체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에서 도입할 수 있는 산학협동의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특약 학과제의 도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인력수요 판단에 있어 특정 기업체와 직접적으로 또는 가능하다면 계약 형태로 협력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인력수요 규모를 일치하게 하여 졸업후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D 전문대와 Y전문대의 예에서와 같이 기업체와 계약하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위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전문대학에 특별과정(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별 전형으로 산업체 근로자를 학생으로 선발하여 진학을 장려한다.

넷째, 산학협동연구소를 운영한다. 충북의 J전문대가 산학협동을 통하여 광역호출기 개발 등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산학협동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 산학협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연구소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연구소, 식품가공연구소 등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

다섯째, 겸임교수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실기교육과 산학협동의 측면에서 산업체 등 현장에서 근

무하는 고급 인력을 겸임 교수로 활용함으로써 실기교육 및 산학협동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교육부는 1995년 3월 30일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영 및 정부투자 기관 외에 일반기업체 임직원도 국·공·사립 종합대학 및 개방대, 전문대 교수를 겸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과 전문대는 일반 기업체에서 2~3년 이상 연구 경력을 쌓은 임직원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학과의 전임강사급으로, 박사학위소지자나 연구경력 3~5년 이상 자격자는 조교수급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기준으로 겸임교수는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한 충남대를 중심으로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가 모두 1백 55명을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체 연수제도 실시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취업해도 현장 적응을 못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실습해야 하는 등 전문대학 교육이 현장 중심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교수들이 산업체에 연수할 경우 실무 경험과 이론을 접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경남의 K전문대학의 경우 96년 3월부터 8명의 교수를 산업 현장에 보내 연수를 받게 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근속 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산업체에서 이어나 연구원 등으로 1년 동안 상근하며 모든 보수는 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① 전문대학을 산업체 중심 대학으로 특성화하고 ② 현장 경험과 학교 실무교육을 연계할 수 있으며 ③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현장에 제공할 수 있고 ④ 산학 협조 체제로 졸업생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개별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21세기의 수요자 중심의 학교 선택 시대를 대

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산학협동을 위한 각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5. 맺는 말

지금 전문대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문대학 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도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간의 임금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고등교육 진학 희망자보다 입학 정원이 더 많게 되는(현재와 상황이 역전되는)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당한 전문대학이 존립마저 흔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전문대학 교육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

교육의 선택과 경쟁 :

학교선택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각국의 정책 동향

한 유 경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육행정학 박사)
- 본원 연구위원
- 「학교교육비와 교육효과」, 「교직과 임금」,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 외

1. 들어감

교육개혁안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청이 중등학교에 학생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선복수 지원, 후 추첨 선발'로 바꿀 것을 제의하고 있고 이는 금년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교육은 학생, 학부모가 학교 선택권 (School Choice)을 실제로 행사하고 학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을 그 골간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공급자인 학교로부터 수요자인 학부모한테로 이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른바 학교선택권 보장에 관한 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난 10년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OECD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 (1997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공립학교 선택권 확대 원칙을 10대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까지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는 여실히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학교선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 추세를 살펴보고 OECD 각국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 동향을 개관하기로 한다.

2. 학교선택권의 등장 배경과 논의의 전개

[배경]

서구사회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공교육 및 의무교육의 확대와 이에 따른 학교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반발이

있어 왔다. 공교육이 띠는 반강제성, 독점성은 경쟁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공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 현상은 심각한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학력의 저하, 비행 및 폭력학생의 증가, 졸업률의 하락 등 공립학교들이 보이고 있는 '실패현상'을 더 이상 묵과하고는 자라나는 세대의 장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정책가와 이론가는 물론 국민들에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학교선택권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필요에 학교가 보다 예민하게 감응하는 기제, 즉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서도 더욱 주목받게 된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은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교육 즉 공립학교 교육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찬성론]

학교선택권은 시장 신봉론자들인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교선택에 관한 이론가, 특히 경제학자 중에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교육을 완전히 자유시장 기능에 맡기자는 주장을 하는 이가 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공립학교에 대해 어떻게 보상 또는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주장의 요체이다.

공교육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이를 위해 교육비 지불보증제(voucher)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Friedman(1962) 이래 Brookings의 Chubb & Moe(1990)에 이르기 까지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을 자유시장에 내맡기는 나라는 없다. 켈슨은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이스의 아

테네가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Coulson, A., 교육에 있어서의 시장 대 독점, 1996. 주: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아테네에서는 스파르타와 달리 학교 창설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었고 그 결과 소피스트가 출현하고, 아카데미가 가능했으며 모든 현대 학문의 씨앗을 뿌리고 고대 세계의 지적 패권을 구가할 수 있었음)

교육을 자유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대신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을 자유시장은 아니지만, 보다 경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교육의 시장 실패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서비스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교육의 질이나 교육받은 결과의 경제적 효용은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교육을 받은 결과 나타나는 이익(return)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귀속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문맹률이 낮을수록 복잡한 국가시책을 펴기가 쉬워지는 것이 "교육의 사회적 이익"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가령 개인의 교육이득은 적은데 사회가 얻는 이득이 큰, 소위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이 사회입장에서 소망스러운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교육서비스 공급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서 긴티스(Gintis)의 '통제된 경쟁공급이론(regulated competitive delivery)'을 소개 할 필요가 있다. 긴티스에 의하면 학교선택권은 적어도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즉, 1) 경쟁적 공급: 개인기업, 공공기관, 교사단체, 지역주민 누구를 막론하고 학교를 창설할 수 있고, 2) 공공재정 지원: 평가인정된 학교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학생수에 비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며, 3) 평가인정: 공공재원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 시설, 교과과정, 교원, 입학방법, 재정

운영에서 일정한 표준에 도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4) 책무성 : 학교의 성과에 관한 계량적인 지표가 유지 관리되고 또한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함이다.

[반대론]

교육가, 교육전문가, 교육학계 이론가들은 대개 학교선택이론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교육에 관한 결정은 교육가의 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지혜로운 선택(informed choice)을 할 전문적 능력과 식견은 물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의사결정일지라도 학부모는 한순간에 결정해 버리거나 오도된 증거에 의해 결정할 위험이 있으며 그 예로 우리의 일부 공립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원하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택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학교가 경제적, 지리적, 종교적인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가 재정획득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장애아나 학습부적응아와 같이 학비가 많이 드는 학생을 고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부패한 교장들이 자신의 학교를 선택한 부모에게 학비 일부를 리베이트하는 바우처 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3.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각국의 정책동향

학교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2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경쟁을 촉발하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즉 선택 결과와 돈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다음으

로 공급측면에서 다양하고 특화된 학교가 많아야 한다. 양측면을 고려하여, 학교선택권 신장을 위한 선진각국의 정책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비공립학교를 허용하고 나아가 이를 지원하는 정책

OECD 국가 중 사립학교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포함한 비공립학교를 허용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대체로 오랜 공교육 전통을 가진 유럽국가들은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또한 스웨덴은 가정학교교육(home schooling)을 전면 부정하는데 반해 미국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정학교교육을 받은 아동은 1980년대 초의 15,000명에서 1992년에는 350,000명으로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공립학교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도 나라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나 프랑스처럼 공립학교가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는 종교계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사례에서부터 스웨덴처럼 학교특성에 관계없이 학생수에 따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례까지 다양하며, 지원수준에 있어서도 재정지원 규모가 상당한 대신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는 나라(네덜란드), 우리처럼 재정 결함분 만큼만 보조하는 나라(호주), 학생수에 따라 균등하게 보조하는 나라(스웨덴) 등으로 나뉘어 진다. 허용된 자율범위도 다양한데, 프랑스처럼 국가교육과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비공립학교는 상당한 자율을 구가한다. 특히 네덜란드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운영면에서는 지방교육당국으로부터 완전 자율이다. 영국과 뉴질랜드도 이 모델을 따르는 경향이다.

2) 공립학교 부분에서 학생의 취학방법을 자율화하고, 나아가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전통적으로 대부분 OECD 국가에서도 우리처럼 공립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학군(school zone)'이라는 개념이 존재해 왔다. 취학개방정책(open enrollment policy)은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에든 취학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그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에서는 일단 먼저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를 선택하게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어떠한 학교든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과밀학교나 과소학교가 되는 경우 선택을 제한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과밀이 되면 증축을 하는 방법을 써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택권이 상충되는 경우, 우리처럼 통학거리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나 미국의 일부 학구에서는 주거지에 관계없이 완전한 취학 선택권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에 있는 공립학교 선택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주장은 지금까지 등장한 바 없다.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는 두 가지 방안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하나는 학교에 지원하는 자원을 학생수에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액을 학생수에 일정하게 비례하게 하는 방안, 장애아처럼 단위교육비가 많이 드는 학생들을 위해 일정분을 더 지원하는 방안 등이 실제로 이용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치 공립학교가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으며, 영국은 부분적으로, 미국은 아직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취학을 개방하는 정책 하에서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원하는 정책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택권을 보장한다 해서 곧바로 학교들이 다양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학교별 특성화를 허용 또는 장려하거나 극단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까지 있다. 국가표준 커리큘럼 등을 취하고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는 특성화를 허용하는 반면, 다양성이 극단적으로 보장된 미국에서는 거꾸로 국가 교육표준을 설계하는 쪽으로 정책의 축이 바뀌고 있다. 특성화를 장려하는 경우를 보면 영국은 기업에게 중등학교의 기술적 특화를 지원케 하고 그 대신 학교운영상 일정 지분을 인정하고 있다. 다양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로서는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마그넷스쿨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를 특성화 및 다양화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두 가지 유형의 학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마그넷스쿨(Magnet School)은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자발적인 인종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구내에 설치된 공립학교 제도이다. 이 학교는 흥미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교수법 등을 제공하고 연방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여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취학할 학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종적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제도하에서 학교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학교구로부터 상당한 통제를 받으며, 주로 지역사회의 필요나 이익에 기초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제공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대체로 기초기능, 개별화 학습, 수학 및 과학, 영재 프로그램, 언어 및 연극·음악·무용 등이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직업 지향적 훈련 프로그램이 많다.

특허학교(Charter School)는 교원집단,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정부로부터 학교의 설립허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관료적인 규칙과 공립학교 규정 등을 면제받고 학교현장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다. 학교현장은 학교와 지방 교육위원회간의 일종의 협약으로서 교육과정, 교수방법, 운영체제, 인사방침 및 학교 경영 등과 같은 학교운영과 학교가 교육위원회에 책임질 교육성과를 상세화한 것이다. 이 학교는 학교구내에서 학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위원회는 학교가 현장을 준수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재정지원을 한다. 이 제도는 1991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일부 학교에서 실시된 이래 다른 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5년전 1개교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00여개이며 금년 연두교서에서 클린턴은 앞으로 4년간 특허학교를 3,000개교 설립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4) 학교선택을 보다 잘 실현 가능하게 하는

보조 정책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로 하여금 경쟁하고 특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선택과정 그 자체를 촉진할 필요는 여전히 남는다. 특히 선택권을 행사해본 경험이 없는 사회계층에게 선택권 행사를 보조해 줄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아닌 제3자, 주로 정부에 의한 정보제공이 중요한 과제이다. 영국의 경우 개별학교의 성적과 장학평가 결과를 정부가 책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금년 연두교서에서 클린턴이 개별학교 성적표(Report cards on every school)를 출판하거나 인터넷에 실리게 하여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 성적표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급규모,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목 및 프로그램, 자격증별 교사수, 학교안전 기록, 그밖에 미국내의 다른 학교와 비교 가능한 모든 핵심요소를 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학교 선택권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개 학부모는 인근학교에 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인데 뉴질랜드는 학생에게 가장 가까운 학교에 통학하는 교통비를 보조하는 한편,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지 학생들을 통학시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4. 우리에게 시사점

학교 선택권의 보장이 학교성과의 질 제고와 직결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아직은 많지 않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슬기로운 결정(informed decision)을 한다는 증거도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권이 학생유치를 위한 학교간의 경쟁과 교수-학습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객인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이를 실현하는 정책이 선진각국에서 교육개혁의 봄을 타고 보편화되고 있다.

미 하원의장 킹그리치는 19세기 공장같은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 미국교육의 문제라고 일갈했다(To Renew America, 199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 선택권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선택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교육계에 광범하게 퍼져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맞서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제도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학교선택권 논의도 활기를 띠는 것이다. 동시에 효능이 높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교육개혁안 취지에 따라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선택권 보장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차원으로 보다는 보완하는 기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5.31교육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는 학교선택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교육과정 실천 환경 마련과 학사력 개선

새해에는 새학년을 시작해야

홍 후 조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 졸업
- 교육과정(Ph. D.)
- 본원 연구원
- 「제6차 교육과정의 학교 정착을 위한 제도적 모색 I, II」,
-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그 가능성과 한계」의

I. 들어가며

많은 연구와 인력, 비용이 소요되는 거듭된 교육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개선 사례를 찾지 못한 것은 쉽다. 한 반에 다수준의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화목을 때서 추위를 쫓는 난로가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교육 개혁은 외딴 나라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교육 개혁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거듭되는 실패로 정책의 신뢰만 실추시킨다. 교사와 교육 개혁에 대한 연구들(Lortie, 1975; Cuban, 1990; Fullan, 1993)에 따르면 교사들은 아무리 그럴싸한 교육 개혁안도 그것이 자신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나 교육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우, 교실 문을 닫고 난 뒤 무시해 버리고 늘상 해오던 식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교사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 개혁안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절실한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Gitlin & Margonis, 1995)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 개혁안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다(Thornton, 1992). 학교 현장과 교사를 우회한 어떠한 교육 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사의 성장·발전 없는 교육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Stenhouse, 1975).

교육과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듭되는 개정에도 학교의 변화나 학생의 경험의 질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많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새 교과서를 손에 쥐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환경이 양상한 데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일이 거듭됨으로써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할 당사자들조차도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있느냐?” “곧 또 바뀔 터인데 두

교 보자"는 식으로 새 교육과정을 대하게 된다.

왜 그럴까? 그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형식적 완결성에 집착한 나머지, 특수한 환경에 놓인 연구 실험 학교같은 "대표적인" 학교를 제외하곤, 실천 환경이 다른 대다수 학교들에게는 개정 교육과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실효성이 높은 것이 되려면 교육과정이 실천될 현장의 구체적인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식견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메울 수 없는 부분은 열심히 잘 가르쳐 온 교원들의 경험적 실천적 예지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실효성이 높다는 것은 개발자나 실천자에게 있어 공히 실천가능성(practicability)과 이행충실도(fidelity)가 높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와 교원이 학생과 교실의 환경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교사들이 학급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했을 경우를 지칭한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초점과 그 후속 작업 일체는 더욱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에 두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해오던 후속 연구도 필요하나 오히려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제반 '사전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이제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나 새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들에 대한 연구(예, 학사력, 교원의 학교·학년 배치 방법, 교원의 현장 경험과 지에 적극 반영, 교과별 수업 지속 기간 조정 등)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사전 조치 곧 교육과정 실천 환경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더욱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면 학교는 새 학년도에 앞서 모든 교직원들이 모여 계획하고 준비할 기회(lead time)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6차 교육과정부터 학교가 자체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쓰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의 분권화·지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길이어서 크게 환영할 일이고 제7차 교육과정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요구된다. 국가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결정해 오던 교육과정 결정권을 시·도나 시·군·구 그리고 학교 교사에게 분산 이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수준이 그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였다. 학교의 경우 전체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학교의 일년간의 교육 계획을 숙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인다는 전제 아래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교원들이 모두 모여 공동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계획 준비한다는 전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학기제(교육법 시행령 제61조), 학사 일정, 교사 전보 이동 시기에 비추어 어불성설이 된다. 그러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이런 상태로 놔두고 교육과정을 학교와 지역사회와 학생에게 알맞도록 새롭게 변형하여 쓰고, 교사들은 새학년도에 앞서 학교의 프로그램을 주도면밀하게 짜서 운영하라고 주문할 수는 없다.

이 글은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학사력(혹은 학기제, 학사 일정)이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계획 준비하고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바탕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내실있는 학교 교육 추구를 위해 하루 바삐 연구 검토를 거쳐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와 그 대안의 하나를 제시하여 교육과정 실천 환경 정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실천 환경은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사력은 학사 행정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 기본 골격이 된다(이성호, 1987). 학사

력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시간에 관련된 것으로서 수업과 방학의 시기와 길이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시간 자원은 인적 물적 자원 보다 조정 통제하기가 쉽고 관리 여하에 따라 효용성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전성연 외 1994: 16). 이 점에서 현행 초중등의 학사력은 무척 낭비적이고 비효율적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 운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많은 교육 개혁안이 교육 예산을 더 들여야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해 학사력의 조정 운영은 학교와 우리 사회에 귀중한 예산을 절감해 주는 개선안이 된다.

아래에서는 초중등학교의 현행 학사력이 갖고 있는 낭비적이고 모순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개선안이 가져 올 교육적, 사회적 이점을 제시함으로써, 계획되고 준비된 학교의 학사 운영으로 학생과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 보이교자 한다.

2. 현행 학사력의 불합리성과 수업의 부실

현행 학사력은 학교의 준비와 계획의 부재, 그에 따른 수업의 부실 및 학교의 행정적 비능률과 재정적 낭비, 그리고 학교 관련 인사들에게 엄청난 비효율과 부담을 지우는 비효능적 제도이다. 이를 하나씩 짚어 보면 아래와 같다.

(1) 2월 2주간 수업의 부실

2주간의 2월 수업에서 학생은 지난 해 연말에 남긴 단원을 억지로 붙들고 있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자습을 한다.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생 통제를 위하여 학년말 교사를 보고, 교사들은 성적 처리 등 마무리 작업으로 1년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특히 졸업할 학생들은 이미 진로가 확정되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더욱 흐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2월 수업은 매우 부실하여 새해가 되

어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교육적 의지를 소실시키고 학교는 부실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교원의 위신도 추락되는 형편이다. 2월 수업은 부실하고 학습의 계속성, 누적성, 효과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현행 수업이나 교과서의 구성이 연말 이후 40여일을 쉬다가 2주간 수업하는 식은 짜여져 있지 않다. 사기업이라면 이런 비효능적·비효과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2월 수업은 일제 시대 3학기제의 잔존물이다.

(2) 때늦은 교원 전보 이동

공립학교 교사들은 2월 말이나 3월초에 신규 임용, 전보 이동이 되어 자신이 근무할 학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자신이 가르칠 학년, 학급, 학생을 모르고, 새 학년도의 수업 준비나 계획이 덜 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교육과정부터는 단위 학교가 연간 교육 활동을 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3월 초순이 되어야 완료되는 교원의 신규 발령, 전보 이동으로 학교는 계획과 준비도 없이 학생을 맞아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는 현행 교원 전보 이동제 아래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모여서 새 학년도에 앞서 연간 교육 계획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서 벽지로 발령나는 교원들의 경우 방을 구해 이사갈 여유나 자녀를 전학시키는 일 등에 대비를 할 수 없고, 3월 초는 부동산값이 들먹이는 봄 이사철로 박봉의 교사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 준다. 이전에는 교사의 전보 이동에 대한 결정이 소수 장학사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이에 따른 "잡음"이 심하여 새학년도 시작 직전에 발령지를 명함으로써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할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교원들에 대한 내신 자

료들이 전산화되어 있어 비교적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효과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하여 교사의 전보 이동과 신규 발령을 조기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긴 겨울 방학을 이용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짜더라도 교장이 바뀌거나 교사들이 이동하게 되면 새로 짜야하는 일의 중복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

(3) 준비와 계획없는 신학기 시작

현행 학사력과 교사 전보 이동제에 따르면 학교 교원들이 다 모이는 시기는 보통 3월 첫주가 지나야 가능하다. 교원들의 구성이 달라졌으므로 모든 준비를 새로 해야 한다. 학교는 긴 겨울 방학을 허송하고 교사들이 이동하고 새로 출석부를 만들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년과 반배정을 하고, 업무 분장과 환경정리를 하다 보면 3월의 학교는 매우 바쁘고 어수선하여 마치 이사를 오가는 집과 같이 정신이 없다. 공립 학교 교사는 학교간·학교내 잦은 이동으로 개별 학생의 배경, 특기, 문제, 진로 등에 대해 이전 담임과 어떤 진단적 정보를 교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급 학교는 하급 학교의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입생에 대한 진단적 정보를 얻거나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

(4) 설과 겹친 2월 수업의 잦은 중단

2월 2주간의 수업은 부실하기도 하거니와 설 연휴와 겹쳐 올해처럼 개학하고 바로 다시 휴가에 들어가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학사력을 운영하다 보면 1997년부터 2050년까지 앞으로 54년간 약 34개년은 올해처럼 음력 설이 끼여 있어 학교는 자주 수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수업의 연속성, 누적성, 효과성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단절을 피하고 설 명절을 고려한 새 학사력이 요구된다. 2월 수업은 설, 졸업식, 종업

식 등으로 학교 수업의 부실과 낭비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결국 현재 연간 수업 일수가 220일이라고는 하나 2, 3월의 부실한 수업을 고려하면 엄청난 교육적,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계속되는 것이다.

(5) 혹한기의 에너지 낭비

2월 수업은 부실하면서도 혹한기 난방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이다. 기상청 자료(1991)에 의하면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2월 5일에 영하 2.4도이다. 특히 그간 교육 투자의 인색으로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난방 시설도 부실하거니와 건물이 북향, 서향으로 마구 들어앉아 햇볕을 얻기가 어려워 난방과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연료비의 지출은 엄청나다. 어떤 이는 겨울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이므로 난방 시설을 잘해서 겨울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학사력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아직도 많은 학교는 화목·갈탄·조개탄·경유로 난방을 하는 실정이다. 석유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엄청난 연료비 소요와 이에 따른 환경 오염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6) 긴 겨울 방학의 활용 제한

겨울 방학이 40~45일이나 되고 있으나 교원이나 학생들은 학년, 학급 등 어느 하나 정해진 바가 없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새학년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묵은 학년도의 복습이나 마무리로 긴 겨울 방학을 보내는 실정이다. 복습보다 예습이 효과적인 학습과 성취에 더 낫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7)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 의욕의 소실

학생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려

고 하더라도 2월의 부실한 수업과 3월의 준비되지 않은 학교의 운영으로 이러한 열의와 각오는 꺾이고 만다. 현행의 학사력은 지난 학년도를 2월 부실 수업으로 유종의 미로 거두기 보다 구슬을 깨고도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흐지부지 풀어지는 상태이고, 3월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 첫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학년을 맞은 학생들의 학습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열의는 교육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도 우리의 불합리한 학사력은 이를 소진시키고 있다.

(8) 철모르는 새삼스런 졸업식

현재의 졸업식은 대체로 2월 하순에 거행된다. 2, 30년 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적어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교육의 종국을 의미하는 시기에는 졸업식이 개인적으로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에게는 펍 경사스러운 일이 되어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다수가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교육, 계속교육의 시대를 살아 가는 실정으므로 졸업식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 의의도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졸업식은 지난 연말의 흥청망청 들뜬 시기(lame duck period)를 다 보내고 상급 학교 진학 시험과 진학 여부가 판가름이 난 후인 2월 하순에 있어 새삼스럽게 새출발을 해야 할 청소년들을 붙들어 놓고 한 번 더 들뜨게 만들고 있다.

(9) 꽃샘 추위와 어린이들의 새출발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 시기는 3월 초순이다.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에 꽃샘 추위의 시샘이 너무 심한 시기다. 앞으로 10여년 이상 학교에 다닐 아이들의 출발지고는 너무 쌀쌀하지 않은가? 새싹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입학식을 하는 모습은 안스럽기조차 하다. 더구나 초기 학교 적응 기간의 수업이

교실과 학교 주변을 익히는 일로 대부분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으므로 재고가 요청된다.

(10) 학습의 리듬과 봄 빙학

현행 학기제는 1학기 19주, 2학기 17~19주로 되어있다. 대학에 비해 초중등 학생들의 수업 지속 기간이 더 긴 셈이다. 특히 2월 하순 겨울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봄방학 같지 않은 봄방학을 하고 있다. 오히려 긴 학기의 중간에 소풍과 운동회, 학예회 등을 두어 봄방학과 가을 방학의 중간 휴식 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학교들이 외적으로는 크게 2학기제이나 안으로는 학기를 나누어 교원과 학생들이 피로를 풀고 심기 일전하는 중간 휴식 기간(Break)을 두고 있다.

(11) 회계 연도와 학년도의 불일치

정부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학교 관련 학년도나 많은 업무들은 이와는 어긋나게 해를 넘겨 다음 해 2월 말로 되어 있어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교육 계획과 준비를 위한 학사력 개선 방안

위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학사력은 매우 불합리하고 낭비적이어서 비능률과 비효율의 학교 교육 운영을 낳고 있다. 학사력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 고려하여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 학습 효과 극대화: 학습 지속 가능 기간, 교과 내용, 학습 분량, 학습의 리듬, 긴장과 이완의 조절, 학업과 휴식의 조절 등을 고려한다.

- 계절 요인: 실험 실습, 관찰, 소풍, 야외 학습에 유리한 계절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냉난방이 필요한 혹한기와 혹서기를 가급적

피한다.

● 학교의 시설과 설비 : 학교가 계절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 절기 요인 : 새해, 설, 추석, 크리스마스 및 연말, 학교밖 사회와 연계성, 부모들이 설 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의미있는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학생의 날 등을 고려한다.

학사력은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것을 고려하면 그 대안의 학사력은 우선 2월 초중순의 2주간 수업을 없애고, 그 대신 이 기간 만큼 현재의 3월에 붙여, 연간 수업 일수 220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음력 설과 입춘과 우수가 지난 2월 중하순에 새학년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 1학년의 연간 수업 일수를 유치원 180일에 맞추어 200일 정도로 하향 조절하여 꽃샘 추위가 지난 3월 중하순이 적절할 것이다. 각급 학교 졸업식은 학생들이 들뜨기 쉬운 연말 즈음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늦어도 1월 초순에는 교사의 전보 이동, 신규 발령을 마쳐 긴 겨울 방학을 이용해 학교 교원들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새 학년도에 앞서 미리 계획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내실있는 학교 교육의 바탕이 된다고 본다. 긴 학기의 중간이 되는 5월과 10월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축제를 즐길 수 있고 그간의 피로를 회복하는 짧은 방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학년도는 회계연도와 일치하므로 교육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에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준다.

- (1) 2월 2주간 부실 수업의 폐지와 새학년도 시작
2월 수업은 부실하고 학습의 계속성, 누적성,

현행 학사력 (3월 1일~익년 2월 28일)		개정 학사력 (1월 1일~12월 31일)	
		1월 초~2월 중순	[겨울 방학] 교원 연수 새학년도 계획 준비
2월 하순	[봄 방학] 교원 전보이동 신규 발령	2월 중하순 3월 중순	새학년도 시작 유·초등 입학식 [수업 I-1]
3월 초순	새학년도 시작 입학식 [수업 I]	5월 5일 ~5월 15일	봄 축제(어린이, 아버지, 스승의 날 기념) [봄 방학] [수업 I-2]
7월 하순 ~8월 중순	[여름 방학]	7월 하순 ~8월 중순	[여름 방학]
8월 하순	2학기 시작 [수업 II-1]	8월 하순	2학기 시작 [수업 II-1]
		10월 하순	가을 축제(운동회, 소풍, 학예회) [가을 방학] [수업 II-2]
12월 하순 ~2월 초	[겨울 방학]	12월 25일 ~12월 말	졸업식, 종업식 교원 전보 이동
2월 초~2월 중순	2주간 수업 [수업 II-1] 설, 졸업식, 종업식		
12월 하순 ~2월 말	진학 지도	12월 하순 ~2월 말	진학 지도

효과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비효능적·비효과적 수업과 행·재정적 부담을 없애고 보다 실질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 2월의 수업은 폐지하고 연간 수업 일수 220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2월 수업분을 3월에 앞서 새

학년도에 붙여 시행하면 된다. 즉, 입춘과 우수, 설을 지낸 뒤 추위가 훨씬 누그러져 난방비도 적게 드는 2월 중하순 즈음에 새학년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연간 수업 일수 220일이 확보되는 방향이면 지역에 따라 새학년도 시작 시기를 현행과 같이 3월 초로 할 수도 있다.

(2) 교원 전보 이동과 신규 발령의 조기화

새학년에 앞서 모든 교원들이 모여 학교의 연간 교육을 계획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신규 전보 이동을 12월 말이나 1월 초순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들은 새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새로운 임지의 학교와 지역 사회, 맡을 학년과 반 학생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업 계획을 짜고 자료를 개발·준비할 수 있다. 인사 조치로 오가는 교원들 사이에 학교, 학년, 지역 사회, 심지어 학생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필요한 대비를 서로 교환하고 밀린 학교 업무를 긴 겨울 방학의 초기에 실행할 수 있다. 도서 산간 벽지로 발령난 교사들은 미리 이사를 하고, 자녀들의 전학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정적 교직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새학년도 시작 전에 모든 교원이 모여 일년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짜는 일은 이후의 수업 자료 개발, 업무 분장, 자체 연수, 환경 정리 등 모든 준비의 기초가 되고 알찬 학교 운영과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의 바탕이 된다.

(3) 준비와 계획된 신학기 시작

교사의 전보 이동이 늦어도 1월 초에는 끝나 긴 겨울 방학을 이용해 교사들은 새로운 학교, 학년, 학생, 지역 사회 등을 미리 익혀 교원들은 안정적으로 새학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나라가 새학년도에 앞서 긴 방학을 두는 것은 교원들로 하여금 필요한 계획과 준

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필자의 유학 생활 중 교사들이 새학년도에 앞서 교실을 꾸미고 필요한 학습 자료를 마련하고 학생 개인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새학년도 첫날을 마치 오픈 하우스하듯 학생과 학부모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학교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긴 겨울 방학을 새학년도 계획과 준비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허송함으로써 3월에 들어서야 한편으로 부랴부랴 준비하고 한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를 파악해 두고 교실은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꾸미고, 출석부와 학생생활기록부를 준비하고, 새롭게 달라진 교과 내용을 익혀 둔 상태에서 새학년도를 시작할 수는 없을까?

(4) 문화적으로 적합한 학년도

개선된 학사력은 설을 지낸 뒤 2월 중하순에 새학년을 시작하게 되므로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다. 2월 중순에 설이 끼여 있는 해가 드물게 있으나 이 경우 미리 조정하거나 여름과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서양의 학사력은 기독교의 영향 아래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커다란 기점으로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새학년도에 앞서 7월에서 9월 초까지 긴 여름방학을 보낸 뒤 2개월 단위로 2주씩 방학을 한다. 12월 말에서 1월초의 크리스마스 방학, 2월 중순의 겨울 방학, 4월의 부활절 방학, 10월말과 11월 초의 1주간의 투생(제성축일) 방학은 프랑스의 문화를 기초로 한다. 미국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기본적인 수업 길이나 방학은 기독교적인 문화와 절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 학사력도 우리의 문화에 맞게 설과 추석을 고려하여 짜야 한다. 설, 입춘, 우수가 지난 후 2월 중하순에 새학년을 시작하면 적당하다고 본다.

(5) 에너지 절약과 교육 시설 개선

개선된 학사력은 연간 수업 일수 220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 입춘, 우수가 지난 뒤 2월 중하순을 전후해서 개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월 중순이면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지난 3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상으로 접어 든다. 그러나 여전히 난방이 요구되지만 보다 적은 양으로 짧은 시간을 난방하므로 여기서 절약되는 난방비를 이용해 낙후된 화장실, 난방 시설, 식수와 급식 시설, 책걸상 교체, 강당, 체육관 신설 등 시급한 교육 여건 개선으로 들릴 수도 있다. 많은 교육 개혁안이 돈드는 일을 주장하나 학사력의 손질은 오히려 돈을 절약하고 학교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6) 긴 겨울 방학의 선용 가능

새학년도를 앞두고 40여일의 방학을 뚜렷한 목표를 두고 선용할 수 있다. 교원들은 새학년도의 계획과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과 준비, 각종 연수, 학술 강연, 대학원 수강, 자기 연구 등을 단절됨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새 학년도에 앞서 상당한 준비 기간이 확보되고 교사의 전보 이동이 완료되어야 학교는 특활, 방과후 활동 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새해 새학년을 맞아 미리 연습을 할 수 있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긴 방학을 선용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학습 결손 누적분을 만회할 수 있다. 또 새로 학생들을 맡을 교사들은 학생들이 한 겨울 방학 숙제를 새학년도 수업을 위한 진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새로운 학습 의욕의 강화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를 소진시키는 학사력은 불합리하다. 새술은 새부

대에 담아야 하듯 학생들은 새해를 맞아 새학년의 새 각오를 지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 해의 부진과 어려움은 새해를 맞아 훌훌 털고 일어나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학사력을 고쳐 학교가 학생들의 새각오를 담아내도록 배려해야 한다.

(8) 평생교육 아래서의 졸업식

평생교육, 계속교육의 시대에 걸맞게 졸업식은 행해져야 한다. 학년도를 12월 말로 마치는 데 따라 졸업식은 마땅히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 사이에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 치루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 청소년들이 졸업과 연말에 들뜨고 흥청망청 기분 내는 것도 잠시뿐 곧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맞을 것이기 때문에 졸업식은 해를 넘겨 새삼스레 치루는 것보다 연말에 치루는 것이 훨씬 좋다. 졸업생의 진학 지도를 염려할 수도 있으나, 전보 이동해 갈 교사가 아닌 이들 중에서 3학년 담임을 맡으면 현재와 같이 상급 학교 입학 때까지 문제없이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9) 어린이들의 새출발을 따스하게

유치원의 연간 수업 일수가 180일임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고학년과 같은 220일 보다는 유치원과 비슷하게 200일 정도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날씨가 훨씬 따스해진 3월 중순이나 4월 초순이 첫출발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입학 선물이 될 것으로 본다.

(10) 학습의 리듬과 아동 존중과 스승 존경의 풍토

한 학기가 19주 동안 지속되는 것은 지나치게 길며, 상식적으로도 초등생이 대학생보다 체력적으로나 발달 심리적으로 더 길게 인내하며 수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선안은 이런 불합리성

을 고치고,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어우러진 곳을 감안하여 5월 어린이·어버이·스승의 날이 든 시기를 학교 구성원 전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행사와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0월에도 학예회, 소풍, 운동회를 열어 긴 학기를 반분하여 그간의 피로를 풀고 잠깐 쉬므로써 학생과 교원이 활력을 회복하는 중간 방학으로 삼는다. 연간 34주를 학생들의 학습 심리, 발달 단계, 절기와 명절 등을 고려하여 수업 지속 기간을 적정화해야 한다.

위 논의를 종합 정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학사력의 문제점	개정 학사력의 조정 방향
1. 2월 2주간 수업의 부실	○ 교사 전보 발령, 졸업식은 12월 말에 마칩
2. 때늦은 교원 전보 이동	○ 부실한 2월 수업 폐지
3. 준비와 계획없는 신학기 시작	○ 겨울방학에 새학년 교육 계획 준비 가능
4. 설과 접친 2월 수업의 잦은 중단	○ 학생, 학사 업무 인수인계
5. 휴학기의 연료 낭비	○ 학생 학습 의욕 선용
6. 겨울 방학의 선용 제한	○ 새학년도는 설 지내고 2월 중하순에 시작
7. 학생 학습 의욕 소실	○ 유치원 초등 1학년 입학식은 3월 중순
8. 뒤늦은 새삼스런 졸업식	○ 긴장과 이완, 수업과 휴식의 조화
9. 꽃샘 추위와 어린이들의 새출발	○ 5월과 10월의 축제와 학기 중간 방학
10. 학습의 리듬과 학교 구성원 무시	○ 난방비 절감과 교육 시설 투자
11. 회계 연도와 학년도의 불일치	○ 학년도와 회계연도 일치
12. 일제 3학기제 잔재 미청산	○ 우리 역사, 문화, 계절에 맞는 학사력 필요

4. 나오며 : 9월 새학년도 시작안의 부적절성

현재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학사력을 서양에 맞추어 9월부터 1학기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고칠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양 여러 나라의 9월 신학기제는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그들 나름의 합리적이고 문화 맥락적인 산물이다. 즉,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이 학사력 작성의 기본 마디가 된다. 물론, 농경 사회의 농번기와 농한기의 전통이 여전히 계속되어 오늘날 여름 휴가철을 길게 갖고 학교로서는 새학년도 전에 긴 준비 기간으로 여름 방학을 길게 잡고 있다. 또한 부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난방 시설이 철저히 잘 되어 있어 겨울에 공부하는 데에도 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학사력 또한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 역사와 문화와 계절의 산물이다. 즉, 우리는 새봄을 무엇보다 시작의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휴서기와 휴한기를 방학으로 쉬도록 배려하고, 양력 새해와 음력 설과 가을 추석을 학사력 작성의 주요한 마디로 쓰고 있다. 더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휴학기의 우리나라는 미비한 난방 시설로 대다수의 학교가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장차에도 난방 시설을 잘 갖추고 연료를 아낌없이 때가며 공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3월의 신학기를 9월로 이전하는 데서 오는 졸업생, 진학생, 진급생, 취업생 등의 혼란된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9월에 신학기를 해오던 북한이 실정에 맞지 않아 4월로 신학기를 옮겨 시작한 점도 통일을 바라보며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 교육통계연구특임본부 ●



교육현상을 통계학적 ·
정보공학적으로
분석, 보급하여
교육의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

교육통계연구특임본부는 신뢰로운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교육통계 지원기지이다.
정책회 본부장을 중심으로
각종 교육통계, 지표, 의견을 조사, 연구,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육통계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NEWS

학교발전연구본부

* 영재교육 자료개발팀의 김주훈 박사는 1997년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스라엘 외무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과학과 기술교육(Education for Science & Technology)'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18개국에서 모두 28인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의 목적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교육의 역할과 위치 분석, 과학과 기술 지도에 관한 방법과 도구 그리고 개념의 습득이며 주요 내용은 21세기에 대비하여 과학과 기술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정보 교환, 이스라엘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전문가들의 특강이 있었다.

* 교육공학연구팀 강숙희 박사는 지난 1월 20일에서 25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5차 APEC 인력개발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수행중인 '학교에서의 컴퓨터 통신 활용 국제 조사 연구'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였다.

* 영재교육 기초연구팀의 조석희 박사는 지난 2월 15일에서 22일까지 민족사관고등학교 후원으로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현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왔다.

* 학교발전연구본부에서는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1996년도 연구보고서 9종 및 검사 도구 4종을 발간하였다. 이를 특별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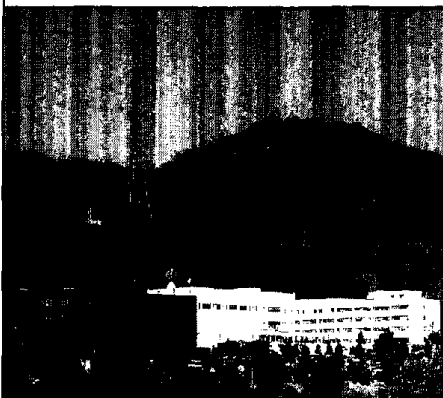
○ 새학교연구팀

『새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 방안 탐색』-기존의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의 조건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과 학교의 개념, 교육 개혁안에 포함된 학교 개혁 방안, 외국의 학교 교육 혁신사례, 대안 교육의 논의와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를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 교육혁신팀

『열린교육 현장연구』-학교 현장 혁신 사례 중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 열린 교육에 관한 개념 정의, 이론적 배경, 수업 방법, 평가, 특별활동, 시설, 효과 등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 사례집(I)』-전국 256개 시·군 교육청



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2,000여 종의 교육 혁신 사례를 수집하여 그 중 현장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 19개 사례를 열린 교육, 인성 교육, 직업진로 교육,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 표준화 검사 개발팀

지난 '95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초등학생용 적성 검사 2종과 중학생용 적성 검사 2종을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나 진로 지도시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특수교육연구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개선 방안』-'96년도 국가정책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특히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졸업 후의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 유아교육팀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연구』-공교육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이론적 탐색, 국내외 유치원 교육의 현황 분석, 유치원 교육에 관한 국민의식과 요구 조사를 통해 공교육의 확대를 위한 당위성, 발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재정 소요를 추정하였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한 기술 양식 개발 연구』-서울시가 의뢰한 '유치원 생활기록부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술 양식을 개발하였다.

○ 영재교육팀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교사용 연수 자료』-영재성의 정의, 판별 방법, 영재의 교수-학습 방법, 심화와 속진 교육 방법, 교사와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영재를 위한 심화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초·중·고등학교 생용 교과별(국어, 사회, 수학, 과학) 프로그램 13편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올해 대행 출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과학 영재 판별도구 개발 연구(I)』, 『수학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연구(I)』-'96~'97년 2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기초 연구편으로 과학과 수학의 영재성, 영재 판별 절차,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도구(시안)의 현장 적용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체제 개발 연구』-민족사관고등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97년도 민족사관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

로 시도된 영재 선발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교육과정연구본부

* 허경철 수석연구위원은 영국의 School Curriculum and Assessment의 초청으로 영국의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회의의 자문을 위하여 '97년 2월 26일 출국하였다.

* 교육과정 총론 연구팀은 1997년 1월 15일(수) 14시부터 17시까지 교육부 상황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각론 연구·개발 책임자 협의회'에 참가하였다. 교육부가 주최한 이 협의회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96. 3. 19)에 의거,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본교과와 전문 교과, 선택과목 및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교육내용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연구 개발하여 제7차 교육과정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협의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많은 과제별 연구개발 기관 책임자들이 참가를 하였다. 본원에서는 각 교과의 연구개발 책임자들인 박병선 부원장, 최진황, 장석민, 이근님, 이인제,

구자역, 박순경, 조미혜, 박소영 연구원 등이 참가를 하였다. 협의회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제별 연구개발 책임자들과 교육부 업무담당자들의 소개가 있었고 연이어 업무담당 연구관의 '각론 연구개발 업무 추진계획' 설명 및 행정사항 안내가 있었다. 그 다음 한국교육개발원 측에서 '각론 연구개발의 일반 지침(안)' 설명과 아울러 이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가 끝난 후에는 각 과제별로 업무 협의회가 열려 각각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국고 보조금 신청서 작성, 교과별 각론 개발 지침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교육정책연구본부

* 교원정책연구팀에서는 "교원 인사제도 국제비교 연구"의 연구 내용 상세화 및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협의회를 원내·외 전문가와 2월 18일, 본원 제2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서울시 교육청의 위촉과제로 수행중인 "서울시 초·중등학교 및 지역 교육청 평가" 연구팀은 2월 11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 9인과 본원의 연구진 8인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추진 경과 보고 및 학교평가 영역 및 방향에 대한 교육청의 각 담당부서별 의견 제시, 지역 교육청 평가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조정실

* '97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본원 제1회의실에서 이돈희 원장, 박병선 심의위원장, 심의위원 및 관계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연구 실행 계획서'에 관한 심의회가 개최되었다. '97년도에 수행될 본원의 기본 연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

-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지원 연구」
- 「교육현장 혁신 연구」
- 「고등학생용 적성검사 개발 연구」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방안 연구」
- 「영재교육의 활성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 2」
- 「교과교육학 기초연구 2」
- 「유아 체육놀이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 「국가 수준의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 1-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중심으로」
-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1945~55년도)(2차년도)」
- 「근대학교 교육 백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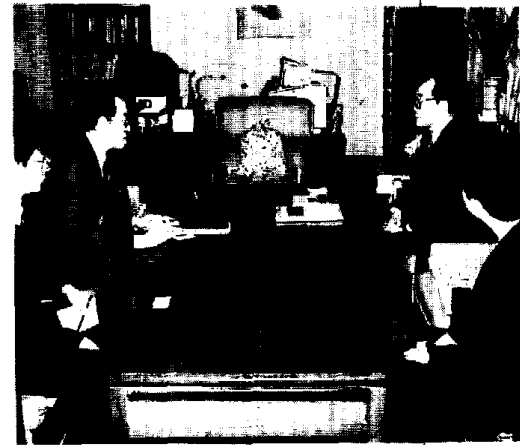
- 「한국교육 비전 2020-미래 지식 정보사회의 교육체제 연구」
- 「사립 유치원 기관 평가 준거에 관한 연구」
- 「학교·학급 규모 적정화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 대책 연구」
- 「교원 인사제도 국제 비교 연구」
- 「민족 통합을 위한 교육 대책 연구」
- 「사회교육기관 평가 인정 제도 도입 실시 방안 연구」
- 「한국의 교육좌표 연구」
- 「교육통계정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초 연구」
- 「교육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교육통계 연보 시범 발간 사업」

* 「교육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및 기대 효과의 검토, 수정 보완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97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제2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교육 투자의 효율화 방향", "교육재정 배분제도 개선 방안", "단위 교육기관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 "교육재정 운용 평가체제 개발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캐나다 알버타 주 교육청의 교육 과정 개발 담당관인 Mr. Keith Wagner가 '96년 12월 30일 자료수집차 본원을 방문하여 성일제 학교발전연구본부장과 한국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 '97년 2월 23일 교육부 신임 정상환 교육정책기획국장 및 담당직원이 본원을 내방하여 이돈희 원장을 비롯한 본부장 등 간부진들과 상견례 및 업무협의를 하였다.



국제연구협력실

* 본원 이돈희 원장은 태국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의 초청으로 한국의 교육개혁에 관한 기초 연설과 자문을 위해 '97년 2월 11일 출국하였다.

* 성경희 국제연구협력실장은 '96년 12월 12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음악협회가 주최한 수상식에서 음악교육 부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음악상을 수상했다.

* '97년 2월 11일 OECD의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담당자인 Mr. Noberto(담당국장)와 Mr. Andreas Schleicher(실무책임관)가 본원을 방문하여 INES 사업 국내 지정기관으로서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및 향후 참여 방안을 협의하였다.

* 중국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고급행정학원 부원장 Mr. Gao Juhui 등 4명이 '96. 12. 27일 본원을 방문하여 이돈희 원장과 한국의 고등 교육 개혁 정책 발전 계획

* 일본 나고야 대학교의 국제비교연구학 교수인 Mr. Toru Umakoshi가 '97년 2월 12일 본원을 방문하여 광병선 부원장과 한국의 교육개혁과 제 6, 7차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에 관한 논의를 하고, 한·일 양국의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과 관련된 정보 교환 및 일본 나고야대학 다문화교육 강좌의 교류관계를 협의하였다.

* 영국 Bath 대학교의 Hugh Lauder외 2명이 한국의 경제발

전에 미친 교육의 기여도에 관한 자료수집차 '97년 3월 9일~3월 14일까지 본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 OFSTED의 Mr. C. Davis, Ms. C. Agambar 장학사가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97년 3월 17일~22일까지 본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정보자료실

* 전산운영팀에서는 1월 15일 이돈희 원장을 비롯한 본원 직원들의 참석하에 "KEDI 홈페이지 개통식 및 사용법 안내 연수"를 가졌다.

KEDI 홈페이지는 크게 외부공개용 홈페이지와 본원 직원을 위한 원내용 KEDI 인트라넷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었다.

외부공개용 KEDI 홈페이지의 주소(URL)는 www.kedi.re.kr이며, 한글판과 영문판 두개의 버전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원의 설립목적, 조직 및 기구 등 KEDI 소개
- 본원 도서실 소장 자료 및 연구물과 일반 정보의 전자도서관
- 자료의 다운/업 로딩이 가능한 전자게시판
- 국내외 검색엔진을 소개한 웹

사이트

- 교육정보연구팀에서 개발한 한국의 교육지표(1995년도분)
 - 교육정보연구팀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자연과학 DB
 -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에서 개발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정보
 - 한국(열린)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열린교육
- 사용자를 본원 직원으로 제한한 KEDI 인트라넷은 본원 공지사항, 모든 직원의 주소를 소개한 메일링리스트, 연구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유게시판, 교육관련 웹사이트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KEDI 홈페이지에 추가하였다.
- KEDI 홈페이지 개통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후 연수 및 교재를 활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

* 1월 28일과 2월 5일 양일에

걸쳐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 배가운동을 위한 간담회를 동래고 등 전국 8개 방송통신고교에서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본 연구본부 연구원과 학교장, 교감, 방송통신 부장교사, 동창회 임원진, 재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제안된 중요한 의견으로는 중앙 및 지방의 매스컴을 통한 홍보, 재학생과 동창회원들이 직접 배가운동에 참여하는 일, 지방 관청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계획이 제시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개교한 이래, 1987년에는 전국 50개교에서 48,067명의 학생이 수학했으나, 그후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고, 몇년간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형편이다.

* 2월 11일 연구동 501호에서 '97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요람 제작을 위한 협의회가 이찬



회 본부장의 교육부 관계자 3인, EBS 관계자 3인, 서울지역 방송통신고 부장교사 7인등 24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97학년도 방송강의 시수조정에 관한 협의와 관계된 사항, '97학년도 교과서 개발 및 보급 계획에 관한 협의, 신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토의였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중 일부가 개정 공포되었다. 교육부령 제 683호('96. 5. 9)에 의거한 이 기준령은 '97학년도 입학생부터 방송강의 시간을 당초 연간 280일에서 220일로, 연간 출석수업일수는 26일에서 20일로, 수업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개정은 재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막기 위한 배려의 일환이며, EBS 토요방송 강의 청취를 권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EBS 토요방송은 청소년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교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교양프로이다.

* 2월 16일 전국 42개 방송통신고등학교 제 20회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3년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일하면서 공부해온 19세에서 69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인



3,772명의 성인 남녀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그동안 157,53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저학력 인구의 학력향상은 물론 대학진학의 길을 열어주었다. 방송통신고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학생수는 35,700여명이며 그 중에 24,222명은 방송대학에 진학했다.

이번 방송통신고 졸업자중 전남여고 부설 방통고 졸업생인 69세의 김은순여사가 신문 방송에 소개되어 후학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다.

직업기술교육특임본부

* 직업기술교육특임본부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고 「2·1체제」를 1994년 이래 금년까지 4년째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6년도에는 전문교과서 32책, 영상 자료 5편을 개발한 바 있으며, '97년 3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그 배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자료들은 공고 「2·1체제」 교육과정의 주요 특성인 이론과 실기를 통합·운영하는데에 필수적인 것들로 학교현장에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외에 직업기술교육특임본부에서는 홍보 및 연수 사업, 시범학교 및 산업체 운영, 공고 「2·1체제」 졸업생 현장 적응 실태 조사, 공고 지적과 교과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3월에는 '공고 「2·1체제」 사업 홍보 및 산업체용 전문 교과서 집필 체제 및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숍', '전기과·전자과·전자계산기과 영상 자료 개발을 위한 협의회', '실업계 고교 지적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개발을 위한 협의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4월에는 '공고 「2·1체제」 32개 전문교과서 집필을 위한 워크숍 및 집필 세목 검토 협의회', '공고 「2·1체제」 시범연구 관계자 운영 협의회', '공고 「2·1체제」 운영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단 및 자문단 협의회', '공고 「2·1체제」 운영 효과성 증대를 위한 DB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등이 열린다. 또한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통계연구특임본부

* 1995~96년 2개년 동안 한국전산원의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초등학교 MALSM(멀티미디어 교수학습DB) 개발발표회 및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교사들

이 제작한 html 수업안 공모전 시상식을 2월 27일 14 ~ 17시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대상작은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우수상 4편은 교육개발원장상 외 공모전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전산원장 및 삼보컴퓨터사장상이 수여되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초등학교 과학수업 개선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LSM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kedi.re.kr/~keis> 이며, 한국교육개발원의 홈페이지(<http://www.kedi.re.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1996년판 자료집에서 지면 제약상 실리지 못한 지표 산출에 활용된 원시자료가 각 연도별로 디스켓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모든 자료는 웹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의 교육지표 1996』 보고서는 교보문고 및 본원 도서실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본원이 1995년부터 교육부로부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기능을 수임받게 됨에 따라,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다. 시스템 개발사업자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농심데이터시스템」이 선정되었으며, 교육통계DB팀이 교육부 조사통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1998년 이후부터는 교육통계연보의 발간이 DB의 출력물로 체계화될 것이며, 연구자 및 행정가들을 위한 각종 교육통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교단 지원 자료 발간·배부

'97년 3월에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교사용 형성평가 자료집 「수업의 결과를 알아봅시다」를 발간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초등학교 및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다. '96년도에는 초등학교 2학년용이 발간 보급되어 일선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자료는 교육 평가가 교수-학습 활동 개선에 직접 도움을 주도록 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 문항을 4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자연)에 걸쳐 차시별로 구성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교육 발전을 위한 전문직 역할 연구의 일환으로 「교과장학의 이론과 실제」를 '96년 12월에 각급 학교, 교육 전문직 및 유관 기관에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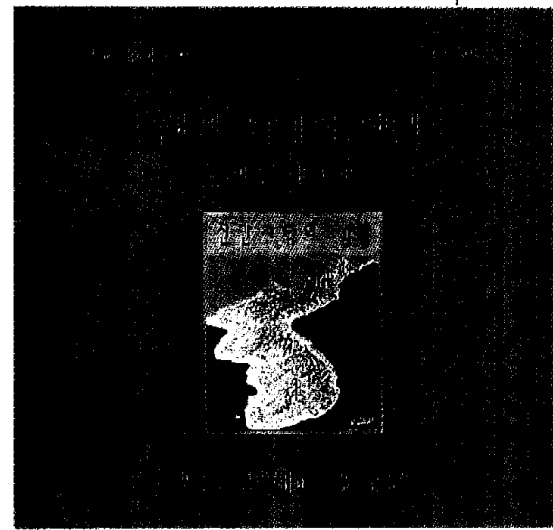
교육 전문직의 역할 제고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개

발된 이 자료는 교과 장학의 기초, 교과 장학의 체제, 교과 장학의 운영 등 이론적 틀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사회, 과학과 교과 장학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교육 전문직의 역할이 행정·경영·지도성 위주의 장학에서 교과지도 위주의 장학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교과 장학의 개념과 과업, 교과 장학 담당자의 자질 및 직무, 바람직한 교과 장학 담당 교육 전문직의 직제, 교과별 교과 장학의 실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우수 교육 자료 보급

'97년 2월에 '96 교육 자료전 입상 작품 중 우수 자료 3점을 수정·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초·중학교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였다.

이 자료들의 특징을 보면, 「산간 지역의 생활」(초등학교 사회과)은 컴퓨터 보조 학습 자료가



며, 「생물과 환경」(초등학교 자연과 VTR 자료)은 생물의 실제 모습을 영상화한 자료이고, 「판화 실기」(중학교 미술과 VTR 자료)는 판화의 제작 과정을 종류별로 상세히 영상화한 작품이다.

□ 교원 연수 도서 발간 배부

'96년 12월에 교원 연수 도서 「수업 모형의 이론과 적용」을 발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에 배부하였다. 이 자료는 강의 수업, 탐구 수업, 토의 수업, 역할놀이 수업 모형의 기초 이론과 초·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중·고등학교의 교실 현장에서 교수-학습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목별로 수업 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열린 교육』 구현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

21세기에는 수십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화 교육을 통한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제발하고, 창의력 신장 교육을 통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며, 자아 실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서 『열린 교육』 구현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열린 교육』 구현을 위한 교단지원 자료로서,

- 부산교육총서 제17집「진로·상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발간하여 관내 초·중·고 전 교원에게 배부함으로써 올바른 진로 선택과 인간 교육을 통한 교육개혁 방안의 현장 적용의 효과를 높이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 부산교육지(4·6배판, 200쪽 계간)의 기획 공모 원고 주제를
 - ①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방안과 실제(제281호)

② 방과후 교육 활동의 실제(제282호)

③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방안과 실제(제283호)

④ 효과적인 환경 교육의 방안과 실제

등 4개로 정하고 교단 현장 연구 실천기를 공모·게재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연구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교육연구원

□ 양호교사 심성수련 실시

양호교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1월 10일까지 지역 상담실에서 초, 중, 고 양호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심성수련을 실시하였다.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모집

'97년도 제11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다.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진로교육부에서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모집 예정 인원은 80명이다.

□ 인천 카운슬러 총회 및 연찬회 개최

진로상담교사와 카운슬러의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97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수안보에서 인천 카운슬러 총회겸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수 내용은 상담전문가의 특강과 현장 중심의 사례발표, 소그룹별 상담기법 실습, 레크레이션지도기법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고 참가대상은 중, 고 진로상담교사 및 인천 카운슬러협회 회원으로 100명이 참가하였다.

□ 초, 중등교사 컴퓨터 연수 실시
'96년 12월 18일~'97년 1월 17일까지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컴퓨터 연수(심화과정 164명, 전문과정 41명)를 실시하였다.

심화과정에서는 윈도우즈, 컴퓨터 통신 교육, 멀티미디어 활용교육, 문서 처리, 자료 처리 교육 등 학교 컴퓨터 교육과 학교 업무 전산화에 관한 내용을, 전문과정에서는 주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컴퓨터 이용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였다.

□ 「인천 교육망」 개설 운영

일선 학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용 회선(60 USER용)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인 「인천교육망」을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에는 연구, 시범, 실험학교 운영자료, 시청각자료, 진로교육자료, 교육연구자료, 멀티미디어교육자료, 인천 교육소식, 전자우편 등의 교육정보를 수록하여 '97년 3월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 '97 교육자료 전시회 개최

'97 제17회 인천시 교육자료 전시회 개최 계획에 총 184편의 출판계획서가 응모하여 174편이

입선되었으며 계획서 입선작에 대하여는 1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자료 제작의 방향과 자료제작 방법 및 '96년도 제27회 전국 교육자료전 출판작에 대한 VTR 상영 등의 연수를 마쳤으며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교육자료 작품설명서 제출 : '97. 6. 16
- 작품 심사 : '97. 7. 2
- 전시 및 관람 : '97. 7. 3 ~ 7. 9
- 시상 : '97. 7. 10

□ 초등 교사 자연과 실험연수 실시
'96. 12. 17 ~ '97. 1. 2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교사 319명(3기 160명, 4기 159명)을 대상으로 자연과 실험 연수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자연과 내용 중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별로 실험상의 오류나 과학 실험·실습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중등 주임교사 일반연수 실시

지난 '96. 12. 16 ~ '96. 12. 30(10일간)에 중등 주임교사 8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국가관 확립, 시대적 사명감 고취,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제고, 교육의 민주화, 자율

화 실현의지 등 주임교사의 자질 향상과 책임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일반 연수를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

□ 「인성지도 자료」 발간·보급

이 자료집은 인성 형성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개인, 가정, 이웃, 학교 및 사회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서 기본생활습관, 자아확립, 효도·경애, 공동체 의식의 4개 영역에 걸쳐 21개 덕목에 관한 생활실태를 파악, 이를 정리·분석하는 등 인성 교육의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 구성면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험과 실천을 위주로 구성하여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느끼고, 보여주고, 체험하는 단계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일선 학교에서 이 자료집을 활용한다면 인성지도의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인간적이고 학생중심적인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우리 고장 한발 학습자료집」 발간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시간 및 현장 학습, 책가방 없는 날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 체험 중심,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이 자료집은 대전 지역의 주요 문화재, 기관, 시설, 자연 환경(산, 하천)등을 교육자료화하였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관련 학습 유형, 자료의 개관, 학습활동 내용요소, 이용 교통 수단과 소요 시간, 연계학습 코스, 자료접근에 따른 유의점, 자료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협조공문, 현장학습 계획서, 프로그램 작성 예시), 학습 활동 안내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향토 현장 학습 길잡이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6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 일반화 자료집」 발간

'96. 12. 30일에 교육부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 일반화 자료집 제7호를 발간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와 각 시·도 교육 유관 기관에 배부하였다.

교육의 질 개선과 당면한 교육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은 이를 실시하는 해당학교(기관)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걸쳐 교육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1996학년도에 교육부 지정 5개교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정 10개교의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그 중 14개교가 공개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자료집은 운영 결과의 보고 내용 중 일반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각 시·도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를 참관한 연구사 및 장학사의 참관 요약서를 수록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풀고 나누는 기쁨」 발간·보급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지난 '96년 12월 30일자로 발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와 상담 봉사자 및 유관 기관 그리고 전국 교육연구원에 배부하였다.

내용으로는 인성교육과 집단 상담의 이론, 인성개발 프로그램 44편, 진로상담 프로그램 9편, 성교육 프로그램 6편 등 59편의 프로그램이 실려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집단상담 교재로 많은

활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열린 마음 바른 선택」 발간 보급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 지도와 진로 지도에 기여한 체험을 진솔하게 기록한 글을 모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활동 사례집(제9집)을 발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와 상담자원 봉사자 및 유관 기관에 배부하였다.

상담 자원봉사자로서의 고충과 보람을 꾸밈없이 표현한 이 사례집을 통해 학생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강원도 교육연구원

□ 강원도 교육자료관 설치 가속화
강원도 교육청이 주관하고 강원도 교육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자료관 설치가 강원도 교육문화회관 신축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자료관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에 설립되는 강원도 교육문화회관내에 전시실 265평과 부대시설 76평, 총 341평의 규모로 설치된다.

완공은 '97년말로 계획되어 있으며, 완공된 후에는 강원도 전역에서 수집된 교육자료들이 전시·보존되며 교육의 변천 과정

을 이해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 기증자료 접수처 :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자료실
(전화 0361-52-5733)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96 현장 연구 결과 일반화 자료집」 발간·보급

충북 교육연구원에서는 학습자의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계발시키고, 자아 실현을 극대화시켜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96년 현장연구원제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 교육의 혁신을 위해 신사고적 발상과 창의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생활지도, 특별활동, 진로지도 등의 영역에 30명의 현장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모아 「'96 현장 연구 결과 일반화 자료집」 700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다.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한 이 자료집은 교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픔을 이겨낸 사람 이야기」 발간 보급

21세기의 주역이 될 오늘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선진 문화의 유입으로 정신적 위기와 갈등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상담교사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우수 상담사례 40편을 모아 「아픔을 이겨낸 사랑 이야기」 700부를 발간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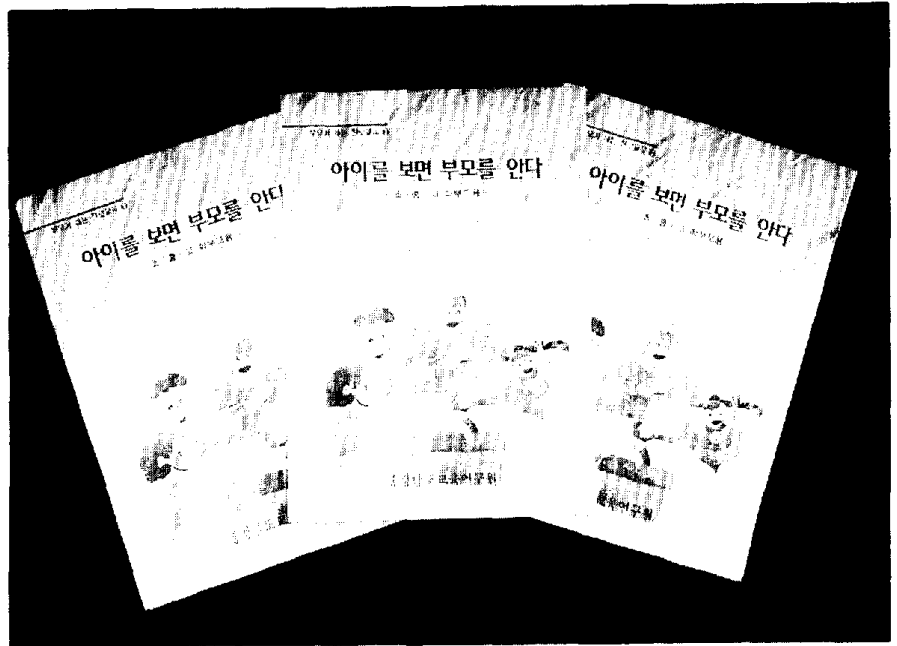
본 자료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생활지도의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어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97 중학교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실시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급 편성과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업 성취도 진단평가를 '97년 2월 14일 중학교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산수, 사회, 자연과의 교육 과정에서 사고력, 탐구력 중심의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145개(국어, 사회, 자연 각 40문항, 산수 25문항)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97 중학교 신입생 학업성취도 진단평가는 각 중학교의 진단평가 출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급 편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초·중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충청남도 교육연구원

학부모 진로교육 자료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안다」 발간·보급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학부모 진로교육 자료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안다」를 30,000부 발간하여 도내 초, 중, 고교 및 유관 기관에 보급하였다.

이 자료는 4.6배판 31쪽 분량으로 부모 입장에서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살아갈 미래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길에 따른 준비를 언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의 진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방법, 그리고 가정학습지도, 생활지도의 다양한 내용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중2 학습용 「CD-ROM 타이틀」 제작 보급

본 소프트웨어 학습자료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과 창의력 개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96학년도 중학교 2학년 TP 자료(국어, 수학, 사회(국사), 과학, 영어)를 CD-ROM으로 제작한 것으로 현장 교육에 많이 활용되어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3·4학년 1학기용 「확인 학습 자료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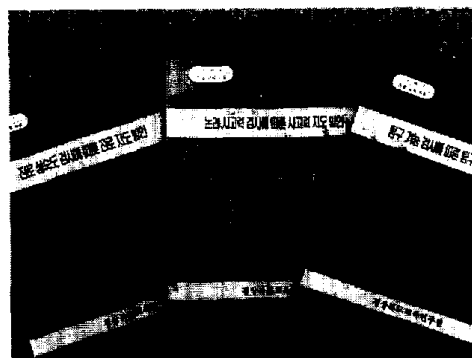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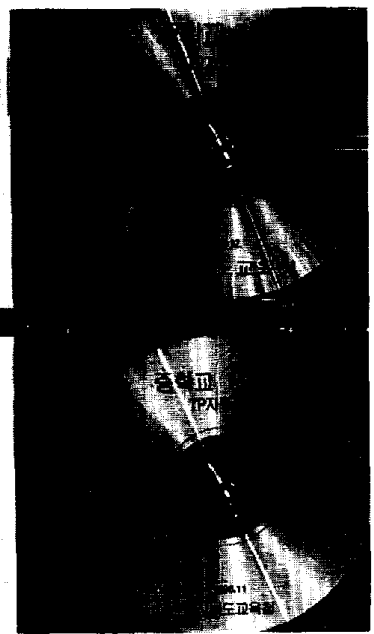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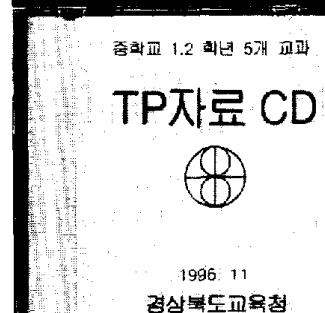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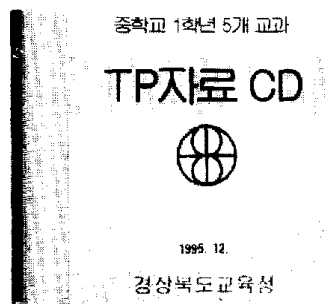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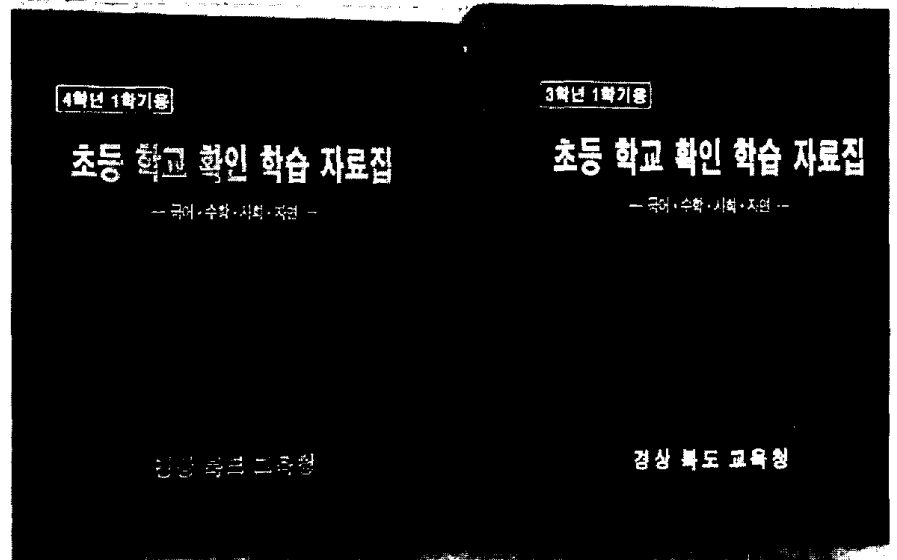
초등학교 3·4학년이 '97학년도 신학기부터 활용할 1학기용 확인 학습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3·4학년 국어·수학·사회·자연 4개 교과별로 매 시간 학습 목표 도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필과 실기 평가로 구분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용이하고 A4용지에 복사할 수 있게 바인더에 철하도록 제작하였다.

「표준화 심리검사 결과 지도 방안」 발간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에서는 표준화 심리검사를 '96. 5. 27 ~ 5. 31에 실시하였다.

탐구 기능 검사(초등학교 4학



년), 논리적 사고력 검사(중학교 1학년), 진로 성숙도 검사(고등학교 1학년)의 결과에 따른 개인별 결과표가 본인에게 통지되었고 이에 따른 지도 방안의 일환으로 참고가 될 지침서를 학교급별로 3종(초등학교-탐구기능검사에 따른 탐구능력 지도 방안, 중학교 논리적 사고력 검사에 따른 사고력 지도 방안, 고등학교-진로 성숙도 검사에 따른 진로지도 방안)을 발간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였다.

경상남도 교육연구원

□ 「재미나는 창의력 학습」 발간·보급

‘열린 학습·재미나는 과제’를 위한 이 자료는 학생 개인이나 또래 끼리 또는 가족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있게 꾸몄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농어촌으로 내용을 구분하기도 하고 자기 능력에 맞추어 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과제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월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였고 능력에 따라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실었다.

또한 지도 교사가 쉽게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인드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 「열린 학습의 열매」 발간·보급

열린 교육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실 교육의 내실을 위해 열린 교육의 실천 사례를 모아 「열린 교육 실천 사례집」을 발간·보급하였다.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 ‘학습 환경 조성’ ‘학습 자료 개발’ ‘교수-학습 방법’ ‘학교·학급 경영’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례는 현장 교원들의 창의적인 열린 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엮어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의 가슴에 새겨주고 싶은 이야기」 발간·보급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과 삶의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집한 이 자료는 17개 덕목별로 시, 고전과 명언, 10편 내외의 예화를 제시하는 등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내용으로 꾸몄다.

□ 「인터넷 길잡이」 발간·보급

정보화 시대에 교사들에게 먼저 인터넷을 알게 하고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법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삽화를 넣은 「인터넷 길잡이」를 발간·보급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인터넷의 개요, 컴퓨터 통신, 통신 프로그램 사용법, 인터넷 들어가기, WWW 들어가기, 홈 페이지 만들기 및 등록·관리, 교수-학습용 HTML 문서 만들기, 인터넷의 교수-학습 적용을 위한 활용 사례 및 과정 모델, 에듀넷을 위한 필요 장비와 메뉴 일람표, 가고 싶은 웹사이트 등으로 꾸며져 있다.

제주도 교육연구원

초등학교 자연과(3-2) 탐구학습 영상자료 제작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과학)연구원 공동 제작 계획에 의하여 초등학교 자연과(3-2) 영상자료를 제작하였다. 초등학교 자연과(3-2)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2개의 단원, 즉 연못에 사는 생물과 돌과 흙을 차시별로 2편의 영상자료로 제작하였다.

초등학교에는 2개 학급당 1개씩, 그리고 유관 기관에는 1개씩 총 350개(데이프)의 자료를 공급하여 교수-학습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 좌담회 개최

제주 교육 지표인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 구현을 위한 '96년의 활동을 결산하고 '97년의 계획과 전망을 알아봄으로써 '열린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97년 1월 26일 15시 제주도 교육연구원장실에서 개최된 좌담회에는 노상준 중등장학과장과 김동호 장학사, 일선 학교의 신찬주 교장(조천 초등학교), 김

이중 교장(서귀 중학교), 양용식 교사(영천 초등학교), 박숙년 교사(제주 중앙여자중학교) 등이 참가하였고, 정창희 조사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선생님들의 열린 교육 사례와 개선점 및 요망 사항,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 상황과 '97년 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이날 좌담은 제주도 교육청 기관지인 「교육제주」 특별기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좌담 내용은 '97년 3월(봄)호에 게재되어 일선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교단지원 교육 자료 전시회

제주도 교육연구원이 '96년도 한해 동안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작한 교육자료 전시회가 '97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주도 교육연구원 교원 대화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자료 개발 방법의 개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37종의 인쇄 자료가 전시되고 총 9종 중 3종의 영상 자료가 현장에서 상영되었다.

해외 동포 자녀에게 지역 교과서(아름다운 제주도) 보내기

일부 교과서의 지역화에 따라 초등학교 4-1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 '아름다운 제주도'를 개발하여 '9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에게 배부되어 사용하고 있는바, 이 교과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 자녀를 위해 '97년 2월말에 재외 공관을 통하여 일본을 비롯한 11개국 13개 한국학교에 750부 보내졌다.

'아름다운 제주도'가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에 보내지면 도서관에 보관하여 자료로 활용되거나 개인에게 배부되어 조국이나 고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토 사랑, 조국 사랑 정신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 사회과 탐구 교과서 '아름다운 제주도' 영상자료 제작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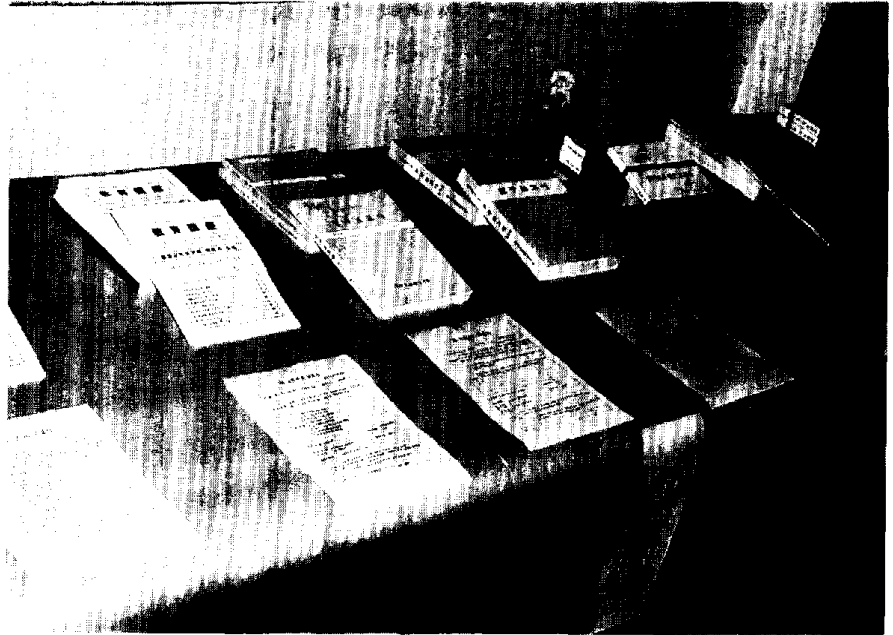
사회과 탐구 학습시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 학습력을 증진시키고자 학교 현장에서 시·공간적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을 모아 영상자료 4편(155부 620개)을 제작하여 '97년 신학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일선 초등학교 및 관련 기관에 보급하였다.

영상자료의 내용은 제주도의 모습, 제주도의 내력, 살기좋은 제주도, 발전하는 제주도 등이 단원별로 제작되었으며 이 자료는 도입 및 동기유발 자료, 보충·심화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어린이들로 하여금 고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향토애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교과교육 연구보고서 제4호 발간 보급

교과교육 연구회원들의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연구풍토 조성으로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교수-학습 지도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교과교육 연구회장의 추천을 받은 18개 분과 42편의 교과교육 연구보고서를 심사하여 최우수 연구보고서로 선정된 8편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편집·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도내 초·중·고 전학교와 교육 유관 기관에

보급되어 현직 교사들의 연구 의욕 고취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보의 교환, 동료 장학에 활용할 수 있다.



□ 연구보고서 제10호 발간 보급

학교교육현장의 과제 해결방안의 탐색, 새로운 교육이론의 정립,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과 새로운 교육자료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연구-시범학교의 운영결과 우수 시범 사례를 모아 일반화 자료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제10호를 도내 초·중등학교 및 교육 유관 기관에 보급하였다.

유치원 1개원과 15개 초·중등 연구·시범 학교의 우수 사례는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현장 교육방법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진로교육 자료 발간 보급

진로교육에 대한 지도 방안 및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각급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진로교육 제25호(2,200부), 진로교육 제26호(1,750부), 진로교육 편람(5,000부)을 전 도내 초·중·고 및 관계 기관에 배부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행 출판 자료 목록

자 료 명		장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장가	대행출판사		
초등학교 특활영어	배움책(상)	6,000	대한교과 서(주) (02) 3475 -3961	민주시민 교육자료	우리와 나(초등학교 5-6 학년 지도서)	2,400	대한교 과 서(주) (02) 3475 -3961		
	배움책(중)	6,0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학생용)	1,600			
	배움책(하)	6,000			민주사회 민주시민 (중학교 지도서)	3,100			
	지도서(상)	2,5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학생용)	2,900			
	지도서(중)	2,700			민주사회 민주시민 (고등학교 지도서)	4,000			
지도서(하)	2,800	민주사회 민주시민(성인 용)	2,400						
배우며 생각하 며 (초등학교용)	배움책(1-2)	4,800			민주사회 학생지도서 민주 적 학교운영(총지침서)	3,800			
	배움책(3-4)	4,000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한국 교육의 과제	4,500			
	배움책(5-6)	3,700			성 교 육 자 료	아직도 아기라고요 (초등학생용)			2,500
	지도서(1-2)	3,300				어른이 되나봐요(중학생용)			3,000
	지도서(3-4)	3,600		우리는 예비어른 (고등학생용)		3,400			
지도서(5-6)	3,200	초등학교 영어학습 자료	3학년용	12,000	삼 화 출 판사 (02) 776 -6687 ~8				
배우며 생각하 며(중학교용)	배움책		지도서	4학년용		12,500			
			교사용지도서	2,400					
	생각하는 수학공부 (초등학교용)	1학년용	2,600	우 등 생 이 되기 위한 글읽기(초· 중등학생용)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2학년용	2,7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3학년용	3,3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4학년용	3,700		정교화 학습전략(Ⅰ)	1,700			
5학년용		3,700	정교화 학습전략(Ⅱ)		1,900				
6학년용		3,900	읽기학습전략훈련지침서		1,200				
생활경제 학습자료 (초등학교용)	지하마을의 전설	1,400	환 경 교 육 자료(초등 학교용)	즐거운 환경탐구 (1,2학년용)	1,900				
	태호와 드송	1,5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년용)	2,000				
	내일은 야구왕	1,500		보람찬 환경탐구 (5,6학년용)	2,300				
	욕망과 선택	1,500		환경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3,900				
	동수의 병	1,400		영 재 교 육 자료	이야기나라 (초등학교 3,4학년용)	1,400			
	화해	1,300			추정의 세계(")	1,2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사람들이 사는 곳(")	1,700			
	쟁구의 불가비행	1,400			자석에 관한 연구(")	1,100			
	한지붕 두 마음	1,300			미술감상(")	1,600			
	물고기의 교훈	1,400			교사용지도서(초등학교 3,4 학년용)	2,500			
지도서(상)	5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지도서(하)	4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학생용)		35,0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용)	1,300				
	유치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지도서)		3,3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지도서)	2,2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용)		1,3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용)	1,600				
	우리와 나(초등학교 1 -2학년 지도서)		2,2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 -4학년 지도서)	2,6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용)	1,600	우리와 나(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용)	1,600					
	우리와 나(초등학교 3 -4학년 지도서)	2,600	신문기사(초등학교 5,6학년 용)	1,000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정가	대행출판사
영재교육자료	확률의 신비(")	1,100	삼 화 출 판 사(02) 776 -6687 ~8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중학교용(A형)	750	한국적성연 구소 (02) 515 -5722 (02) 515 -5725 750
	우리나라의 풍습(")	1,400			중학교용(B형)	750	
	깨끗한 물(")	1,100			고등학교용(A형)	750	
	동요만들기(")	1,800			고등학교용(B형)	750	
	교사용 지도서(")	3,300			대학교용(A형)	750	
	에너지와 우리생활(중학 생용)	1,400			대학교용(B형)	750	
	전기와 그 이용(")	1,200			초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인간과 생태계(")	1,000			중학교용 추가검사	750	
	바다의 신비(")	1,100			고등학교용 추가검사	750	
	우리가 사는 지구(")	1,300					
교사용 지도서(")	2,800						
수학과 학습자 료(중학생용)	수학 문제 해결의 지혜 (1학년용)	4,100	진로성숙도검사	중·고등학생용	750		
	(2학년용)	3,500					
	(3학년용)	3,500					
영어능력신장자 료(중학생용)	영어 읽기	3,800	아동용 개인 지능검사 (KEDI -WISC)	만 5세-만 15세	104,000	도서출판 특수교육 (02) 812 -0348	
	영어 쓰기(1)	3,100					
	영어 쓰기(2)	2,500					
	영어 쓰기(3)	2,600					
한국교육개발원 집단지능검사	초등학교용(A형)	750	기초학습 가능검사	만 5세 초등학교-6학년 용	184,000		
	초등학교용(B형)	750					
				교실에서 세계로, 세계를 교실로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	6,500	(주) 흥익 미디어 (02) 761~0650	

[KEDI 도서회원]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 NO. _____

구독자(기관) 주 소	우편번호 -		
개인 의 경우	구독자 성명		전화번호
	근무처		직 위
단체 의 경우	구 독 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구독구좌수	구좌 (신규, 재가입 : 년도회원)		
회 비 ■ 가입 년회비 (1 구좌당) : 70,000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 입 처 :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 ○ 송 금 액 : 원 ○ 송금 년월일 : 199 년 월 일 ○ 송 금 자 명 : 		
<p>본인은 상기와 같이 귀원의 도서회원으로 가입코자 합니다.</p> <p>199</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 (개인, 단체)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 국 교 육 개 발 원 장 귀하</p>			

* 회비(70,000 원)를 입금하실 때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 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6 회), '한국교육'(연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15~20 종(익년도 3 월) 우송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 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 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회비(1 구좌당)

- 가입 연회비 : 70,000 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 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자료실

홍보출판운영팀(전화 : 3460-0408, 0411 FAX : 577-5117)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지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이론에 의한 KEDI 지능 검사

❖ 검사지의 종류 ❖

검사지의 종류			소요 시간	비고
초등학교	A/B 형	요강	60분	검사 요강이나 실시 TAPE를 이용하여 검사
중학교	A/B 형	요강	60분	
고등학교	A/B 형	요강	60분	
대학교	A/B 형	요강	60분	
오류 유형 판별 검사	초·중·고	요강		검사 요강을 이용하여 검사

❖ 검사지의 특징 ❖

- ① 전국적 표준화를 거친 최신 기준에 의해 제작된 지능검사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능 측정이 가능합니다.
- 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기준(전국, 남·녀, 도시·농촌)을 각각 제공합니다.
- ① 심리측정적 이론과 인지과정적 입장을 절충한 검사로 문제 해결 과정상의 오류에 관해서도 그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 검사에 한함)
- ① 개인결과표는 물론, 반별비교표, 학년지능순위표, 번호순·지능순 통계표가 제공됩니다.

❖ 오류 유형 판별 검사 ❖

학생 개개인의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종류와 수준의 문제를 모르며, 문제 해결 과정상의 오류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추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지능지수와 부족한 능력을 파악하여 개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발 행 처: 한국 교육 개발원

☎ (02)3460-0408, 0411

● 제작·보급: 한국적 성 연구소

☎ (02) 515-5722

517-3332

최신 기준과 다양한 정보 기능을 갖춘 KEDI 적성 검사

◆ 검사지의 종류 ◆

검사지의 종류			소요 시간	비고
초등학교	A/B 형	요강	120분	검사 요강이나 실시 TAPE를 이용하여 검사
중학교	A/B 형	요강	120분	

◆ 검사지의 특징 ◆

- 전국적 표준화를 거친 최신 기준에 따른 적성검사로써 전국 기준과 남·녀 기준이 각각 제공됩니다.
- KEDI 적성검사는 학생의 학업적성과 직업적성의 측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 기존 적성검사에 비해 다양한 소검사(언어·수리·공간·과학·변별지각·수공기능·대인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능력을 여러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하위영역별 적성검사 득점표는 물론, 직업적성판정표, 학업적성과악표가 제공됩니다.

● 발행처: 한국 교육 개발원

☎ (02)3460-0408, 0411

● 보 급: 1997년 5월 예정



안개 속에 숨다

류시화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선
인기척과 함께 곧 들키고 말지만
안개 속에서는
가까이 있으나 그 가까움은 안개에 가려지고
멀리 있어도 그 거리는 안개에 채워진다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
때로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멀어져감을 두려워한다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선 누구나 고독하고,
그 고독을 들킬까 굳이 염려하지만
안개 속에서는
삶에서 혼자인 것도 여럿인 것도 없다
그러나 안개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없는 것
시간이 가면
안개는 걷히고 우리는 나무들처럼
적당한 간격으로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면서
안개 뒤에 나타났다가 다시 안개 속에 숨는 것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